한국문화예술위원회

Kstat 케이스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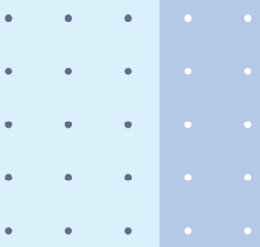
2025

지역문화재단 사업조사

결과 보고서







Contents

1. 연구개요

제1절 연구 배경 ····· 3
1. 지역문화재단의 양적 성장과 역할 확대 ····· 3
2. 기존 문화통계 체계의 현황과 과제 ····· 4
3. 정책 환경의 변화와 데이터 수요 ····· 6

제2절 연구 목적 ····· 8

제3절 연구 범위 및 대상 ····· 9
1. 조사 대상 ····· 9
2. 조사 기준연도 및 응답 현황 ····· 12
3. 분석 단위 및 주요 분석 항목 ····· 12

제4절 분류체계 개발 ····· 13
1. 기존 분류체계 검토 ····· 13
2. 분류체계 개발 과정 ····· 14
3. 기능 분류의 3대 원칙 ····· 16
4. 표준 분류체계 – 6대 기능 대분류 ····· 17
5. 확정된 표준 분류체계 ····· 19

제5절 조사 설계 및 수행체계 ····· 21
1. 조사표 설계 ····· 21
2. 데이터 수집 및 정제 ····· 24

2. 전체 사업의 기능별 분석

제1절 조사 응답 개요 ····· 27
1. 응답 재단 현황 ····· 27
2. 사업 수 현황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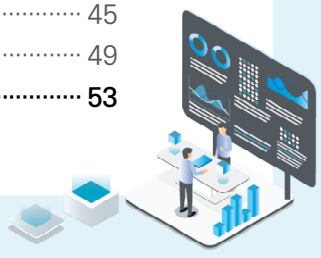
제2절 기능별 사업 분포 현황 ····· 29
1. 기능별 사업 수 분포 ····· 29
2. 기능별 사업비 규모 ····· 34

제3절 기능별 사업 추진 방식 ····· 38
1. 기능별 추진방식 분포 ····· 38
2. 직접사업 및 지원사업 구성 ····· 39

제4절 기능별 재원 구성 현황 ····· 41
1. 재원 유형별 분포 ····· 41
2. 기능별 재원 구성 비교 ····· 43

제5절 기능별 사업 규모 및 지원 구조 ····· 45
1. 지원사업 신청·선정 현황 ····· 45
2. 지원금 규모 및 구조 ····· 49

제6절 소결 ····· 53



Contents

3. 광역·기초 간 사업 구조 비교

제1절 광역 재단 사업 지원 현황 ····· 57
1. 예술창작활동지원 ····· 57
2. 문화예술교육 ····· 68
3. 예술인지원 ····· 82
4. 문화향유 ····· 89

제2절 기초 재단 사업 지원 현황 ····· 95
1. 예술창작활동지원 ····· 95
2. 문화예술교육 ····· 102
3. 예술인지원 ····· 105
4. 문화향유 ····· 107

4. 종합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 115
1. 기능 중심 분류체계의 구축과 적용 ····· 115
2. 전체 사업의 기능별 구조적 특성 ····· 115
3. 광역·기초 재단 간 구조적 분화 양상 ····· 116
4. 세분류 단위 지원 현황의 구조적 특성 ····· 11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18
1. 재단 유형별 지원 방향의 차별화 ····· 118
2. 기능별 정책 과제 ····· 119
3. 광역-기초 간 역할·분담 체계화 방향 ····· 120
4. 지역문화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향 ····· 122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 123
1. 연구의 의의 ····· 123
2. 향후 과제 ·····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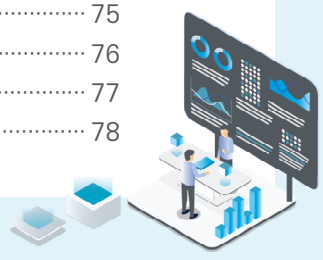
부록



Contents

표 차례

[표 1-1] 조사 대상 지역문화재단(광역) ····· 9
[표 1-2] 조사 대상 지역문화재단(기초) ····· 10
[표 1-3] 조사 대상 지역문화재단(기초) ····· 11
[표 1-4] 지역문화재단 사업 표준 기능 분류체계 ····· 19
[표 1-5] 주요 조사 항목 ····· 22
[표 2-1] 응답 재단 및 사업 수 현황 ····· 27
[표 2-2] 대분류 기능별 사업 수 현황 ····· 28
[표 2-3] 재단별 사업 수 구간 분포 ····· 28
[표 2-4] 대분류 기능별 수행 재단 수 현황 ····· 29
[표 2-5] 재단별 수행 기능 수 분포 ····· 30
[표 2-6] 재단별 수행 기능 수 분포 ····· 30
[표 2-7] 대분류 기능별 사업비 총액 현황 ····· 34
[표 2-9] 대분류 기능별 사업당 사업비 및 규모 분포 특성 ····· 35
[표 2-10] 대분류 기능별 추진방식 현황 ····· 38
[표 2-11] 대분류 기능별 직접·지원사업 구성 ····· 40
[표 2-12] 재원 유형별 사업 수 현황 ····· 41
[표 2-13] 전체 재원 유형별 분포 ····· 42
[표 2-14] 대분류 기능별 재원 구성 ····· 43
[표 2-15] 공모사업 신청·선정 현황 ····· 45
[표 2-16] 기능별 지원금 총액 ····· 49
[표 2-17] 예술창작활동지원 지원금 정액·비정액 구성 ····· 52
[표 3-1] 작품 창·제작 및 발표 지원 ····· 57
[표 3-2] 광역재단별 청년·원로·장애인 대상 특화 지원 현황 ····· 59
[표 3-3] 광역재단별 작품 유통 및 매개활동 지원 현황 ····· 60
[표 3-4] 광역재단별 예술(창작) 공간 운영 지원 현황 ····· 61
[표 3-5] 광역재단별 레지던스 운영 지원 현황 ····· 62
[표 3-6] 광역재단별 임차료 지원 현황 ····· 63
[표 3-7] 광역재단별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현황 ····· 65
[표 3-8] 광역재단별 국제 레지던시 참가 지원 현황 ····· 66
[표 3-9] 광역재단별 사전(준비)단계 지원 현황 ····· 67
[표 3-10] 광역재단별 일반시민교육 현황 ····· 68
[표 3-11] 광역재단별 아동청소년예술교육 현황 ····· 69
[표 3-12] 광역재단별 세대통합형 교육 현황 ····· 70
[표 3-13] 광역재단별 유아예술교육 현황 ····· 71
[표 3-14] 광역재단별 고령자·시니어 예술교육 현황 ····· 73
[표 3-15] 광역재단별 취약계층 특화 예술교육(교육) 현황 ····· 74
[표 3-16] 광역재단별 청년·성인(직장인)예술교육 현황 ····· 75
[표 3-17] 광역재단별 교육 인력 양성·연수 현황 ····· 76
[표 3-18] 광역재단별 교육프로그램 개발·고도화 현황 ····· 77
[표 3-19] 광역재단별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플랫폼/장비 구축 현황 ····· 78



Contents

[표 3-20] 광역재단별 취약계층 특화 예술교육(교육 기반구축) 현황 ····· 79
[표 3-21] 광역재단별 교육주간·축제·박람회 현황 ····· 80
[표 3-22] 광역재단별 우수사례 확산·멘토링/커뮤니티 현황 ····· 81
[표 3-23] 광역재단별 예술 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컨설팅 현황 ····· 82
[표 3-24] 광역재단별 예술인 파견지원 현황 ····· 83
[표 3-25] 광역재단별 법률 및 세무, 행정컨설팅 현황 ····· 84
[표 3-26] 광역재단별 건강 및 심리지원 현황 ····· 85
[표 3-27] 광역재단별 창업 지원 현황 ····· 86
[표 3-28] 광역재단별(복지성) 현금 지원 현황 ····· 87
[표 3-29] 광역재단별 대출지원 현황 ····· 88
[표 3-30] 광역재단별 기획공연 현황 ····· 89
[표 3-31] 광역재단별 생활문화 동아리·단체 활동 지원 현황 ····· 90
[표 3-32] 광역재단별 생활문화 축제 및 네트워크 활성화 현황 ····· 91
[표 3-33] 광역재단별 접근성 격차해소 지원(아웃리치) 현황 ····· 92
[표 3-34] 광역재단별 경제적 격차해소 지원 현황 ····· 93
[표 3-35] 광역재단별 특성별 맞춤형 지원 현황 ····· 94
[표 3-36] 작품 창·제작 및 발표 지원 ····· 95
[표 3-37] 기초재단 권역별 청년·원로·장애인 대상 특화 지원 현황 ····· 96
[표 3-38] 기초재단 권역별 작품 유통 및 매개활동 지원 현황 ····· 96
[표 3-39] 기초재단 권역별 예술(창작) 공간 운영 지원 현황 ····· 97
[표 3-40] 기초재단 권역별 레지던스 운영 지원 현황 ····· 98
[표 3-41] 기초재단 권역별 임차료 지원 현황 ····· 98
[표 3-42] 기초재단 권역별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현황 ····· 99
[표 3-43] 기초재단 권역별 국제 레지던시 참가 지원 현황 ····· 100
[표 3-44] 기초재단 권역별 사전(준비)단계 지원 현황 ····· 101
[표 3-45] 기초재단 권역별 예술인 및 작품 시상 현황 ····· 101
[표 3-46] 기초재단 권역별 일반시민교육 현황 ····· 102
[표 3-47] 기초재단 권역별 아동청소년예술교육 현황 ····· 102
[표 3-48] 기초재단 권역별 교육 인력 양성·연수 현황 ····· 103
[표 3-49] 기초재단 권역별 교육프로그램 개발·고도화 현황 ····· 104
[표 3-50] 기초재단 권역별 예술 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컨설팅 현황 ····· 105
[표 3-51] 기초재단 권역별 예술인 파견지원 현황 ····· 105
[표 3-52] 기초재단 권역별 기획공연 현황 ····· 107
[표 3-53] 기초재단 권역별 그 밖의 행사 현황 ····· 107
[표 3-54] 기초재단 권역별 기타 축제 현황 ····· 108
[표 3-55] 기초재단 권역별 역사문화자원연계축제 현황 ····· 109
[표 3-56] 기초재단 권역별 생활문화 동아리·단체 활동 지원 현황 ····· 109
[표 3-57] 기초재단 권역별 생활문화 축제 및 네트워크 활성화 현황 ····· 110
[표 3-58] 기초재단 권역별 접근성 격차해소 지원(아웃리치) 현황 ····· 111
[표 3-59] 기초재단 권역별 특성별 맞춤형 지원 현황 ·····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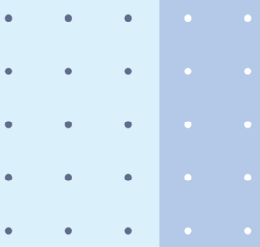
1

연구개요

2025 지역문화재단 사업조사 연구









제1절 연구 배경

1. 지역문화재단의 양적 성장과 역할 확대

1) 설립 현황 및 연도별 추이

* 지역문화재단은 200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됨. 초기에는 광역시·도 단위 광역재단이 설립의 중심이었으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설립 속도가 완만하였음. 그러나 2010년 전후를 기점으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재단 설립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소 규모 시·군 단위에서도 재단 설립이 이어지면서 설립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현재 전국에는 광역재단 17개소, 기초재단 131개소 등 총 148개의 지역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양적 확산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음.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은 지자체가 문화재단을 통해 지역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지역문화 분권화 기조 역시 재단 설립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였음. 또한 문화도시, 문화특구 등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문화 관련 공모사업이 확대되면서, 이를 수행할 전문 기관으로서 재단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도 설립 증가에 기여하였음

* 다만 설립 시기와 지역 여건에 따라 재단 간 규모와 역량의 편차도 상당함. 수십 명의 전문 인력과 수백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광역재단부터, 소수의 인력과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초재단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으며, 이는 재단 간 기능과 사업 구조의 차이로도 이어지고 있음

2) 지역 문화정책 실행 주체로서의 위상 변화

* 지역문화재단은 설립 초기 문화행사 기획·운영을 주된 역할로 하는 실무 기관으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지역 문화정책의 핵심 실행 주체로 위상이 변화하고 있음. 과거에는 지자체 문화 담당 부서가 직접 수행하던 사업들이 재단으로 이관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단순 행사 운영을 넘어 지역 문화생태계 조성, 예술인 지원, 시민 문화향유 기반 확충 등 정책적 성격이 강한 사업들도 재단이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음

* 이러한 위상 변화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와 성격에서도 확인됨. 예술창작 지원,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시설 운영, 문화정책 연구 등 다양한 기능 영역에 걸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정부 수탁사업과 지자체 위탁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매개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 문화기관과의 협력 사업이 확대되면서 재단의 정책 네트워크 내 위치도 강화되고 있음

* 한편 재단의 역할 확대는 지자체로부터의 자율성 문제와도 맞닿아 있음. 출연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예산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도,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밀착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기획 역량을 키워온 재단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재단이 단순한 행정 대행 기관이 아니라 지역 문화정책의 전문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임

3) 광역·기초 재단 간 기능 분화와 협력 구조

✲ 지역문화재단은 광역재단과 기초재단으로 구분되며, 설립 단위와 운영 규모의 차이에 따라 수행하는 기능에서도 점차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광역재단은 광역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창작 지원, 문화정책 연구, 광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반면 기초재단은 주민 생활권 단위에서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생활문화 활성화,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등 시민 직접 서비스 기능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기능 분화는 재단 유형별 사업 구성의 차이로도 나타남. 광역재단은 공모·지원 방식의 사업 비중이 높고, 예술단체 및 예술인을 주요 수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은 반면, 기초재단은 직접 운영 방식의 프로그램 사업 비중이 높고 일반 시민을 주요 참여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은 구조가 일반적임. 다만 이러한 경향이 모든 재단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 여건과 재단의 설립 경위,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

✲ 광역재단과 기초재단 사이에는 협력 관계도 형성되어 있음. 광역재단이 기초재단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광역 단위 사업의 지역 거점으로 기초재단을 활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임. 또한 광역재단이 기획한 콘텐츠를 기초재단이 지역에서 실행하는 협업 구조도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사한 기능의 사업이 광역과 기초 양쪽에서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존재하며, 이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2. 기존 문화통계 체계의 현황과 과제

1) 중앙 집중형 통계체계와 지역 기초단위 현황

✲ 현행 국가 문화통계 체계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전국 단위 또는 광역 단위의 집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등 주요 문화통계는 국민 전체 또는 광역시·도 단위의 문화 활동 현황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이러한 통계 체계는 국가 전체의 문화 현황을 조망하는 데는 유용하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문화재단의 사업 활동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임

✲ 기초 단위 지역문화재단과 관련된 기존 통계는 재단 수, 예산 총액, 인력 규모 등 기관 단위의 총괄 수치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재단이 어떤 기능의 사업을 얼마나 수행하는지, 각 사업에 어느 정도의 재원이 투입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관한 사업 단위 데이터는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재단의 실질적인 활동 내용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재단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타 공공 분야와 비교할 때 이러한 격차는 더욱 두드러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서비스 사업 단위까지 표준화된 보고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체육 분야 역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중심으로 기초 단위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이 체계적으로 집계되고 있음. 지역문화 분야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기초자료 수집 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임



2) 사업 단위 데이터의 구축 현황

* 지역문화재단 관련 기존 통계는 기관 단위의 총괄 수치 제공에 그치고 있으며, 개별 사업 단위의 데이터는 사실상 구축되어 있지 않음. 현재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 통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실태조사」가 대표적이나, 이 조사 역시 재단별 사업 수나 예산 규모를 개괄적으로 집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각 사업의 기능적 성격, 재원 구성, 운영 방식, 수혜 대상 등 사업의 실질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로인해 현장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정책 질문들에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예컨대 전국 지역문화재단이 예술창작 지원에 투입하는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이 몇 개소인지, 직접 운영 방식과 공모 방식의 사업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재단 간 비교나 유형별 분석은 더욱 요원한 상황으로, 사업 단위 데이터의 부재는 지역문화정책 연구와 평가 전반의 실증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일부 재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 현황을 정리하거나 성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항목 구성과 집계 방식이 재단마다 달라 자료 간 비교가 불가능함. 표준화된 조사 체계 없이 개별 재단의 자율적 응답에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현황 파악이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음

3) 타 분야 대비 지역문화 부문 데이터 현황

* 공공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쳐 기초 단위 사업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과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지역문화 부문의 데이터 기반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기초 단위 복지사업의 수혜자, 급여액, 서비스 내용 등이 실시간으로 집계·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정책 효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체육 분야 역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전국 공공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지역별 체육 인프라와 참여 현황의 비교 분석이 가능한 상태임

* 교육 분야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해 학교급별, 지역별 세부 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격차 실태 분석과 정책 개입 우선순위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들 분야는 공통적으로 기초 단위까지 표준화된 보고 항목과 수집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 분석과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지님

* 반면 지역문화 분야는 이에 상응하는 기초자료 수집 체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지역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규모, 재원 구조, 운영 방식 등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집·집계하는 공식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지역문화정책의 실증적 근거 마련과 성과 관리를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전국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현황을 사업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비교 가능한 통계로 산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수행되었음

3. 정책 환경의 변화와 데이터 수요

1)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이후 성과 관리 강화 요구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은 지역문화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 이 법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제도화함으로써 재단의 정책적 위상을 공식화하였음.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문화 실태조사,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성과 관리와 관련된 조항들이 강화되었으며, 재단의 사업 수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 시작하였음

*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재단의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지원 방향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사업 단위 기초자료가 부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경영평가, 주요사업 평가 등 각종 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기준과 지표가 재단마다 달리 적용되거나 비교 가능한 데이터 없이 정성적 평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표준화된 사업 단위 통계의 구축이 성과 관리 체계 개선의 선결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나아가 재정 당국과 지자체 의회를 중심으로 재단 지원 예산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지자체 출연금의 규모가 커지고 재단의 사업 범위가 확대될수록, 투입 대비 산출과 성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2) 재단 유형·규모별 맞춤 지원 정책 설계 필요성

* 전국 148개 지역문화재단[1]은 설립 단위, 운영 규모, 지역 여건 등에서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음. 수십 명의 전문 인력과 수백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광역재단부터, 5인 이내의 인력과 수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초재단까지 그 편차가 매우 크며, 도시형 재단과 농촌형 재단 사이에서도 사업 환경과 수요가 크게 다름. 그러나 현재의 중앙정부 지원 정책은 이러한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재단 현장에서는 정책과 실제 수요 사이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맞춤형 지원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재단 유형별 사업 구조와 재원 현황에 관한 실증 데이터가 필수적임. 광역재단과 기초재단이 각각 어떤 기능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소규모 재단에서 특히 취약한 기능 영역이 무엇인지, 농촌 지역 재단의 재원 구조가 도시 지역과 어떻게 다른지 등을 파악해야 비로소 차별화된 지원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이러한 데이터 없이는 재단 유형별 맞춤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음

3) 지역 간 문화격차 실증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필요

* 지역 간 문화격차 문제는 문화정책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사이의 문화 향유 기회 격차는 이미 다양한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나, 이러한 격차가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구조와 재원 배분의 차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음. 지역 간 문화격차를 진단하고 정책적 개입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사업 현황을 지역 단위에서 비교 가능한 형태로 축적하는 것이 출발점이 됨

1) 조사 시점 기준의 지역문화재단 현황이므로 현재 시점과의 차이가 존재함



* 특히 문화도시, 문화특구 등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문화 관련 정책 사업이 확대되면서, 해당 지역의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구조가 다른 지역과 어떻게 다른지, 정책 개입이 지역 문화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본 연구에서 구축하는 사업 단위 데이터는 이러한 지역 간 비교 분석과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2절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전국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현황을 사업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비교 가능한 통계로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금까지 지역문화재단에 관한 논의는 주로 재단의 설립 현황이나 조직·재정 구조에 집중되어 왔으며, 재단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음.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업 단위의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음. 이를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세부 목적을 설정하였음

* 첫째, 지역문화재단 사업에 적용 가능한 기능 중심 표준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재단 간 비교 가능한 통계 기반을 마련함. 기존의 장르 중심·사업 유형 중심 분류는 지역문화재단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기능적 다양성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의 목적과 역할, 수혜 대상을 기준으로 한 기능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전국 단위 조사에 적용함으로써 재단 간 비교 분석의 토대를 마련함. 표준 분류체계의 수립은 단순히 이번 조사를 위한 도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역문화재단 관련 통계 생산과 정책 평가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준 체계로서의 의의를 가짐

* 둘째, 표준 분류체계에 기반하여 지역문화재단 사업의 기능별·유형별 기초통계를 산출함. 사업 수, 사업비, 재원 구조, 운영 방식 등 핵심 지표를 기능 분류와 연계하여 제시함으로써 현황 파악의 실증적 기초를 마련함. 특히 재원 유형별 구성 비율, 민간후원 참여 현황, 자체수입 비중 등 재단의 재정 구조와 관련된 지표를 사업 단위에서 집계함으로써, 기존 통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재단 사업의 재원 의존 구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함

* 셋째, 광역재단과 기초재단 간, 그리고 권역 간 사업 구조를 비교하여 현황을 진단함. 재단 유형 및 지역에 따른 사업 구성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재단 유형별 특성화 패턴과 기능 분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함. 광역재단과 기초재단 사이의 기능 중복 또는 협력 관계, 권역별 사업 구조의 차이와 그 배경 등을 분석하여 광역-기초 간 역할 분담 체계에 관한 논의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함

* 넷째, 재단별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재단 특성화 패턴을 도출함. 단일 기능에 특화된 재단과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재단의 유형을 분류하고, 재단 규모 및 설립 단위와의 관계를 분석함. 재단별 포트폴리오 분석은 개별 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유사한 여건의 재단들 사이에서 사업 구조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음. 나아가 재단의 자기 진단과 전략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의 역할도 기대됨

* 다섯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역문화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함. 재단 유형별 지원 방향, 기능 공백 영역의 확인, 광역-기초 간 역할 분담 체계화 방향 등에 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본 연구가 산출하는 기초통계는 일회성 자료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역문화재단 통계의 정기적 생산과 시계열 분석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지역문화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함



제3절 연구 범위 및 대상

1. 조사 대상

*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전국 148개 지역문화재단임. 광역시·도 단위의 광역재단 17개소와 시·군·구 단위의 기초재단 131개소를 포함하며, 설립 주체나 운영 규모에 관계없이 지역문화재단으로 분류되는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다만 문화재단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설립 목적이나 사업 내용이 지역문화진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 또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기관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조사 대상 재단은 광역재단과 기초재단으로 구분되며, 기초재단은 다시 시 단위 재단과 군 단위 재단으로 세분됨. 시 단위 재단은 도시형 문화수요를 기반으로 비교적 다양한 기능의 사업을 수행하는 반면, 군 단위 재단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인력과 예산 속에서 지역 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유형 구분은 이후 분석 단계에서 재단 간 비교의 기본 틀로 활용됨

[표 1-1] 조사 대상 지역문화재단(광역)

No	지역	재단명
1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2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3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4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5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6	대전광역시	대전문화재단
7	울산광역시	울산문화관광재단
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9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10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문화재단
11	충청북도	충북문화재단
12	충청남도	충남문화관광재단
13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14	전라남도	전라남도문화재단
15	경상북도	경북문화재단
16	경상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표 1-2] 조사 대상 지역문화재단(기초)

No	재단명	No	재단명
1	종로문화재단	36	인천남동문화재단
2	중구문화재단	37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3	성동문화재단	38	대덕문화관광재단
4	광진문화재단	39	유성구행복누리재단
5	동대문문화재단	40	고래문화재단
6	중랑문화재단	41	울주문화재단
7	성북문화재단	42	수원문화재단
8	강북문화재단	43	성남문화재단
9	도봉문화재단	44	의정부문화재단
10	노원문화재단	45	안양문화예술재단
11	은평문화재단	46	부천문화재단
12	마포문화재단	47	광명문화재단
13	양천문화재단	48	평택시문화재단
14	구로문화재단	49	안산문화재단
15	금천문화재단	50	고양문화재단
16	영등포문화재단	51	과천문화재단
17	동작문화재단	52	구리문화재단
18	관악문화재단	53	오산문화재단
19	서초문화재단	54	군포문화재단
20	강남문화재단	55	하남문화재단
21	송파문화재단	56	용인문화재단
22	강동문화재단	57	이천문화재단
23	부산진문화재단	58	김포문화재단
24	금정문화재단	59	화성시문화관광재단
25	대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60	광주시문화재단
26	대구동구문화재단	61	포천문화관광재단
27	행복북구문화재단	62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28	수성문화재단	63	양평문화재단
29	달서문화재단	64	춘천문화재단
30	달성문화재단	65	원주문화재단
31	군위문화관광재단	66	강릉문화재단
32	인천중구문화재단	67	동해문화관광재단
33	연수문화재단	68	태백시문화재단
34	부평구문화재단	69	속초문화관광재단
35	인천서구문화재단	70	홍천문화재단



[표 1-3] 조사 대상 지역문화재단(기초)

No	재단명	No	재단명
71	횡성문화관광재단	101	순천문화재단
72	영월문화관광재단	102	담양군문화재단
73	정선아리랑문화재단	103	화순군문화관광재단
74	철원문화재단	104	강진군문화관광재단
75	양구문화재단	105	해남문화관광재단
76	인제군문화재단	106	영암문화관광재단
77	고성문화재단	107	함평축제관광재단
78	양양문화재단	108	포항문화재단
79	삼척관광문화재단	109	경주문화재단
80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110	한국정신문화재단
81	충주문화관광재단	111	구미문화재단
82	제천문화재단	112	영주문화관광재단
83	영동군문화관광재단	113	청송문화관광재단
84	천안문화재단	114	영양축제관광재단
85	공주문화관광재단	115	영덕문화관광재단
86	금산문화관광재단	116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87	아산문화재단	117	칠곡문화관광재단
88	서산문화재단	118	예천문화관광재단
89	논산문화관광재단	119	봉화축제관광재단
90	당진문화재단	120	경산문화관광재단
91	홍주문화관광재단	121	창원문화재단
92	계룡시문화관광재단	122	진주문화관광재단
93	전주문화재단	123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94	군산문화재단	124	사천문화재단
95	익산문화관광재단	125	김해문화관광재단
96	완주문화재단	126	밀양문화관광재단
97	순창발효관광재단	127	거제시문화예술재단
98	고창문화관광재단	128	산청축제관광재단
99	부안군문화재단	129	남해군관광문화재단
100	목포문화재단	130	거창문화재단
		131	고성문화관광재단

2. 조사 기준연도 및 응답 현황

✲ 조사 기준연도는 2024년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재단이 예산을 편성하여 수행한 모든 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음. 해당 기간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교부금, 자체 예산, 국비 수탁 등 재원 유형에 관계없이 재단이 수행한 모든 사업을 포함하였음. 단, 별도 사업 예산 없이 일반운영비 또는 인건비 항목으로만 집행되는 단순 행정 업무와 문화예술과 직접적인 연관 없이 관광이 주 목적인 사업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하였음

✲ 총 148개 조사 대상 재단 중 79개 재단이 응답에 참여하였으며, 조사 참여 재단이 응답한 사업은 총 1,391개임. 응답 재단의 유형별 구성과 권역별 분포는 제3장 분석 결과의 해석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맥락 정보로, 이에 관한 상세한 현황은 제3장 제1절에서 별도로 기술함

3. 분석 단위 및 주요 분석 항목

✲ 본 연구의 기본 분석 단위는 개별 사업임. 재단명과 사업명의 조합을 고유한 분석 단위로 설정하여, 동일한 재단 내에서 수행된 사업들도 각각 독립적인 분석 대상으로 처리하였음. 이는 재단 단위의 총괄 분석뿐만 아니라 기능별·유형별 세부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전제가 됨

✲ 주요 분석 항목은 크게 사업의 기능 분류, 재원 구조, 운영 방식, 사업 규모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됨. 기능 분류는 본 연구에서 새롭게 수립한 6대 기능 대분류 체계를 적용하였으며, 재원 구조는 국비보조, 지자체보조, 지자체출연, 지자체수탁, 기금, 민간기부금 등 재원 유형별 구성 비율을 분석함. 운영 방식은 직접 주관, 일반 공모, 외부 용역 등의 방식별 분포를 파악하였으며, 사업 규모는 사업비 총액, 참여 인원, 프로그램 수 등의 지표를 활용하였음



제4절 분류체계 개발

1. 기존 분류체계 검토

1) 국가 문화통계 분류체계 현황

* 국내 문화통계 분류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정책백서」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각종 기초통계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유산, 체육, 관광 등 분야별 대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이 분류체계는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 구조를 반영하여 설계된 것으로, 국가 단위의 문화정책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적합한 체계임

* 문화예술 분야 내에서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예술 장르를 기준으로 한 분류가 주를 이루고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등 중앙 문화기관들도 각자의 사업 구조에 맞는 분류체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분류 기준이 상이하여 기관 간 통계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임. 지역문화진흥원의 경우 지역문화재단 관련 현황을 일부 집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재단 단위의 총괄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어 사업 단위 분석에는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임

2) 기존 체계의 지역문화재단 적용상 과제

* 기존 국가 문화통계 분류체계는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 구조와 예술 장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현실을 반영하는 데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첫째, 기존 분류체계는 중앙정부 관점의 하향식 구조를 취하고 있어 지역 현장의 사업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음. 중앙정부 지원 사업의 명칭과 유형을 기준으로 설계된 분류 항목들이 지역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기획·수행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억지로 끼워 맞추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함

* 둘째, 예술 장르 중심의 분류는 사업의 기능적 성격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동일한 공연예술 장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술가 창작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시민 관람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정책적 의미와 수혜 대상이 전혀 다름. 장르 중심 분류로는 이러한 기능적 차이를 구분할 수 없어, 재단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움

* 셋째, 지원사업과 직접사업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음. 재단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사업과 예술단체나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은 운영 구조와 정책 효과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 분류체계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재단의 사업 방식과 역할 구조를 통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2. 분류체계 개발 과정

1) 문헌 검토 및 기존 분류체계 분석

✲ 분류체계 개발은 국내 문화통계 및 문화기관 분류체계에 대한 문헌 검토에서 출발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진흥원 등 주요 문화기관이 운용하는 기존 분류체계의 구조와 적용 기준을 검토하고, 각 체계의 분류 기준, 항목 구성, 적용 범위를 비교·분석하였음. 검토 결과 기존 분류체계들은 공통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 구조 또는 예술 장르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음

✲ 장르 중심 분류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 예술의 형식적 유형을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예술 지원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용되어 온 체계임. 그러나 이 방식은 동일한 장르 내에서도 사업의 목적과 수혜 대상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짐. 예컨대 공연예술 분야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술가의 작품 창·제작을 지원하는 사업과 시민의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은 정책적 목적, 수혜 대상, 기대 효과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장르 중심 분류에서는 동일한 범주로 묶이게 됨

✲ 중앙정부 사업 유형 중심의 분류 역시 유사한 한계를 지님. 이 방식은 국고보조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등 중앙정부가 설계한 사업 유형의 명칭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기획·수행하는 사업이나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임. 또한 중앙정부 사업의 명칭과 유형은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한 분류체계는 장기적인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움

✲ 이러한 문헌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분류체계는 장르나 사업 명칭이 아닌 사업의 목적과 기능, 수혜 대상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음. 이는 지역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실질적 역할을 포착하고, 재단 간 비교 가능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핵심 전제로서, 이후 자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된 기능 중심 분류체계의 이론적 출발점이 되었음

2)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및 분류체계 확정

✲ 문헌 검토를 통해 도출된 방향성을 바탕으로 초안 분류체계를 작성한 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과정을 진행하였음. 자문위원회는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와 지역문화재단 실무자로 구성하였으며, 현장 경험과 학술적 관점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을 위원 구성의 원칙으로 하였음. 문화정책 연구자들은 분류체계의 개념적 엄밀성과 통계적 활용 가능성을, 재단 실무자들은 현장 적용 가능성과 사업 유형의 포괄성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

✲ 자문위원회는 총 2회에 걸쳐 운영되었음. 1차 자문회의에서는 초안 분류체계의 대분류 구조와 각 범주의 정의 및 경계 기준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루어졌음. 위원들은 예술창작활동지원과 예술인지원의 구분 기준, 문화향유와 생활문화활성화의 관계, 문화시설 운영 사업의 독립 범주 설정 여부 등 분류 경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특히 하나의 사업이 복수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의 처리 방식과, 지역 특수성이 강한 사업을 기존 분류체계 내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 1차 자문회의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대분류 체계를 수정하고 각 범주의 정의를 구체화한 후, 중분류 및 세분류 항목을 추가로 개발하였음



* 2차 자문회의에서는 수정된 분류체계 전체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실제 재단 사업 사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분류체계의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였음. 위원들은 각자가 경험한 재단 사업 사례를 분류체계에 적용해 보면서 분류 판단이 어려운 경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논의를 통해 합의하였음. 2차 자문회의를 통해 중분류 및 세분류 항목의 일부가 추가·통합·재정의되었으며, 경계 사례에 대한 처리 원칙이 구체화되었음. 이 과정에서 지역문화자산 발굴 및 관리, 후원 활성화 및 재원조성 등 기존 6대 대분류에 포함하기 어려운 사업 유형을 수용하기 위한 기타 범주의 필요성도 확인되었음

* 두 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분류체계는 6개 대분류, 복수의 중분류, 55개 이상의 세분류로 구성된 3단계 위계 구조를 갖추게 되었음. 확정된 분류체계는 단순히 이번 조사를 위한 일회성 도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역문화재단 관련 통계 생산과 정책 평가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 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3. 기능 분류의 3대 원칙

✲ 기능 중심 분류체계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 분류 판단의 기본 원칙 세 가지를 수립하였음. 이 원칙들은 단일 사업이 복수의 기능을 포함하거나 분류 기준이 모호한 경계 사례에서 판단의 준거로 활용되며, 분류체계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지침으로 기능함

원칙 1. 기능 우선 – 사업의 목적·역할 기준 분류

✲ 사업의 분류는 투입 방식이나 예술 장르가 아닌,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역할, 즉 기능을 기준으로 함. 예컨대 공연예술 분야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창작 기능으로, 시민의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향유 기능으로 분류함. 이 원칙은 동일한 장르 내에서도 사업의 정책적 성격과 수혜 대상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재단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기능 단위에서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사업명이나 예산 항목명만으로 기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목적, 지원 대상, 주요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류함. 사업명이 동일하더라도 재단에 따라 실제 수행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명보다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과 목적을 우선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함

원칙 2. 예산 비중 우선 – 복합 기능 사업의 분류 기준

✲ 하나의 사업이 복수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함. 예컨대 문화예술교육과 공연 관람이 결합된 사업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이 공연 운영 예산보다 크다면 교육 기능으로 분류함. 이는 복합 기능 사업을 단일 분류 체계 내에서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한 실용적 기준으로, 예산 배분이 사업의 실질적 중점을 반영한다는 전제에 기반함

✲ 예산 비중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의 주된 활동 내용과 참여 대상의 비중을 보조 기준으로 활용함. 단, 복합 기능 사업이라 하더라도 두 기능의 비중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업의 성격 자체가 기능 간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최종 수혜 대상과 산출물을 기준으로 판단함

원칙 3. 수혜자 중심 – 1차 수혜 대상자 관점의 기능 판별

✲ 사업의 기능은 해당 사업의 1차 수혜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별함. 예술가·예술단체가 1차 수혜 대상인 경우에는 창작 기능으로, 일반 시민이 1차 수혜 대상인 경우에는 향유 또는 교육 기능으로 분류하는 것이 그 예임. 이 원칙은 재단 사업의 정책적 지향을 수혜 대상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정된 것으로, 사업의 실질적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분류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능 우선 원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함

✲ 수혜자 중심 원칙은 특히 지원사업과 직접사업의 성격을 구분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됨. 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은 예술단체가 1차 수혜 대상이므로 창작 기능으로, 보조금 지급 없이 재단이 직접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시민이 1차 수혜 대상이므로 향유 또는 교육 기능으로 분류함. 단, 예술가 대상 교육·역량 개발 사업의 경우 예술가가 1차 수혜 대상이더라도 교육 기능으로 분류하는 등, 수혜자 기준이 다른 원칙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기능 우선 원칙을 우선 적용함



4. 표준 분류체계 – 6대 기능 대분류

1) 분류체계의 구조

* 본 연구에서 수립한 표준 분류체계는 6대 기능 대분류를 최상위 체계로 하고, 각 대분류 아래 중분류와 세분류를 두는 3단계 위계 구조로 구성됨. 대분류는 지역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능적 성격을 가장 포괄적인 수준에서 구분한 것으로, 예술창작활동지원, 문화예술교육, 예술인지원, 문화향유,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의 6개 범주로 이루어짐. 이 외에 위 6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위한 기타 범주를 별도로 두었으며, 기타 범주에는 지역문화자산 발굴 및 관리, 후원 활성화 및 재원조성 등이 포함됨. 중분류는 각 대분류 내에서 사업의 세부 기능과 수혜 대상에 따라 구분한 것이며, 세분류는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사업 유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설정하였음

2) 6대 기능 대분류의 정의 및 범위

* 예술창작활동지원 기능은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함. 중분류는 사전(준비)단계 지원, 창·제작 및 유통 지원, 창작공간 운영 지원, 예술 교류 지원, 예술인 및 작품 시상의 5개로 구성됨. 작품 창·제작 및 발표 지원, 작품 유통 및 매개활동 지원, 청년·원로·장애인 대상 특화 지원, 레지던스 운영 지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등이 세분류에 포함됨. 예술창작활동지원 사업의 1차 수혜 대상은 예술가·예술단체이며, 창작 결과물의 생산과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주된 정책 목표로 함

* 문화예술교육 기능은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포함함. 중분류는 교육, 교육 기반구축, 교육 활성화의 3개로 구성됨. 교육 중분류는 수혜 대상에 따라 세대통합형, 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성인, 고령자·시니어, 취약계층 특화, 일반시민 교육의 7개 세분류로 세분됨. 교육 기반구축에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고도화, 디지털 교육 인프라·플랫폼 구축, 교육 인력 양성·연수가 포함되며, 교육 활성화에는 교육주간·축제·박람회, 우수사례 확산·멘토링 등이 포함됨

* 예술인지원 기능은 예술인의 복지 향상과 전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포함함. 중분류는 예술인 복지지원, 예술인 건강 및 권익보호, 예술인 전문 역량강화, 예술인 창업지원의 4개로 구성됨. 복지성 현금 지원, 대출지원, 건강 및 심리지원, 법률·세무·행정 컨설팅,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창업 지원 등이 세분류에 포함됨. 예술인지원은 예술창작활동지원과 수혜 대상이 동일하게 예술인·예술단체이나, 창작 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대분류로 구분됨

* 문화향유 기능은 시민의 문화 접근과 문화 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함. 중분류는 기획행사, 축제, 생활문화활성화, 문화격차해소의 4개로 구성됨. 기획행사에는 기획공연, 기획전시, 그 밖의 행사가 포함되며, 축제는 공연예술축제, 시각예술축제, 문학예술축제, 복합예술축제, 역사문화자원연계축제, 기타 축제로 세분됨. 생활문화활성화에는 생활문화 동아리·단체 활동 지원, 생활문화 인력 양성, 생활문화 축제 및 네트워크 활성화가 포함되며, 문화격차해소에는 경제적 격차해소 지원, 접근성 격차해소 지원(아웃리치), 특성별 맞춤형 지원이 포함됨

*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 기능은 문화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 아카이빙 등 지역 문화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재단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포함함. 중분류는 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거버넌스, 아카이빙·DB구축의 3개로 구성됨. 정책 연구·조사에는 정책연구조사와 정기간행물 등 발간이 포함되며, 네트워크·거버넌스에는 정책포럼·토론·세미나 개최, 문화재단 교류, 국제교류가 포함됨. 아카이빙·DB구축에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지역문화예술 DB 구축이 포함됨

*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기능은 공연장, 전시장,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련된 사업을 포함함. 이 대분류는 중분류와 세분류 모두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단일 항목으로 구성되며, 문화 인프라의 유지와 시민의 시설 접근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함. 시설 운영을 통해 향유나 교육 기능이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도 사업의 주된 목적이 시설 운영·관리에 있다면 이 범주로 분류함

3) 분류 적용 시 판단 기준 및 경계 사례 처리 원칙

* 실제 사업 분류 과정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능에 걸치는 경계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대표적인 경계 사례와 처리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예술창작활동지원과 예술인지원의 경계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창작 결과물 생산에 있는지, 예술인의 생활 안정 및 역량 개발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창작 지원금이 결과물 발표를 전제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활동지원으로, 창작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예술인지원으로 분류함

* 축제 사업의 경우 문화향유와 예술창작활동지원 기능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음. 지역 축제가 예술단체의 공연 참여를 포함하더라도 사업의 주된 목적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에 있다면 문화향유로 분류하며, 축제 사업 중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예술창작활동지원으로 분류하였음. 대표적으로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과 같은 예술경연 목적의 축제성 사업을 들 수 있음

* 문화시설 내 교육·향유 프로그램의 경우 시설 운영 예산에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 통합되어 편성된 경우에는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로 분류하되,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향유로 분류함

5. 확정된 표준 분류체계

✲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와 경계 사례 처리 원칙의 구체화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표준 분류체계는 6개 기능 대분류, 20개 중분류, 52개 세분류로 구성된 3단계 위계 구조를 갖춤. 이 외에 6개 대분류에 포함되기 어려운 사업 유형을 수용하기 위한 기타 범주가 별도로 마련되었으며, 기타 범주는 2개 중분류, 3개 세분류로 구성됨. 확정된 분류체계의 전체 구조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4] 지역문화재단 사업 표준 기능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예술창작활동지원	사전(준비)단계 지원	사전(준비)단계 지원
	창·제작 및 유통 지원	작품 창·제작 및 발표 지원
		작품 유통 및 매개활동 지원
		청년·원로·장애인 대상 특화 지원
	창작공간 운영 지원	예술(창작) 공간 운영 지원
		레지던스 운영 지원
		임차료 지원
	예술 교류 지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국제 레지던시 참가 지원
	예술인 및 작품 시상	예술인 및 작품 시상
문화예술교육	교육	세대통합형
		유아 예술교육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청년·성인(직장인) 예술교육
		고령자·시니어 예술교육
		취약계층(장애인·이주민·교정/보호시설 등) 특화 예술교육
		일반시민 교육
	교육 기반구축	교육프로그램 개발·고도화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플랫폼/장비 구축
		교육 인력(강사자·매개자·교원) 양성·연수
	교육 활성화	교육주간·축제·박람회(캠페인 포함)
		우수사례 확산·멘토링/커뮤니티
예술인지원	예술인 복지지원	(복지성) 현금 지원
		대출지원
	예술인 건강 및 권익보호	건강 및 심리지원
		법률·세무·행정 컨설팅
	예술인 전문 역량강화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 인력 양성·교육훈련 및 컨설팅
	예술인 창업지원	창업 지원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문화향유	기획행사	기획공연
		기획전시
		그 밖의 행사
	축제	공연예술축제
		시각예술축제
		문학예술축제
		복합예술축제
		역사문화자원연계축제
		기타 축제
	생활문화활성화	생활문화 동아리/단체 활동 지원
		생활문화 인력 양성·교육훈련 및 컨설팅
		생활문화 축제 및 네트워크 활성화
	문화격차해소	경제적 격차해소 지원
		접근성 격차해소 지원(아웃리치)
		특성별 맞춤형 지원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	정책 연구/조사	정책연구조사
		정기간행물 등 발간
	네트워크/거버넌스	정책포럼·토론·세미나 개최
		문화재단 교류
		국제교류
	아카이빙/DB구축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지역문화예술 DB 구축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기타	지역문화자산 발굴 및 관리	지역 정체성 브랜딩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후원 활성화 및 재원조성	후원 활성화 및 재원조성

※ 확정된 분류체계는 사업의 목적과 기능, 수혜 대상을 기준으로 설계된 3단계 위계 구조로, 예술창작활동지원(5개 중분류, 10개 세분류), 문화예술교육(3개 중분류, 12개 세분류), 예술인지원(4개 중분류, 7개 세분류), 문화향유(4개 중분류, 15개 세분류),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3개 중분류, 7개 세분류),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1개 중분류, 1개 세분류)로 구성됨. 기타 범주는 지역문화자산 발굴 및 관리, 후원 활성화 및 재원조성의 2개 중분류 3개 세분류로 이루어짐. 세분류 항목은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사업 유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설정하였으며, 하나의 사업이 복수의 세분류에 걸치는 경우에는 3대 분류 원칙에 따라 단일 항목으로 분류하도록 하였음

제5절 조사 설계 및 수행체계

1. 조사표 설계

1) 선구축 확인 방식의 도입

* 본 조사는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응답의 정확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선구축 확인 방식을 채택하였음. 케이스탯리서치가 사전조사를 통해 각 재단의 홈페이지, 공시자료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사업 목록을 미리 구축한 후, 이를 조사표에 탑재하여 응답자가 확인·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이는 응답자가 백지 상태에서 모든 사업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 방식에 비해 응답 소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사전 탑재된 목록이 기준점 역할을 함으로써 누락 사업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사전 탑재된 사업 목록에 대해 응답자는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하도록 안내받았음. 첫째,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수행한 사업이 누락된 경우 사업을 추가함. 둘째, 사전 조사된 목록 중 본 조사의 범위에 맞지 않는 사업이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을 삭제함. 셋째, 목록에 있는 사업이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면 확인 후 다음 단계인 상세 정보 입력을 진행함

2) 3단계 응답 로직

* 조사표는 응답자가 단계적으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3단계 응답 로직으로 설계되었음. 1단계에서는 재단의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사전 탑재된 사업 목록을 검토하여 추가·삭제·확인 작업을 수행함. 2단계에서는 각 사업별로 기능 분류, 재원 유형 및 예산 규모, 사업비 수익 현황, 장르, 지원 대상 및 지원 방식 등 세부 항목을 입력함. 3단계에서는 응답자 기본 사항을 입력하고 전체 응답을 최종 제출함

[그림 1-1] 응답 로직



* 사업별 세부 항목은 분류 선택 완료 시 해당 기능 분류에 적합한 항목이 선택적으로 노출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음. 예컨대 문화예술교육으로 분류된 사업에는 총 프로그램 수, 참여 예술교육단체 수, 참여 예술교육강사 수 등의 항목이 노출되며,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로 분류된 사업에는 공간 개소 수, 연간 이용자 수, 연간 이용단체 수 등의 항목이 노출됨. 이를 통해 응답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없는 항목에 응답하는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능별로 의미 있는 항목이 빠짐없이 수집될 수 있도록 하였음

3) 주요 조사 항목

※ 조사표의 주요 항목은 크게 사업 기본정보, 재원 및 예산, 운영 방식 및 결과, 수행 인력, 후원 및 재원조성의 다섯 영역으로 구성됨

[표 1-5] 주요 조사 항목

대분류	중분류	세부 조사항목
사업 기본정보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 개요
		지원 대상
	기능 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재원 및 예산	사업비 총액	사업비 총액
	재원 유형별 금액	국비보조
		상위지자체보조
		지자체출연
		지자체수탁사업비
		기금
		민간기부금
	사업비 수익 현황	입장료·티켓 판매 수익
		후원 및 기부금
		판매 수익
운영 방식 및 결과	운영 방식	직접 주관
		일반 공모
		외부 용역
	운영 결과	신청·선정 건수
		지원금 규모
		참여 인원
		관람객 수
		프로그램 수
수행 인력	전담 인력	전담 인력 수
		전담 조직 보유 여부
후원 및 재원조성	후원 현황	후원 건수
		민간후원금 총액
	후원 금액	최소 후원금액
		최대 후원금액
		평균 후원금액



* 사업 기본정보 영역에서는 사업명, 사업 개요, 지원 대상, 기능 분류(대·중·세분류)를 수집함. 재원 및 예산 영역에서는 사업비 총액과 함께 국비보조, 상위지자체보조, 지자체출연, 지자체수탁사업비, 기금, 민간기부금 등 재원 유형별 금액을 수집하며, 입장료·티켓 판매, 후원 및 기부금, 판매 수익 등 사업비 수익 현황도 함께 파악함. 운영 방식 및 결과 영역에서는 직접 주관, 일반 공모, 외부 용역 등 추진 방식과 함께 신청·선정 건수, 지원금 규모, 참여 인원, 관람객 수, 프로그램 수 등 사업 운영 결과를 수집함. 수행 인력 영역에서는 전담 인력 수와 전담 조직 보유 여부를 파악하며, 후원 및 재원조성 영역에서는 후원 건수와 민간후원금 총액, 최소·최대·평균 후원금액을 수집함

2. 데이터 수집 및 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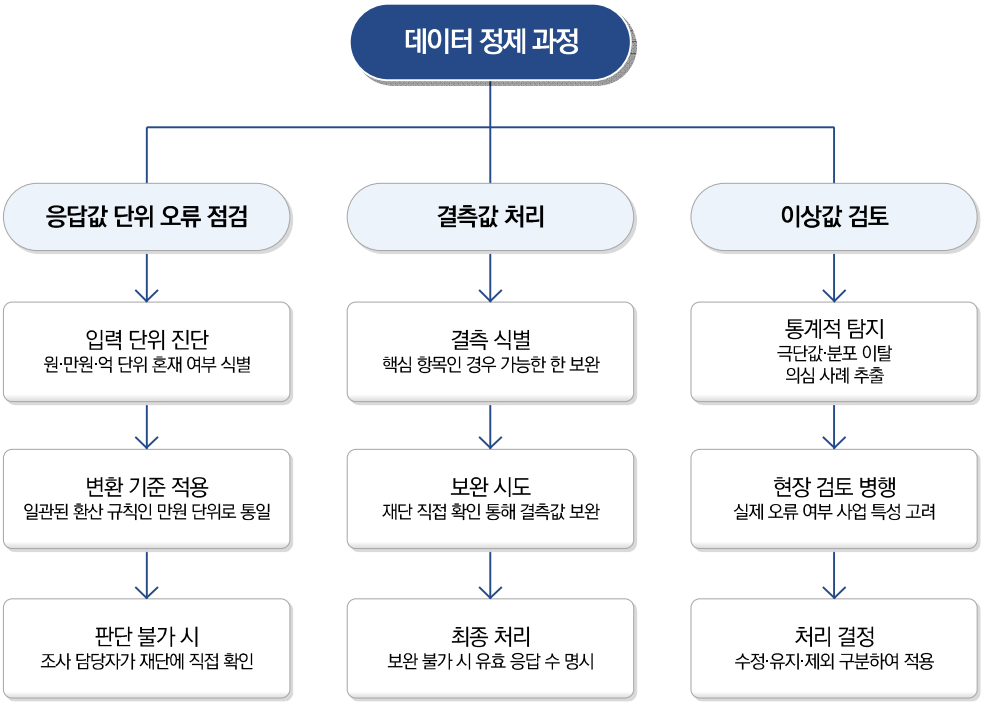
1) 조사 기간 및 방법

* 데이터 수집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148개 재단의 지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 참여를 요청하였음. 응답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재단별로 1인의 총괄 담당자 또는 부서별 복수 담당자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수 담당자가 응답한 경우 모든 참여자의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하였음. 응답률 제고를 위해 응답 사업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례비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미응답 재단에 대한 추가 독려를 통해 최종적으로 79개 재단의 응답을 확보하였음

2) 데이터 정제 과정

* 수집된 데이터는 분석에 앞서 체계적인 정제 과정을 거쳤음. 주요 정제 작업은 응답값 단위 오류 점검, 결측값 처리, 이상값 검토의 세 가지로 구성됨

[그림 1-2] 데이터 정제 과정



* 응답값 단위 오류는 사업비 항목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조사표에서 금액 단위를 만원으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 단위 또는 억 단위로 입력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일관된 변환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였음. 변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 담당자가 해당 재단에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음

* 결측값은 항목의 성격에 따라 처리 방침을 달리 적용하였음. 사업비 총액 등 핵심 항목의 결측값은 가능한 한 재단 확인을 통해 보완하였으며,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측으로 처리하고 분석 단계에서 유효 응답 수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음. 이상값은 사업비 규모, 참여 인원 등의 항목에서 주로 발견되었으며, 통계적 기준과 현장 검토를 병행하여 실제 오류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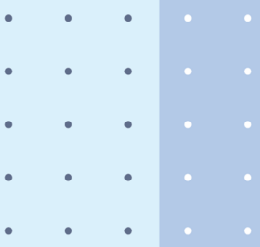
2

전체 사업의 기능별 분석

2025 지역문화재단 사업조사 연구









제1절 조사 응답 개요

1. 응답 재단 현황

* 본 조사의 대상은 전국 148개 지역문화재단으로, 광역재단 17개소와 기초재단 131개소로 구성됨. 이 중 79개 재단이 응답에 참여하였으며, 전체 응답률은 53.4%임. 재단 유형별로 보면 광역재단은 17개소 전체가 응답한 반면, 기초재단은 131개소 중 62개소가 응답하여 응답률 47.3%를 나타냄

* 권역별 기초재단 응답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권(62.5%)과 서울권(59.1%)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경상권(31.4%)과 충청권(33.3%)은 응답률이 낮음. 응답 재단의 재단당 평균 사업 수는 광역재단 29.1건, 기초재단 14.5건으로 광역재단이 기초재단의 약 2.0배 수준이며, 기초재단 내에서도 서울권(18.9건)과 경기인천권(17.9건)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라제주권(5.0건)은 낮게 나타남. 다만 전라제주권의 경우 응답 재단 수가 8개소로 적어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충청권과 경상권은 응답률이 낮아 해당 권역의 전체 기초재단 현황을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음

[표 2-1] 응답 재단 및 사업 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조사 대상	조사 완료	응답률	응답 사업 수	재단 당 평균 응답 사업 수
광역		17	17	100.0	494	29.1
기초	서울권	22	13	59.1	246	18.9
	경기인천권	27	14	51.9	250	17.9
	강원권	16	10	62.5	135	13.5
	충청권	15	5	33.3	86	17.2
	전라제주권	16	8	50.0	40	5.0
	경상권	35	11	31.4	139	12.6
	소계	131	62	47.3	897	14.5
합계		**148**	**79**	**53.4**	**1,391**	**17.6**

2. 사업 수 현황

* 조사 참여 재단이 응답한 총 유효 사업 수는 1,391건임. 기능 대분류별로 살펴보면 문화향유가 446건(32.1%)으로 가장 많고, 예술창작활동지원 365건(26.2%), 문화예술교육 271건(19.5%)이 뒤를 이어 이 세 기능이 전체 사업의 약 78%를 차지함. 반면 예술인지원 68건(4.9%)과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 75건(5.4%)은 사업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 재단별 사업 수 분포를 살펴보면, 11~20건 구간이 23개 재단(28.7%)으로 가장 많으며, 5건 이하 재단 17개(21.2%)부터 31건 이상 재단 15개(18.8%)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재단별 사업 수행 규모가 다양함

[표 2-2] 대분류 기능별 사업 수 현황

[단위 : 건, %]

기능 대분류	사업 수	비율
예술창작활동지원	365	26.2
문화예술교육	271	19.5
예술인지원	68	4.9
문화향유	446	32.1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	75	5.4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97	7.0
기타	69	5.0
전체	**1,391**	**100.0**

[표 2-3] 재단별 사업 수 구간 분포

[단위 : 건, %]

사업 수 구간	재단 수	비율
5건 이하	17	21.2
6~10건	15	18.8
11~20건	23	28.7
21~30건	10	12.5
31건 이상	15	18.8
전체	**80**	**100.0**



제2절 기능별 사업 분포 현황

1. 기능별 사업 수 분포

1) 전체 분포 개요

*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1,391건의 사업은 문화향유(32.1%), 예술창작활동지원(26.2%), 문화예술교육(19.5%) 세 기능에 집중되어 있음. 여기서는 각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는 재단의 분포와 재단별 기능 수행 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봄

* 기능별 수행 재단 수를 보면, 문화향유는 66개 재단(전체 응답 재단의 82.5%)이 수행하여 가장 보편적인 기능으로 나타남. 예술창작활동지원도 60개 재단(75.0%)이 수행하고 있어, 이 두 기능은 재단 유형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재단이 수행하는 기본 기능으로 볼 수 있음. 반면 예술인지원은 24개 재단(30.0%)에 그쳐 해당 기능이 일부 재단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예술인지원을 수행하는 24개 재단 중 광역재단이 10개로, 광역재단의 수행 비율(58.8%)이 기초재단(22.6%)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2-4] 대분류 기능별 수행 재단 수 현황

[단위 : 건, %]

기능 대분류	사업 수	비율	수행 재단 수	광역	기초
예술창작활동지원	365	26.2	60	17	43
문화예술교육	271	19.5	56	10	46
예술인지원	68	4.9	24	10	14
문화향유	446	32.1	66	10	56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	75	5.4	32	7	25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97	7.0	37	7	30
기타	69	5.0	30	8	22
전체	**1,391**	**100.0**	**79**	**17**	**62**

* 한편 재단별로 수행하는 기능 대분류의 수를 살펴보면 재단당 평균 3.9개로, 지역문화재단이 단일 기능에 집중하기보다 복수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수행 기능 수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1~2개 기능에 집중하는 재단이 18개(22.8%), 3~4개 기능을 수행하는 재단이 34개(43.0%), 5개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재단이 27개(34.2%)로 나타남. 복합 기능형 재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5개 이상 기능을 수행하는 재단도 3분의 1 이상으로 나타남

[표 2-5] 재단별 수행 기능 수 분포

[단위 : 건, %]

유형	수행 기능 수	재단 수	비율
특정 기능 집중형	1~2개	18	22.8
복합 기능형	3~4개	34	43.0
다기능 수행형	5~7개	27	34.2
전체		**79**	**100.0**

2) 기능별 특성

* 예술창작활동지원(365건)은 작품 창·제작 및 발표 지원이 194건(53.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청년·원로·장애인 대상 특화 지원 56건(15.3%), 작품 유통 및 매개활동 지원 36건(9.9%)이 뒤를 이음. 세 항목을 합친 창·제작 및 유통 지원의 비중이 78.4%에 달해 사업의 무게 중심이 작품의 제작·발표·유통 단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창작공간 운영 지원은 예술(창작) 공간 운영 지원(21건), 레지던스 운영 지원(14건), 임차료 지원(9건)으로 구성되며, 예술인의 창작 활동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사전(준비)단계 지원은 11건(3.0%)에 그쳐 작품 완성 이전 단계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약함

[표 2-6] 재단별 수행 기능 수 분포

[단위 : 건, %]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사업 수	분류 내 비율	전체 비율
예술창작 활동지원	창·제작 및 유통 지원	작품 창·제작 및 발표 지원	194	53.2	13.9
		청년·원로·장애인 대상 특화 지원	56	15.3	4.0
		작품 유통 및 매개활동 지원	36	9.9	2.6
	창작공간 운영 지원	예술(창작) 공간 운영 지원	21	5.7	1.5
		레지던스 운영 지원	14	3.8	1.0
		임차료 지원	9	2.5	0.6
	예술 교류 지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17	4.6	1.2
		국제 레지던시 참가 지원	6	1.6	0.4
	사전(준비)단계 지원	사전(준비)단계 지원	11	3.0	0.8
	예술인 및 작품 시상	예술인 및 작품 시상	1	0.3	0.1
	소계		**365**	**100.0**	**26.2**

[단위 : 건, %]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사업 수	분류 내 비율	전체 비율
문화예술 교육	교육	일반시민교육	73	26.9	5.2
		아동청소년예술교육	72	26.6	5.2
		세대통합형	24	8.9	1.7
		유아예술교육	15	5.5	1.1
		고령자·시니어 예술교육	12	4.4	0.9
		취약계층 특화 예술교육	8	3.0	0.6
		청년·성인(직장인)예술교육	5	1.8	0.4
	교육 기반구축	교육 인력 양성·연수	24	8.9	1.7
		교육프로그램 개발·고도화	23	8.5	1.7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플랫폼/장비 구축	6	2.2	0.4
		취약계층 특화 예술교육	1	0.4	0.1
	교육 활성화	교육주간·축제·박람회(캠페인 포함)	4	1.5	0.3
		우수사례 확산·멘토링/커뮤니티	4	1.5	0.3
	소계		**271**	**100.0**	**19.5**
예술인 지원	예술인 전문 역량강화	예술 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컨설팅	29	42.6	2.1
		예술인 파견지원	19	27.9	1.4
	예술인 건강 및 권익보호	법률 및 세무, 행정컨설팅	10	14.7	0.7
		건강 및 심리지원	3	4.4	0.2
	예술인 창업지원	창업 지원	5	7.4	0.4
	예술인 복지지원	(복지성) 현금 지원	1	1.5	0.1
		대출지원	1	1.5	0.1
	소계		**68**	**100.0**	**4.9**
문화향유	기획행사	기획공연	105	23.5	7.5
		그 밖의 행사	56	12.6	4.0
		기획전시	41	9.2	2.9
	축제	기타 축제	39	8.7	2.8
		복합예술축제	28	6.3	2.0
		공연예술축제	19	4.3	1.4
		역사문화자원연계축제	12	2.7	0.9
		시각예술축제	4	0.9	0.3
		문학예술축제	4	0.9	0.3
	생활문화활성화	생활문화 동아리·단체 활동 지원	56	12.6	4.0
		생활문화 축제 및 네트워크 활성화	26	5.8	1.9
		생활문화 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컨설팅	17	3.8	1.2
	문화격차해소	접근성 격차해소 지원(아웃리치)	23	5.2	1.7
		경제적 격차해소 지원	8	1.8	0.6
		특성별 맞춤형 지원	8	1.8	0.6
	소계		**446**	**100.0**	**32.1**

[단위 : 건, %]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사업 수	분류 내 비율	전체 비율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	네트워크·거버넌스	정책포럼·토론·세미나 개최	35	46.7	2.5
		문화재단 교류	7	9.3	0.5
		국제교류	1	1.3	0.1
	정책 연구·조사	정책연구조사	15	20.0	1.1
		정기간행물 등 발간	6	8.0	0.4
	아카이빙·DB구축	지역문화예술 DB	7	9.3	0.5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4	5.3	0.3
	소계		**75**	**100.0**	**5.4**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97	100.0	7.0
	소계		**97**	**100.0**	**7.0**
기타	지역문화자산 발굴 및 관리	지역 정체성 브랜딩	44	63.8	3.2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16	23.2	1.2
	후원 활성화 및 재원조성	후원 활성화 및 재원조성	9	13.0	0.6
	소계		**69**	**100.0**	**5.0**
전체			**1,391**	**-**	**100.0**

* 문화예술교육(271건)은 교육 중분류 내에서 일반시민교육 73건(26.9%)과 아동청소년예술교육 72건(26.6%)이 양대 축을 형성하며, 세대통합형 24건(8.9%), 유아예술교육 15건(5.5%), 고령자·시니어 예술교육 12건(4.4%)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폭넓은 대상을 포괄하고 있음. 교육 기반구축은 교육 인력 양성·연수 24건(8.9%)과 교육프로그램 개발·고도화 23건(8.5%)이 균형 있게 분포하여, 단순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않고 교육 인프라와 인력 양성 등 기반 조성 사업이 병행되고 있음을 나타냄

* 예술인지원(68건)은 예술 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컨설팅이 29건(42.6%)으로 가장 많고, 예술인 파견지원 19건(27.9%)이 뒤를 이어 역량 강화 중심의 구조가 뚜렷함. 예술인 건강 및 권익보호 영역에서는 법률 및 세무, 행정컨설팅이 10건(14.7%)으로 실질적인 권익 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반면 (복지성) 현금 지원(1건)과 대출 지원(1건) 등 직접적 복지 지원은 2건(2.9%)에 그쳐, 현재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인지원 사업이 복지보다는 역량 강화와 권익 보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냄

* 문화향유(446건)는 기획공연이 105건(23.5%)으로 가장 많으며, 그 밖의 행사 56건(12.6%), 생활문화 동아리·단체 활동 지원 56건(12.6%), 기획전시 41건(9.2%)이 뒤를 이음. 축제 영역에서는 기타 축제 39건(8.7%), 복합예술축제 28건(6.3%), 공연예술축제 19건(4.3%) 순으로 다양한 유형이 분포함. 생활문화 활성화는 동아리·단체 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축제·네트워크 활성화, 인력 양성이 고르게 편성되어 있으며, 문화격차해소는 접근성 격차해소 지원(아웃리치) 23건(5.2%)이 주를 이루어 소외 지역·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75건)은 정책포럼·토론·세미나 개최가 35건(46.7%)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며, 정책연구조사 15건(20.0%), 지역문화예술 DB 구축 7건(9.3%), 문화재단 교류 7건(9.3%) 순으로 나타남. 정책포럼·세미나 개최 중심의 구조는 재단 간 교류와 협력 활동이 이 기능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기간행물 등 발간(6건)을 포함한 정책 연구·조사 활동이 네트워크 기능과 병행되고 있음

*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97건)는 세분류 구분 없이 단일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연장·전시장·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 전반이 이에 해당함

* 기타(69건)는 지역 정체성 브랜딩이 44건(63.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16건(23.2%), 후원 활성화 및 재원조성 9건(13.0%) 순으로 나타남.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브랜드화하는 사업이 기타 범주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2. 기능별 사업비 규모

1) 사업비 총액 분포

* 유효 응답 1,365건의 사업비 총합은 4,678.6억 원임. 기능 대분류별로 살펴보면 문화향유가 2,411.5억 원(51.5%)으로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예술창작활동지원 902.2억 원(19.3%),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533.0억 원(11.4%), 문화예술교육 525.7억 원(11.2%)이 뒤를 이음. 사업 수 기준에서 문화향유(32.1%)와 예술창작활동지원(26.2%)의 비중 차이가 일정 수준이었던 것과 달리, 사업비 기준에서는 문화향유(51.5%)가 예술창작활동지원(19.3%)의 약 2.7배에 달하여 두 기능 간 사업비 배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반면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은 62.5억 원(1.3%)으로 사업 수 비중(5.4%)에 비해 사업비 비중이 낮아, 이 기능의 사업이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냄

* 전체 사업의 사업비 규모 분포를 살펴보면, 1억 원 미만 사업이 795건(58.2%)으로 과반을 차지하며, 1억~5억 원 구간이 413건(30.3%)으로 뒤를 이음.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77건(5.6%)으로 전체의 5% 수준이나, 이들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0%에 달함. 이는 소규모 사업이 건수 기준으로는 다수를 차지하나, 사업비 총액은 일부 대규모 사업에 집중되는 구조임을 시사함

[표 2-7] 대분류 기능별 사업비 총액 현황

[단위 : 억원, 건, %]

기능 대분류	사업비 합계	비율	사업 수
예술창작활동지원	902.2	19.3	357
문화예술교육	525.7	11.2	268
예술인지원	89.7	1.9	67
문화향유	2,411.5	51.5	443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	62.5	1.3	71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533.0	11.4	87
기타	153.9	3.3	68
전체	**4,678.6**	**100.0**	**1,365**

[표 2-8] 사업비 규모 구간별 분포

[단위 : 건, %]

사업비 규모	사업 수	비율
1억 원 미만	795	58.2
1억~5억 원	413	30.3
5억~10억 원	80	5.9
10억~50억 원	68	5.0
50억~100억 원	2	0.1
100억 원 이상	7	0.5
합계	**1,365**	**100.0**

2) 사업당 평균 사업비 및 규모 분포 특성

* 전체 유효 응답 사업의 사업당 평균 사업비는 약 3억 4,275만 원이나, 중앙값은 6,950만 원으로 평균의 약 20% 수준에 그침. 평균이 중앙값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일부 대규모 사업이 평균을 끌어올리는 구조임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이 6,950만 원 이하의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냄

* 기능별 평균 사업비를 살펴보면,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가 사업당 평균 약 6억 1,259만 원으로 가장 높고, 문화향유가 약 5억 4,435만 원으로 뒤를 이음. 예술창작활동지원(약 2억 4,992만 원)과 문화예술교육(약 1억 9,617만 원)은 전체 평균을 하회하며, 예술인지원은 약 1억 3,396만 원으로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 다음으로 낮음

[표 2-9] 대분류 기능별 사업당 사업비 및 규모 분포 특성

[단위 : 만원, 배, %]

기능 대분류	사업당 평균	중앙값	배율	상위 10% 집중도(%)
예술창작활동지원	24,992	9,600	2.6	56.1
문화예술교육	19,617	5,000	3.9	62.2
예술인지원	13,396	6,950	1.9	43.5
문화향유	54,435	5,587	9.7	82.1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	8,805	2,100	4.2	60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61,259	13,145	4.7	71.3
기타	22,638	13,895	1.6	42.3
전체	**34,275**	**6,950**	**4.9**	-

* 중분류별 사업비 구간 분포를 살펴보면 동일한 대분류 내에서도 중분류 간 사업 규모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 예술창작활동지원 내에서는 창·제작 및 유통 지원의 1억~5억 원 구간 비중이 37.8%로 타 중분류 대비 높아 중규모 지원사업 중심의 구조가 나타나며, 10억 원 이상 사업도 13건(4.6%)이 포함되어 있음. 반면 예술 교류 지원은 1억 원 미만 사업이 73.9%로 소규모에 집중되어 있고, 사전(준비)단계 지원은 1억~5억 원이 54.5%로 상대적으로 중규모 비중이 높아 대조를 이룸

* 문화예술교육은 중분류 간 규모 편차가 두드러짐. 교육은 1억 원 미만이 64.1%로 소규모 중심이나, 교육 기반구축은 10억 원 이상 사업이 5건(9.3%)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보다 인프라 구축 사업의 대규모 비중이 높음. 교육 활성화는 1억 원 미만(75.0%)과 10억 원 이상(25.0%)으로 양극화된 분포를 보임

[표 2-1] 중분류 기능별 사업비 규모 구간 분포

[단위 : 건, %]

기능 대분류	기능 중분류	1억 원 미만	1억~5억 원	5억~10억 원	10억 원 이상	합계
예술창작활동지원	창·제작 및 유통 지원	140 / (49.5)	107 / (37.8)	23 / (8.1)	13 / (4.6)	283
	창작공간 운영 지원	23 / (53.5)	19 / (44.2)	1 / (2.3)	0 / (0.0)	43
	예술 교류 지원	17 / (73.9)	6 / (26.1)	0 / (0.0)	0 / (0.0)	23
	사전(준비)단계 지원	4 / (36.4)	6 / (54.5)	1 / (9.1)	0 / (0.0)	11
	예술인 및 작품 시상	1 / (100.0)	0 / (0.0)	0 / (0.0)	0 / (0.0)	1
문화예술교육	교육	132 / (64.1)	61 / (29.6)	6 / (2.9)	7 / (3.4)	206
	교육 기반구축	25 / (46.3)	21 / (38.9)	3 / (5.6)	5 / (9.3)	54
	교육 활성화	6 / (75.0)	0 / (0.0)	0 / (0.0)	2 / (25.0)	8
예술인지원	예술인 전문 역량강화	33 / (68.8)	14 / (29.2)	1 / (2.1)	0 / (0.0)	48
	예술인 건강 및 권익보호	4 / (33.3)	8 / (66.7)	0 / (0.0)	0 / (0.0)	12
	예술인 창업지원	1 / (20.0)	3 / (60.0)	1 / (20.0)	0 / (0.0)	5
	예술인 복지지원	1 / (50.0)	0 / (0.0)	1 / (50.0)	0 / (0.0)	2
문화향유	기획행사	144 / (72.4)	35 / (17.6)	9 / (4.5)	11 / (5.5)	199
	축제	45 / (42.5)	28 / (26.4)	19 / (17.9)	14 / (13.2)	106
	생활문화활성화	76 / (76.8)	19 / (19.2)	3 / (3.0)	1 / (1.0)	99
	문화격차해소	20 / (51.3)	8 / (20.5)	1 / (2.6)	10 / (25.6)	39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	네트워크·거버넌스	31 / (77.5)	8 / (20.0)	1 / (2.5)	0 / (0.0)	40
	정책 연구·조사	15 / (71.4)	3 / (14.3)	3 / (14.3)	0 / (0.0)	21
	아카이빙·DB구축	9 / (90.0)	1 / (10.0)	0 / (0.0)	0 / (0.0)	10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37 / (42.5)	35 / (40.2)	5 / (5.7)	10 / (11.5)	87
기타	지역문화자산 발굴 및 관리	27 / (45.8)	27 / (45.8)	2 / (3.4)	3 / (5.1)	59
	후원 활성화 및 재원조성	4 / (44.4)	4 / (44.4)	0 / (0.0)	1 / (11.1)	9
전체		**795 / (58.2)**	**413 / (30.3)**	**80 / (5.9)**	**77 / (5.6)**	**1,365**



✲ 예술인지원은 중분류별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됨. 예술인 전문 역량강화는 1억 원 미만이 68.8%로 소규모 중심이며, 예술인 건강 및 권익보호는 1억~5억 원이 66.7%로 상담·컨설팅 등 중규모 서비스 사업의 성격을 반영함

✲ 문화향유 내에서는 중분류 간 규모 차이가 가장 두드러짐. 생활문화활성화(1억 원 미만 76.8%)와 기획행사(72.4%)가 소규모 중심인 반면, 축제는 10억 원 이상 비중이 13.2%(14건)로 전체 중분류 중 가장 높아 대규모 사업이 집중되어 있음. 문화격차해소는 1억 원 미만(51.3%)이 과반을 차지하면서도 10억 원 이상 사업이 10건(25.6%)에 달해 소규모 아웃리치 사업과 대형 지원 사업이 혼재하는 이분화된 구조가 나타남

✲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에서는 아카이빙·DB구축의 1억 원 미만 비중이 90.0%로 전체 중분류 가운데 가장 높아 소규모 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네트워크·거버넌스(77.5%)와 정책 연구·조사(71.4%)도 소규모 중심임.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는 1억~5억 원(40.2%)과 10억 원 이상(11.5%)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타 대분류와 구별되는 대형 사업 포함 구조를 보임

제3절 기능별 사업 추진 방식

1. 기능별 추진방식 분포

1) 전체 추진방식 현황

* 추진방식은 복수응답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1,391건 중 직접주관이 861건(61.9%)으로 가장 많고, 일반공모 567건(40.8%), 외부용역 206건(14.8%), 기타 76건(5.5%) 순으로 나타남. 직접주관과 일반공모의 비율을 합산하면 100%를 초과하는데, 이는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추진방식이 적용된 경우가 있기 때문임. 직접주관만 선택한 사업은 571건(41.0%), 일반공모만 선택한 사업은 436건(31.3%)이며, 직접주관과 공모를 동시에 선택한 사업은 123건(8.8%)으로 나타남

2) 기능별 추진방식 특성

* 기능별로 추진방식의 구성이 뚜렷하게 다름. 예술창작활동지원은 일반공모가 84.4%로 압도적으로 높아,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이 기능의 표준적인 운영 방식임을 나타냄. 반면 직접주관은 23.6%에 그쳐, 재단이 자체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사업보다 외부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방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표 2-10] 대분류 기능별 추진방식 현황

[복수응답, 단위 : 건, %]

기능 대분류	직접주관	일반공모	외부용역	기타	사업 수
예술창작활동지원	86 / (23.6)	308 / (84.4)	4 / (1.1)	8 / (2.2)	365
문화예술교육	181 / (66.8)	110 / (40.6)	38 / (14.0)	14 / (5.2)	271
예술인지원	42 / (61.8)	21 / (30.9)	21 / (30.9)	8 / (11.8)	68
문화향유	367 / (82.3)	86 / (19.3)	90 / (20.2)	29 / (6.5)	446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	56 / (74.7)	6 / (8.0)	29 / (38.7)	4 / (5.3)	75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90 / (92.8)	7 / (7.2)	9 / (9.3)	6 / (6.2)	97
기타	39 / (56.5)	29 / (42.0)	15 / (21.7)	7 / (10.1)	69
전체	**861 / (61.9)**	**567 / (40.8)**	**206 / (14.8)**	**76 / (5.5)**	**1,391**

1) 추진방식은 복수응답으로 세부 비율의 합계가 100%를 초과함



*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는 직접주관이 92.8%로 가장 높고 일반공모는 7.2%에 불과함. 시설의 운영·관리라는 기능 특성상 외부 공모보다는 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해됨.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도 직접주관 74.7%로 높으나, 외부용역 비율이 38.7%로 타 기능 대비 높게 나타나 연구·조사 등의 업무에서 외부 전문기관 활용이 많음을 나타냄

* 문화예술교육은 직접주관(66.8%)과 일반공모(40.6%)가 비교적 균형 있게 나타남.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외부 교육단체에 공모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혼재하는 구조임. 예술인지원은 직접주관(61.8%)이 높은 편이나, 외부용역(30.9%)과 기타(11.8%) 비율도 타 기능 대비 높아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냄

2. 직접사업 및 지원사업 구성

1)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의 구분

* 본 조사에서 직접사업은 재단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한 금전 지원이 없는 사업을 의미함.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금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모형 직접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대상을 선정하되 금전 지원 없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함

* 전체 1,391건 중 직접사업이 824건(59.2%)으로 과반을 차지하며, 지원사업 444건(31.9%), 공모형 직접사업 123건(8.8%) 순으로 나타남.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운영에서 직접사업이 지원사업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원사업도 전체의 3분의 1 가까이를 점하여 두 유형이 함께 지역문화재단 사업 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2) 기능별 직접·지원사업 비중

* 기능별로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기능마다 구성이 뚜렷하게 다름. 예술창작활동지원은 지원사업이 293건(80.3%)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여, 공모를 통해 예술가·예술단체에 금전을 지원하는 방식이 이 기능의 핵심 운영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음. 직접사업은 57건(15.6%)에 그쳐, 재단이 직접 창작 활동을 기획·운영하는 사업은 소수임

* 문화향유는 직접사업이 360건(80.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원사업은 37건(8.3%)에 불과함. 기획공연·축제·생활문화 프로그램 등 재단이 직접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는 기능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와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은 직접사업 비중이 각각 92.8%, 92.0%에 달하며 지원사업은 전무하여, 사업의 성격상 직접 운영 방식만이 적용되는 기능임을 나타냄

* 문화예술교육은 직접사업(59.4%)과 지원사업(28.4%)이 혼재하는 구조로,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병존하고 있음. 예술인지원은 직접사업(69.1%)이 높으나 이는 복지·상담·컨설팅 등 비금전적 서비스 제공 사업이 포함된 데 기인하며, 지원사업은 20.6%로 나타남

[표 2-11] 대분류 기능별 직접·지원사업 구성

[단위 : 건, %]

기능 대분류	직접사업	지원사업	공모형 직접사업	합계
예술창작활동지원	57 / (15.6)	293 / (80.3)	15 / (4.1)	365
문화예술교육	161 / (59.4)	77 / (28.4)	33 / (12.2)	271
예술인지원	47 / (69.1)	14 / (20.6)	7 / (10.3)	68
문화향유	360 / (80.7)	37 / (8.3)	49 / (11.0)	446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	69 / (92.0)	0 / (0.0)	6 / (8.0)	75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90 / (92.8)	0 / (0.0)	7 / (7.2)	97
기타	40 / (58.0)	23 / (33.3)	6 / (8.7)	69
전체	**824 / (59.2)**	**444 / (31.9)**	**123 / (8.8)**	**1,391**

제4절 기능별 재원 구성 현황

1. 재원 유형별 분포

1) 전체 재원 구성 현황

* 재원 유형은 복수응답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1,391건 중 재원 응답이 있는 사업은 1,183건임. 일부 결측치가 존재하여 이하 재원 분석은 유효 응답 1,183건을 기준으로 서술하며, 해석 시 유의가 필요함

* 재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출연이 775건(65.5%)으로 가장 높아, 지역문화재단 사업의 재원이 지자체 출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지자체출연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예산으로, 재단이 자체적인 판단과 기획 역량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자율성이 높은 재원임. 전체 사업의 3분의 2 가까이가 이 재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운영이 상당 부분 재단 자체의 기획 역량에 기반하고 있음을 나타냄

* 지자체수탁은 238건(20.1%)으로 두 번째를 차지함. 지자체수탁은 지자체로부터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위탁 기관에 의해 설정된다는 점에서 출연금 사업과 성격이 다름. 수탁사업은 재단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자체 정책을 실행하는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사업 기획의 자율성은 출연금 기반 사업에 비해 제한적임

* 상위지자체보조 210건(17.8%)과 국비보조 151건(12.8%)은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보조금으로, 보조금 교부 목적과 조건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사업임. 이들 재원을 수반하는 사업은 중앙 또는 광역 단위의 정책 방향과 연계되는 만큼, 재단의 독자적 기획보다는 상위기관의 정책 실행 기능이 강하게 나타남. 기타(민간기부금 등)는 75건(6.3%)으로 비중이 낮아, 민간 후원을 통한 재원 다양화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임을 나타냄

[표 2-12] 재원 유형별 사업 수 현황

[복수 응답, 단위 : 건, %]

재원 유형	사업 수	비율
지자체출연	775	65.5
지자체수탁	238	20.1
상위지자체보조	210	17.8
국비보조	151	12.8
기타(민간기부금 등)	75	6.3
전체 (중복 제거)	**1,183**	**100.0**

※ 재원 조합 패턴을 살펴보면,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선택한 사업이 623건(52.7%)으로 과반을 차지함. 이는 재단이 지자체로부터 출연받은 예산으로 독자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사업이 전체의 절반 이상임을 의미하며, 이들 사업이 재단의 자율적 운영 역량을 가장 잘 반영하는 영역임. 수탁만을 재원으로 선택한 사업은 193건(16.3%)으로, 지자체 또는 상위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전체의 약 6분의 1을 차지함. 출연과 수탁을 동시에 선택한 사업은 14건(1.2%)에 그쳐, 하나의 사업에 두 재원이 혼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국비보조를 포함하는 사업은 151건(12.8%)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은 전체의 8분의 1 수준에 해당함

2) 재원 유형별 특성

※ 각 재원 유형은 단순히 자금의 출처를 구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단이 해당 사업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기획·운영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함. 이러한 관점에서 재원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13] 전체 재원 유형별 분포

재원 유형	재원 성격	사업 기획 자율성	주요 적용 사업 유형
지자체출연	포괄적 운영 예산	높음	재단 자체 기획 사업
지자체수탁	위탁 집행 예산	낮음	지자체 정책 실행 사업
국비보조	중앙정부 보조금	중간	중앙 연계 지원사업
상위지자체보조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중간	광역 연계 지원사업
기타 (민간기부금 등)	민간 후원·기부	높음	후원 연계 사업

※ 지자체출연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예산으로, 특정 사업 목적에 구속되지 않고 재단이 자율적으로 기획·배분할 수 있는 재원임. 재단의 고유한 정체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이 가장 높은 재원 유형에 해당함. 다만 출연금 규모는 지자체의 예산 편성 방침과 재정 여건에 따라 결정되므로, 재단의 사업 규모와 방향이 지자체의 정책 의지에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도 함

※ 지자체수탁은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특정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목적·내용·예산이 위탁 기관에 의해 사전에 설정됨. 재단은 전문성과 현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나, 사업의 기획과 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위탁 기관의 지침을 따라야 함. 수탁사업 비중이 높은 재단일수록 지자체 정책의 실행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며, 재단의 독자적 기획 역량이 발휘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임

※ 국비보조와 상위지자체보조는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보조금 교부 조건과 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이 이루어짐. 이들 재원은 국가 또는 광역 단위의 문화정책 방향을 지역 현장에서 실행하는 통로로 기능하며, 문화예술교육·예술인지원 등 중앙 정책과 연계된 사업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 보조금 사업은 정산 및 성과 보고 의무가 수반되어 행정 부담이 크다는 특성도 있으며,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재원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재단 입장에서의 과제로 지적됨

※ 기타 재원에 해당하는 민간기부금 등은 75건(6.3%)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이는 지역문화재단의 재원 구조가 공공 재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민간 영역과의 협력을 통한 재원 다양화가 아직 제한적인 단계임을 나타냄. 민간 후원 및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은 재단의 자립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사업 재원으로서의 비중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2. 기능별 재원 구성 비교

1) 기능별 주요 재원 유형

* 기능별 재원 구성을 살펴보면, 분석 대상 기능 전반에서 지자체출연이 주요 재원으로 나타나나 그 비중과 보조 재원의 구성은 기능마다 차이를 보임. 전반적으로 출연금 의존도가 높은 기능과 수탁·국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능 간의 분화가 확인됨

* 지자체출연 비중이 가장 높은 기능은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78.7%)으로, 재단이 자율적으로 기획하는 연구·교류 사업이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냄. 문화향유(70.9%)도 출연금 비중이 높아, 기획공연·축제 등 재단 직접 운영 사업이 출연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14] 대분류 기능별 재원 구성

[복수 응답, 단위 : 건, %]

기능 대분류	국비보조	상위지자체보조	지자체출연	지자체수탁	기타
문화예술교육	46 / (17.0)	65 / (24.0)	145 / (53.5)	58 / (21.4)	6 / (2.2)
예술인지원	13 / (19.7)	8 / (12.1)	27 / (40.9)	26 / (39.4)	2 / (3.0)
문화향유	56 / (12.6)	85 / (19.1)	316 / (70.9)	70 / (15.7)	40 / (9.0)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	11 / (14.7)	15 / (20.0)	59 / (78.7)	9 / (12.0)	5 / (6.7)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7 / (7.2)	7 / (7.2)	62 / (63.9)	35 / (36.1)	4 / (4.1)
기타	5 / (7.2)	5 / (7.2)	30 / (43.5)	25 / (36.2)	16 / (23.2)
전체	**151 / (12.8)**	**210 / (17.8)**	**775 / (65.5)**	**238 / (20.1)**	**75 / (6.3)**

1) 예술창작활동지원은 해당 기능 사업의 재원 응답이 광역재단을 중심으로 대부분 결측되어 분석에서 제외함. 전체 행의 수치는 예술창작활동지원을 포함한 유효 응답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됨

* 반면 예술인지원은 지자체출연(40.9%)과 지자체수탁(39.4%)이 거의 대등한 비중을 보여, 재단 자체 기획 사업과 위탁 수행 사업이 균형 있게 혼재하는 구조임.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도 출연(63.9%)과 수탁(36.1%)이 함께 나타나, 시설 운영 사업이 재단 자체 운영과 위탁 운영의 두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나타냄. 기타 기능 역시 출연(43.5%)과 수탁(36.2%)이 비슷한 비중을 보임

* 문화예술교육은 출연(53.5%)이 주를 이루나 상위지자체보조(24.0%)와 수탁(21.4%)의 비중이 타 기능 대비 높게 나타남. 이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중앙 기관과 연계한 교육 지원사업이 재원 구조에 반영된 결과로, 문화예술교육 기능이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다층적 재원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냄. 국비보조 비중도 17.0%로 타 기능 대비 높은 편으로,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긴밀한 기능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예술인지원은 국비보조 비중이 19.7%로 분석 대상 기능 중 가장 높음. 이는 예술인 복지 및 지원과 관련한 중앙정부 사업이 일부 포함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예술인 지원 영역에서 중앙-지역 간 연계 구조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함

2) 기능별 재원 구성의 차이

* 앞서 살펴본 기능별 주요 재원 유형을 바탕으로, 재원 구성의 차이가 갖는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봄. 재원 구성의 차이는 단순히 자금의 출처 차이를 넘어, 각 기능에서 재단이 수행하는 역할의 성격과 사업 운영의 자율성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음

* 지자체출연 비중이 높은 기능(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 문화향유)은 재단이 자체 기획 역량을 발휘하여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영역에 해당함. 이들 기능에서 재단은 단순한 정책 집행 기관이 아니라 지역 문화생태계를 기획하고 조성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문화향유의 경우 출연금 비중(70.9%)이 높으면서도 사업 수와 사업비 규모 모두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재단의 자율적 기획 역량이 가장 활발하게 발휘되는 기능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수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능(예술인지원,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기타)은 지자체 또는 상위기관의 정책 방향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예술인지원의 경우 수탁 비중(39.4%)이 출연(40.9%)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예술인 복지·지원 영역에서 지자체 위탁사업의 비중이 높음을 나타냄.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는 수탁 비중이 36.1%로, 공연장·전시장 등 공공 문화시설의 위탁 운영이 이 기능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을 반영함. 위탁 운영 시설의 경우 시설 운영 방침과 프로그램 방향이 시설 소유 주체인 지자체의 의향에 영향을 받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이 기능에서 재단의 자율적 운영 여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 국비 및 상위지자체보조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교육은 중앙·광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지역 재단 사업이 재원을 통해 연결되는 구조를 보여줌. 이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적 관여가 다른 기능에 비해 활발함을 시사하며, 재단이 중앙 정책의 지역 실행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자체 기획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적 구조가 이 기능에서 특히 두드러짐

* 기타 기능에서 민간기부금 등 기타 재원이 23.2%로 다른 기능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점도 주목할 만함. 기타 기능에는 지역문화자산 발굴 및 관리, 후원 활성화 및 재원조성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사업의 특성상 민간 후원과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냄. 그러나 전체 사업 기준으로 민간기부금 비중이 6.3%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지역문화재단의 민간 재원 활용은 일부 특정 기능에 국한된 수준으로 전반적인 재원 다양화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상의 기능별 재원 구성 분석을 종합하면, 지역문화재단의 재원 구조는 지자체출연 중심의 자율적 운영 영역과 수탁·보조금 중심의 정책 연동 영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어떤 기능에서 어떤 재원 유형이 주를 이루는지는 해당 기능에서 재단이 수행하는 역할의 성격을 반영하는 동시에, 향후 재단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설계에서 기능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제5절 기능별 사업 규모 및 지원 구조

1. 지원사업 신청·선정 현황

1) 신청 및 선정 건수

* 일반공모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전체 1,391건 중 568건(40.8%)이며, 이 중 신청 건수 유효 응답이 있는 사업은 384건임. 세분류별 유효 응답은 예술창작활동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예술인지원은 유효 응답이 극히 적고,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과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는 응답이 전무함. 이하 분석은 유효 응답이 충분한 예술창작활동지원·문화향유·기타를 중심으로 서술하며, 유효 응답이 부족한 기능은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 유효 응답 기준 전체 신청 건수 합계는 37,825건, 선정 건수 합계는 10,765건으로 전체 선정률은 28.5%임. 예술창작활동지원의 신청 건수는 34,047건으로 전체 공모사업 신청의 90.1%를 차지하며, 선정 건수 9,359건에 선정률 27.5%를 나타냄. 세분류별로 살펴보면, 작품 창·제작 및 발표 지원이 신청 22,562건·선정 6,237건(27.7%)으로 예술창작활동지원 전체 신청의 66.3%를 차지함. 청년·원로·장애인 대상 특화 지원은 신청 4,608건·선정 1,268건(27.5%), 사전(준비)단계 지원은 신청 3,175건·선정 634건(20.0%)으로 뒤를 이음. 예술(창작) 공간 운영 지원(신청 1,101건·선정 363건)과 임차료 지원(신청 503건·선정 280건) 등 창작공간 운영 지원 세분류도 상당한 신청 수요가 확인됨

* 문화향유는 유효 응답 47건 기준으로 신청 2,150건, 선정 1,144건, 선정률 53.2%로 나타남. 세분류 중 생활문화 동아리·단체 활동 지원이 신청 1,204건·선정 611건(50.7%)으로 문화향유 신청의 56.0%를 차지하며, 접근성 격차해소 지원(아웃리치)(신청 332건·선정 203건), 생활문화 축제 및 네트워크 활성화(신청 257건·선정 145건), 특성별 맞춤형 지원(신청 200건·선정 103건) 순으로 나타남. 기타 기능은 신청 1,527건, 선정 228건, 선정률 14.9%이며, 세분류 중 지역 정체성 브랜딩이 신청 1,366건·선정 174건(12.7%)으로 기타 전체 신청의 89.5%를 차지하여 기타 기능의 신청·선정 현황을 주도하고 있음

[표 2-15] 공모사업 신청·선정 현황

[단위 : 건, %]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예술창작 활동지원	창·제작 및 유통 지원	작품 창·제작 및 발표 지원	56	165	22,562	6,237	27.7
		청년·원로·장애인 대상 특화 지원	28	52	4,608	1,268	27.5
		작품 유통 및 매개활동 지원	21	26	1,468	404	27.5
	창작공간 운영 지원	예술(창작) 공간 운영 지원	17	17	1,101	363	33.0
		레지던스 운영 지원	12	8	210	31	14.8
		임차료 지원	8	8	503	280	55.7
	예술 교류 지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15	15	392	131	33.4
		국제 레지던시 참가 지원	4	6	28	11	39.3
	사전(준비)단계 지원	사전(준비)단계 지원	9	11	3,175	634	20.0
	예술인 및 작품 시상	예술인 및 작품 시상	1	0	-	-	-
	소계		**60**	**308**	**34,047**	**9,359**	**27.5**

[단위 : 건, %]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문화예술 교육	교육	일반시민교육	38	16	-	-	-
		아동청소년예술교육	35	18	-	-	-
		세대통합형	19	12	-	-	-
		유아예술교육	11	13	-	-	-
		고령자·시니어 예술교육	12	5	-	-	-
		취약계층 특화 예술교육	7	4	-	-	-
		청년·성인(직장인)예술교육	3	1	-	-	-
	교육 기반구축	교육 인력 양성·연수	18	16	-	-	-
		교육프로그램 개발·고도화	12	20	-	-	-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플랫폼/장비 구축	4	2	-	-	-
		취약계층 특화 예술교육	1	1	-	-	-
	교육 활성화	교육주간·축제·박람회(캠페인 포함)	4	1	-	-	-
		우수사례 확산·멘토링/커뮤니티	4	1	-	-	-
	소계		**56**	**110**	**29**	**10**	**34.5**
예술인 지원	예술인 전문 역량강화	예술 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컨설팅	15	7	-	-	-
		예술인 파견지원	14	11	72	24	33.3
	예술인 건강 및 권익보호	법률 및 세무, 행정컨설팅	5	0	-	-	-
		건강 및 심리지원	2	0	-	-	-
	예술인 창업지원	창업 지원	4	2	-	-	-
	예술인 복지지원	(복지성) 현금 지원	1	1	-	-	-
		대출지원	1	0	-	-	-
	소계		**24**	**21**	**72**	**24**	**33.3**
문화향유	기획행사	기획공연	41	18	50	26	52.0
		그 밖의 행사	24	3	6	3	50.0
		기획전시	21	4	-	-	-
	축제	기타 축제	21	6	-	-	-
		복합예술축제	23	5	-	-	-
		공연예술축제	16	2	-	-	-
		역사문화자원연계축제	9	2	11	9	81.8
		시각예술축제	4	1	-	-	-
		문학예술축제	3	0	-	-	-
	생활문화활성화	생활문화 동아리·단체 활동 지원	31	24	1,204	611	50.7
		생활문화 축제 및 네트워크 활성화	13	7	257	145	56.4
		생활문화 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컨설팅	12	3	90	44	48.9
	문화격차해소	접근성 격차해소 지원(아웃리치)	18	8	332	203	61.1
		경제적 격차해소 지원	6	0	-	-	-
		특성별 맞춤형 지원	5	3	200	103	51.5
	소계		**66**	**86**	**2,150**	**1,144**	**53.2**



[단위 : 건, %]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	네트워크·거버넌스	정책포럼·토론·세미나 개최	23	3	-	-	-
		문화재단 교류	6	1	-	-	-
		국제교류	1	0	-	-	-
	정책 연구·조사	정책연구조사	11	2	-	-	-
		정기간행물 등 발간	4	0	-	-	-
	아카이빙·DB구축	지역문화예술 DB	7	0	-	-	-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4	0	-	-	-
	소계		**32**	**6**	**-**	**-**	**-**
문화시설 운영 관리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37	7	-	-	-
	소계		**37**	**7**	**-**	**-**	**-**
기타	지역문화자산 발굴 및 관리	지역 정체성 브랜딩	24	21	1,366	174	12.7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4	3	114	20	17.5
	후원 활성화 및 재원조성	후원 활성화 및 재원조성	8	5	47	34	72.3
	소계		**30**	**29**	**1,527**	**228**	**14.9**
전체			**79**	**568**	**37,825**	**10,765**	**28.5**

1) 공모 사업 수는 추진방식으로 일반공모를 선택한 사업 수이며, 신청·선정 건수는 해당 항목에 응답한 사업만을 기준으로 산출함
2) 공모 사업 수 0은 전체 사업 중 일반공모 방식 사업이 없는 세분류임
3) ' - '는 해당 세분류 내 신청·선정 건수 유효 응답이 없어 산출 불가한 항목임
4)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는 전 세분류에 걸쳐 유효 응답이 없어 소계 산출 불가

2) 기능별 선정률 비교

* 선정률은 공모사업의 경쟁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낮을수록 지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함. 유효 응답이 충분한 세분류를 중심으로 선정률의 특성을 살펴봄

* 예술창작활동지원은 전체 선정률 27.5%이나 세분류 간 편차가 뚜렷함. 레지던스 운영 지원(14.8%)과 사전(준비)단계 지원(20.0%)의 선정률이 특히 낮아, 창작 공간 확보 및 창작 준비 단계에 대한 지원 수요가 공급 규모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나타냄. 작품 창·제작 및 발표 지원(27.7%), 청년·원로·장애인 대상 특화 지원(27.5%), 작품 유통 및 매개활동 지원(27.5%)은 전체 평균에 근접한 선정률로 안정적인 경쟁 구조를 보임. 반면 임차료 지원(55.7%)과 국제 레지던시 참가 지원(39.3%), 예술(창작) 공간 운영 지원(33.0%)은 상대적으로 높은 선정률을 나타냄

* 문화향유의 선정률은 53.2%로 예술창작활동지원(27.5%)에 비해 높으며, 세분류 전반에 걸쳐 50% 내외의 수준이 유지됨. 역사문화자원연계축제는 신청 11건 중 9건이 선정되어 선정률 81.8%를 나타내나, 응답 사업 수가 2건에 불과해 통계적 대표성은 제한적임. 접근성 격차해소 지원(아웃리치)(61.1%)과 생활문화 축제 및 네트워크 활성화(56.4%)는 참여 독려 또는 지역 밀착형 사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비교적 높은 선정률을 보임. 생활문화 동아리·단체 활동 지원(50.7%)은 가장 많은 신청 건수(1,204건)를 기록하면서도 참여 지원 사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과반의 선정률을 유지하고 있음

* 기타 기능은 선정률 14.9%로 전체 기능 중 가장 낮으나, 이는 지역 정체성 브랜딩 세분류의 대규모 신청(1,366건, 선정률 12.7%)이 기타 전체 선정률을 견인한 결과임.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17.5%)도 유사한 수준이며, 후원 활성화 및 재원조성(72.3%)은 신청 건수(47건)가 적으나 높은 선정률을 나타내 기타 기능 내 세분류 간 선정률 편차가 크게 나타남

2. 지원금 규모 및 구조

1) 기능별 지원금 총액

* 금전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의 지원금 총액은 1,731.2억 원이며, 예술창작활동지원(830.6억, 48.0%)과 문화향유(718.1억, 41.5%)가 전체의 89.5%를 차지함. 두 기능의 지원금 집중은 세분류 수준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남

* 예술창작활동지원에서는 작품 창·제작 및 발표 지원이 651.2억(37.6%)으로 전체 지원금의 최대 단일 항목을 형성하며, 청년·원로·장애인 대상 특화 지원 73.4억(4.2%), 예술(창작) 공간 운영 지원 31.2억(1.8%), 작품 유통 및 매개활동 지원 27.1억(1.6%), 사전(준비)단계 지원 18.0억(1.0%) 순으로 나타남. 예술창작활동지원 내 전 세분류에 걸쳐 사업비 대비 지원금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임차료 지원(97.2%), 청년·원로·장애인 대상 특화 지원(94.8%), 작품 창·제작 및 발표 지원(94.7%), 예술(창작) 공간 운영 지원(92.4%) 등 대부분 세분류에서 사업비의 90% 이상이 직접 지원금으로 전달되고 있음. 이는 창작 지원 기능이 사업비를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매개 구조임을 세분류 단위에서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임

* 문화향유에서는 경제적 격차해소 지원이 625.5억(36.1%)으로 단일 세분류 기준 전체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함. 이는 통합문화이용권 등 대규모 복지 연계 사업이 이 세분류에 집중 분류된 결과로, 문화향유 전체 지원금(718.1억)의 87.1%를 차지함. 반면 기획공연(1.1억, 사업비 대비 0.6%), 기타 축제(9.5억, 5.4%), 생활문화 축제 및 네트워크 활성화(3.2억, 5.6%) 등 직접 운영 중심의 세분류는 지원금 비중이 극히 낮아, 문화향유 기능 내 세분류 간 지원 구조가 이분화되어 있음을 보여줌. 생활문화 동아리·단체 활동 지원(38.4억, 79.7%)과 특성별 맞춤형 지원(10.0억, 77.1%)은 참여 단체·개인에 대한 지원금 비중이 높은 구조임

[표 2-16] 기능별 지원금 총액

[단위 : 억원, %]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지원금 합계	비율	총 사업비 대비 지원금 총액 비중
예술창작 활동지원	창·제작 및 유통 지원	작품 창·제작 및 발표 지원	651.2	37.6	94.7
		청년·원로·장애인 대상 특화 지원	73.4	4.2	94.8
		작품 유통 및 매개활동 지원	27.1	1.6	63.4
	창작공간 운영 지원	예술(창작) 공간 운영 지원	31.2	1.8	92.4
		레지던스 운영 지원	9.3	0.5	60.7
		임차료 지원	6.2	0.4	97.2
	예술 교류 지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13.4	0.8	86.0
		국제 레지던시 참가 지원	0.8	0.0	71.1
	사전(준비)단계 지원	사전(준비)단계 지원	18	1.0	80.9
	예술인 및 작품 사상	예술인 및 작품 사상	0.2	0.0	40.0
	소계		**830.6**	**48.0**	**92.1**

[단위 : 억원, %]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지원금 합계	비율	총 사업비 대비 지원금 총액 비중
문화예술 교육	교육	일반시민교육	28.3	1.6	17.8
		아동청소년예술교육	19.4	1.1	19.3
		세대통합형	11.1	0.6	33.9
		유아예술교육	7.7	0.4	35.6
		고령자·시니어 예술교육	6	0.3	42.2
		취약계층 특화 예술교육	2	0.1	24.4
		청년·성인(직장인)예술교육	1.2	0.1	26.9
	교육 기반구축	교육 인력 양성·연수	24.3	1.4	77.8
		교육프로그램 개발·고도화	20	1.2	25.7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플랫폼/장비 구축	1	0.1	47.6
		취약계층 특화 예술교육	1.2	0.1	2.8
	교육 활성화	교육주간·축제·박람회(캠페인 포함)	0.3	0.0	1.8
		우수사례 확산·멘토링/커뮤니티	0.1	0.0	0.7
	소계		**122.7**	**7.1**	**23.3**
예술인 지원	예술인 전문 역량강화	예술 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컨설팅	0.9	0.1	4.9
		예술인 파견지원	7.8	0.5	25.7
	예술인 건강 및 권익보호	법률 및 세무, 행정컨설팅	0.8	0.0	6.8
		건강 및 심리지원	0	-	-
	예술인 창업지원	창업 지원	3.7	0.2	21.5
	예술인 복지지원	(복지성) 현금 지원	6	0.3	63.8
		대출지원	0	-	-
	소계		**19.2**	**1.1**	**21.4**
문화향유	기획행사	기획공연	1.1	0.1	0.6
		그 밖의 행사	0.1	0.0	0.1
		기획전시	0	-	-
	축제	기타 축제	9.5	0.5	5.4
		복합예술축제	0	-	-
		공연예술축제	0	-	-
		역사문화자원연계축제	0.1	0.0	0.1
		시각예술축제	0	-	-
		문학예술축제	0	-	-
	생활문화활성화	생활문화 동아리·단체 활동 지원	38.4	2.2	79.7
		생활문화 축제 및 네트워크 활성화	3.2	0.2	5.6
		생활문화 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컨설팅	1	0.1	15.9
	문화격차해소	접근성 격차해소 지원(아웃리치)	625.5	36.1	46.7
		경제적 격차해소 지원	29.2	1.7	36.2
		특성별 맞춤형 지원	10	0.6	77.1



[단위 : 억원, %]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지원금 합계	비율	총 사업비 대비 지원금 총액 비중
	소계		718.1	41.5	29.8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	네트워크·거버넌스	정책포럼·토론·세미나 개최	0	-	-
		문화재단 교류	1.5	0.1	13.3
		국제교류	0	-	-
	정책 연구·조사	정책연구조사	0	-	-
		정기간행물 등 발간	0	-	-
	아카이빙·DB구축	지역문화예술 DB	0	-	-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0	-	-
	소계		1.5	0.1	2.4
문화시설 운영 관리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0	-	-
	소계		0	-	-
기타	지역문화자산 발굴 및 관리	지역 정체성 브랜딩	18.8	1.1	20.0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1.7	0.1	5.8
	후원 활성화 및 재원조성	후원 활성화 및 재원조성	18.6	1.1	61.5
	소계		39.1	2.3	25.4
전체			1,731.20	100.0	-

* 문화예술교육에서는 일반시민교육(28.3억)과 아동청소년예술교육(19.4억)이 지원금 규모 면에서 교육 세분류를 주도하나, 사업비 대비 비중은 각 17.8%, 19.3%로 낮아 강사비·운영비 등 직접 운영 비용이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임. 교육 기반구축 내 교육 인력(강사자·매개자·교원) 양성·연수는 24.3억(77.8%)으로 교육 기반구축 세분류 중 지원금 규모와 비중 모두 가장 높아, 인력 양성 사업이 사업비를 개인·기관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냄. 반면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플랫폼/장비 구축(2.8%)과 교육주간·축제·박람회(1.8%), 우수사례 확산·멘토링/커뮤니티(0.7%)는 지원금 비중이 극히 낮아 시설·장비 구축 및 행사 운영 중심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

* 예술인지원에서는 (복지성)현금 지원이 사업비 대비 63.8%로 예술인지원 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예술인 파견지원(25.7%)과 창업 지원(21.5%)이 뒤를 이음. 예술 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컨설팅(4.9%)과 법률 및 세무, 행정컨설팅(6.8%)은 지원금 비중이 낮아 서비스 제공·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세분류임을 확인할 수 있음.

2) 지원금 정액·비정액 구성

✲ 정액형은 선정된 모든 수혜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비정액형은 사업 내용·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임. 정액·비정액 구성은 예술창작활동지원 기능에 해당되는 분석으로, 이하 서술은 해당 항목에 유효 응답이 있는 125건을 기준으로 살펴봄

[표 2-17] 예술창작활동지원 지원금 정액·비정액 구성

[단위 : 건, %]

지원 방식	사업 수	비율
정액형	49	39.2
비정액형	70	56.0
무응답	6	4.8
전체	**125**	**100.0**

1) 정액·비정액 구성은 예술창작활동지원 기능에 해당되는 분석으로, 타 기능은 분석 제외. 유효 응답 수가 전체 예술창작활동지원 사업 수 대비 낮아 해석에 유의 필요

✲ 예술창작활동지원의 정액·비정액 구성을 살펴보면, 비정액형이 70건(56.0%)으로 정액형 49건(39.2%)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비정액형이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술 지원 공모에서 사업 내용과 규모, 수혜 대상의 특성에 따라 지원금 심사를 통해 차등 결정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의미함. 비정액형 방식은 지원 대상의 사업 성격과 규모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원금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 지원 신청 단계에서 사업 기획의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음

✲ 정액형은 49건(39.2%)으로, 비정액형과의 비중 차이가 크지 않아 두 방식이 비교적 균형 있게 활용되고 있음을 나타냄. 정액형은 생애최초 지원·청년예술인 지원·창작준비금 지원 등 지원 금액이 사전에 공고되는 사업에서 주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신청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고 지원 결과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음. 다만 해당 항목의 유효 응답이 전체 예술창작활동지원 사업의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이 수치가 예술창작활동지원 전반의 정액·비정액 구성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제6절 소결

✲ 본 장에서는 응답 재단 79개소가 수행한 1,391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기능 대분류별 사업 분포, 추진방식, 재원 구성, 지원 구조를 살펴보았음. 주요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기능의 편중과 보편적 사업 모델의 형성

✲ 응답 재단 79개소가 수행한 1,391건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문화향유(32.1%), 예술창작활동지원(26.2%), 문화예술교육(19.5%) 등 세 기능에 전체 사업의 약 78%가 집중되어 있음. 특히 문화향유와 예술창작은 각각 82.5%, 75.0%의 재단이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지역문화재단의 기능 중에서도 예술지원 영역에 있어 지역문화재단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보편적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반면 예술인지원(4.9%)이나 정책연구(5.4%)의 낮은 비중은 개별 재단의 특수성이나 지역적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특화 기능'의 성격이 강함을 시사함

예산 투입의 비대칭성과 사업 규모의 양극화

✲ 사업의 양적 분포와 예산 규모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임. 문화향유 기능은 사업 수 비중(32.1%)보다 훨씬 높은 예산 비중(51.5%)을 차지하며 재단 재정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특히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약 6억 1,259만 원)와 문화향유(약 5억 4,435만 원)의 높은 평균 사업비는 정책연구(약 8,805만 원)와 약 7배의 격차를 보임. 주목할 점은 문화향유 분야의 평균값과 중앙값 배율이 9.7배에 달한다는 것으로, 소수의 대규모 사업이 전체 평균을 견인하는 집중 현상이 뚜렷함을 나타냄. 중분류 단위에서 살펴보면 이 현상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축제 중분류는 10억 원 이상 사업 비중이 13.2%로 타 중분류 대비 현저히 높은 반면, 같은 문화향유 내 생활문화활성화(1억 원 미만 76.8%)와 기획행사(72.4%)는 소규모 사업이 압도적으로 많아 기능 내에서도 사업 규모의 이중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기능별 목적에 따른 추진 체계의 이원화

✲ 사업의 기능이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예술창작활동지원은 일반공모 비중이 84.4%에 달해 간접 지원 중심의 구조를 띠는 반면, 문화향유(82.3%)와 시설 관리(92.8%)는 재단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직접 주관 방식이 압도적임. 이러한 이분화된 구조는 재단이 예술 생태계에는 공정한 배분자의 역할을, 시민 대상 서비스에는 전문적인 실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기능의 성격이 운영 체계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남

출연금 중심의 재원 구조와 정책적 자율성

✲ 전체 사업의 65.5%가 지자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재단 사업의 핵심 재원이 출연금임을 확인할 수 있음.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78.7%)과 문화향유(70.9%)는 출연금 의존도가 높아 재단의 자율적 기획 여지가 큰 편이나, 예술인지원은 출연(40.9%)과 수탁(39.4%)이 대등한 비중을 보임. 이러한 재원 구성의 차이는 각 기능에서

재단의 능동적 기획 역할과 상급 기관의 정책을 대행하는 매개적 역할 간의 비중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됨

창작 지원의 치열한 경쟁과 직접 투자 체계

✲ 예술 창작 생태계에 대한 투자는 매우 직접적이고 경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전체 지원금 1,731.2억 원 중 창작 지원(48.0%)과 문화향유(41.5%)가 약 90%를 차지하며, 특히 창작 지원 사업은 예산의 92.1%가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직접 지원 구조를 갖춤. 세분류 단위에서 살펴보면 이 같은 직접 투자의 성격은 더욱 명확히 드러나, 임차료 지원(97.2%)·청년·원로·장애인 대상 특화 지원(94.8%)·작품 창·제작 및 발표 지원(94.7%) 등 예술창작활동지원의 주요 세분류에서 사업비의 90% 이상이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27.5%라는 낮은 공모 선정률은 현장의 높은 지원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을 드러내며, 세분류 기준으로는 사전(준비)단계 지원(20.0%)과 레지던스 운영 지원(14.8%)의 선정률이 특히 낮아 창작 준비 및 공간 확보 단계의 지원 수요가 가장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음. 한편 문화향유 지원금(718.1억 원) 중 87.1%는 경제적 격차해소 세분류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통합문화이용권 등 대규모 복지 연계 사업이 해당 세분류에 분류된 결과로, 문화향유 기능의 지원금 구조가 실질적으로는 문화 접근성 지원 사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비정액형 지원(56.0%)이 정액형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하는 전략적 배분 방식이 일반적임을 시사함

✲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구조는 기능에 따라 규모, 추진 방식, 재원이 유기적으로 분화되어 고유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음. 다만, 본 분석은 전체 재단을 통합한 수치이므로 광역 및 기초 재단 간의 차이나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제3장에서는 재단 유형별·권역별 사업 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보다 세분화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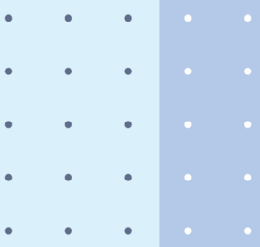
3

광역·기초 간 사업 구조 비교

2025 지역문화재단 사업조사 연구







제1절 광역 재단 사업 지원 현황

1. 예술창작활동지원

1) 창·제작 및 유통 지원

(1) 작품 창·제작 및 발표 지원

* 작품 창·제작 및 발표 지원은 광주문화재단을 제외한 16개 광역재단이 운영하며, 전체 신청 19,606건에 선정 5,255건으로 선정률 26.8%를 나타냄. 광역재단 예술창작 공모 중 신청 규모와 지원금 총액(573.4억 원) 모두 가장 큰 세분류로, 광역재단의 창작 지원 기능을 사실상 대표하는 사업군임

[표 3-1] 작품 창·제작 및 발표 지원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00**	**19,606**	**5,255**	**26.8**	**100**	**20,000**	**1,091.2**	**573.4**
서울문화재단	4	4,896	542	11.1	600	12,300	2,549.3	138.17
부산문화재단	5	1,368	622	45.5	382	9,000	1,091.0	67.86
대구문화예술진흥원	20	460	164	35.7	200	9,400	1,454.3	23.85
인천문화재단	5	845	269	31.8	100	10,000	1,303.3	35.06
광주문화재단	5	684	153	22.4	400	5,500	1,015.7	15.54
대전문화재단	7	541	264	48.8	200	20,000	971.2	25.64
울산문화관광재단	3	529	140	26.5	500	8,000	1,124.3	15.74
세종시문화관광재단	3	262	94	35.9	110	11,000	967.0	9.09
경기문화재단	10	2,696	192	7.1	500	11,500	1,664.1	31.95
강원문화재단	5	934	421	45.1	400	11,000	940.4	39.59
충북문화재단	4	646	298	46.1	300	8,000	817.4	24.36
충남문화관광재단	5	503	254	50.5	250	8,000	640.2	16.26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6	921	330	35.8	300	8,000	814.5	26.88
전라남도문화재단	5	1,271	380	29.9	300	8,000	636.6	24.19
경북문화재단	5	693	181	26.1	150	8,000	1,183.4	21.42
경남문화예술진흥원	5	1,690	671	39.7	150	12,600	485.8	32.6
제주문화예술재단	3	667	280	42.0	400	9,000	900.4	25.21

* 신청 집중도에서는 서울문화재단(4,896건, 25.0%)과 경기문화재단(2,696건, 13.8%)이 두드러지며, 이 두 재단의 선정률은 각각 11.1%, 7.1%로 전국 최저 수준임. 수도권 광역재단에 지원 수요가 극도로 집중되어 있어, 경쟁 강도가 타 재단과 본질적으로 다른 구조임. 반면 충남문화관광재단(50.5%), 대전문화재단(48.8%), 충북문화재단(46.1%), 강원문화재단(45.1%)은 선정률 40%를 상회하여 지방 광역재단의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 강도를 반영함

* 건당 평균 지원금에서도 재단 간 편차가 뚜렷함. 서울문화재단(2,549.3만원)은 전체 평균(1,092.0만원)의 2.3배로 소수 선정에 고액을 집중 투자하는 구조인 반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485.8만원)은 가장 낮은 건당 단가로 보다 많은 예술인·단체에게 지원 기회를 배분하고 있음. 총 지원금 기준으로는 서울문화재단(138.17억원)이 전체의 24.1%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음

(2) 청년·원로·장애인 대상 특화 지원

* 청년·원로·장애인 대상 특화 지원은 경북문화재단·광주문화재단을 제외한 15개 광역재단이 운영하며, 전체 신청 4,480건에 선정 1,212건, 선정률 27.1%로 작품 창·제작 및 발표 지원과 유사한 경쟁 구도를 보임. 총 지원금은 69.98억 원이며, 건당 평균 지원금(577.4만원)은 창·제작 지원의 절반 수준으로, 소액 분산 지원 방식이 일반적임

* 서울문화재단(1,080건)과 경기문화재단(1,164건)의 신청 집중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선정률은 각각 12.5%, 25.0%에 그침. 특기할 점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경우 최소·최대 지원금이 400만원으로 동일하여 정액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는 반면, 대전문화재단은 200만원~4,000만원의 폭넓은 지원 구간을 두어 지원 대상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건당 지원금에서는 강원문화재단(1,293.8만원)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집중 투자형 구조를 보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신청 22건에 선정 18건(81.8%)으로 높은 선정률을 나타내나, 이는 소규모 특화 사업의 특성상 사전 설계된 수요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결과로, 대규모 공모 재단과의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표 3-2] 광역재단별 청년·원로·장애인 대상 특화 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42**	**4,480**	**1,212**	**27.1**	**107**	**5,300**	**577**	**69.98**
서울문화재단	3	1,080	135	12.5	500	1,000	684	9.24
부산문화재단	3	187	33	17.6	400	5,300	712	2.35
대구문화예술진흥원	5	119	29	24.4	500	2,000	872	2.53
인천문화재단	3	335	114	34.0	416	1,900	683	7.78
광주문화재단	2	213	68	31.9	400	500	424	2.88
대전문화재단	3	452	204	45.1	200	4,000	393	8.01
울산문화관광재단	2	94	30	31.9	400	1,000	567	1.70
세종시문화관광재단	1	35	14	40.0	350	1,100	521	0.73
경기문화재단	5	1,164	291	25.0	300	2,800	530	15.42
강원문화재단	4	148	66	44.6	400	2,000	1,294	8.54
충북문화재단	1	63	10	15.9	350	600	500	0.50
충남문화관광재단	1	103	62	60.2	107	800	376	2.33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1	136	49	36.0	400	400	400	1.96
전라남도문화재단	2	151	39	25.8	300	1,000	472	1.84
경북문화재단	-	-	-	-	-	-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	22	18	81.8	300	350	344	0.62
제주문화예술재단	5	178	50	28.1	400	2,000	712	3.56

(3) 작품 유통 및 매개활동 지원

※ 작품 유통 및 매개활동 지원은 17개 광역재단 중10개 재단만이 운영하는 선택적 세분류임. 전체 신청 1,072건에 선정 257건으로 선정률은 24.0%이며, 총 지원금 24.69억 원 중 경남문화예술진흥원(10.03억 원)이 전체의 40.6%를 차지하여 압도적 비중을 보임

※ 서울문화재단은 신청 284건에 선정 25건으로 선정률 8.8%에 그쳐 전국 최저이나, 건당 지원금(988.0만원)은 전체 평균(960.7만원)에 근접함.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건당 2,046.9만원, 경북문화재단은 1,909.1만원으로 유통 매개 활동에 비교적 높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공연 투어, 순회 전시 등 물류 비용이 수반되는 유통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됨

[표 3-3] 광역재단별 작품 유통 및 매개활동 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8**	**1,072**	**257**	**24.0**	**100**	**15,600**	**960.7**	**24.69**
서울문화재단	2	284	25	8.8	803	1,000	988.0	2.47
부산문화재단	3	31	16	51.6	382	2,748	1,118.8	1.79
대구문화예술진흥원	2	88	26	29.5	500	500	500.0	1.30
인천문화재단	-	-	-	-	-	-	-	-
광주문화재단	-	-	-	-	-	-	-	-
대전문화재단	1	15	9	60.0	300	800	444.4	0.40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1	30	19	63.3	440	470	452.6	0.86
경기문화재단	1	342	55	16.1	100	100	100.0	0.55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3	105	40	38.1	700	10,000	1,097.5	4.39
전라남도문화재단	-	-	-	-	-	-	-	-
경북문화재단	1	33	11	33.3	1,500	3,500	1,909.1	2.10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	127	49	38.6	500	15,600	2,046.9	10.03
제주문화예술재단	2	17	7	41.2	800	2,000	1,142.9	0.80

※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최소·최대 지원금이 모두 500만원으로 정액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지원 방식의 표준화를 추구하는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700만원~1억 원의 넓은 구간을 두어 사업 성격과 규모에 따른 탄력적 배분을 시도하고 있음. 운영 재단이 10개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 세분류는 광역재단 내에서도 특화된 운영 역량이 요구되는 영역임

2) 창작공간 운영 지원

(1) 예술(창작) 공간 운영 지원

* 예술(창작) 공간 운영 지원은 7개 광역재단만이 운영하는 세분류로, 전체 신청 689건에 선정 157건, 선정률 22.8%임. 총 지원금은 20.04억 원이며, 서울문화재단이 신청 533건(77.4%)과 선정 109건을 기록하여 이 세분류의 신청·선정 모두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함

* 서울문화재단은 건당 609.9만원으로 운영 재단 중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다수의 소규모 창작 공간에 저단가·고빈도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임.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4,250만원), 강원문화재단(3,955.6만원), 전라남도문화재단(3,800만원)은 건당 지원금이 3,000만원 이상으로, 선정 건수는 적으나 공간 운영에 실질적인 재원을 집중 제공하는 고단가 방식임

[표 3-4] 광역재단별 예술(창작) 공간 운영 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9**	**689**	**157**	**22.8**	**120**	**5,500**	**1,276**	**20.04**
서울문화재단	1	533	109	20.5	120	1,000	610	6.65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인천문화재단	1	40	14	35.0	444	2,500	1,700	2.38
광주문화재단	1	14	5	35.7	2,500	4,500	3,300	1.65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	-	-	-	-	-	-	-
강원문화재단	1	15	9	60.0	3,100	5,000	3,956	3.56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1	7	4	57.1	3,000	5,500	4,250	1.70
전라남도문화재단	1	29	5	17.2	3,000	5,000	3,800	1.90
경북문화재단	-	-	-	-	-	-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제주문화예술재단	3	51	11	21.6	1,000	3,000	2,000	2.20

※ 선정률은 강원문화재단(60.0%),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57.1%)이 높은 반면, 서울문화재단(20.5%)과 전라남도문화재단(17.2%)은 낮아 공간 지원의 수요 집중 여부가 지역에 따라 상이함을 나타냄. 서울의 경우 예술 창작 공간 수요가 광역적으로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이 낮은 선정률로 이어지고 있음

(2) 레지던스 운영 지원

※ 레지던스 운영 지원은 부산, 충남, 경북, 경남 4개 광역재단만이 운영하는 세분류로, 전체 신청 40건에 선정 19건, 선정률 47.5%임. 유효 응답 재단이 4개에 불과하여 데이터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나, 창작 레지던스 지원이 전국적으로 소수 재단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줌

※ 건당 평균 지원금(4,078.9만원)은 창작공간 운영 지원(1,263.5만원)보다 3배 이상 높아 레지던스 지원의 단가 특성을 반영함.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건당 6,333.3만원으로 가장 높은 단가를 적용하며, 최소 6,000만원·최대 6,500만원의 고액 지원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표 3-5] 광역재단별 레지던스 운영 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4**	**40**	**19**	**47.5**	**2,000**	**6,500**	**4,079**	**7.75**
서울문화재단	-	-	-	-	-	-	-	-
부산문화재단	1	17	6	35.3	2,000	3,000	2,500	1.50
대구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인천문화재단	-	-	-	-	-	-	-	-
광주문화재단	-	-	-	-	-	-	-	-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	-	-	-	-	-	-	-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1	3	3	100	2,000	4,500	3,500	1.05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	-	-	-	-	-	-	-
경북문화재단	1	9	4	44.4	3,500	3,500	3,500	1.40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	11	6	54.5	6,000	6,500	6,333	3.80
제주문화예술재단	-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신청 3건에 선정 3건으로 선정률100%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원 규모를 미리 조율된 신청 수요에 맞춰 설계한 결과로 해석됨. 전체적으로 레지던스 지원은 운영 재단 수와 사업 규모 모두 제한적이어서, 향후 광역재단 차원의 레지던스 지원 확대 필요성을 시사함

(3) 임차료 지원

※ 임차료 지원은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5개 광역재단이 운영하며, 전체 신청 391건에 선정 222건으로 선정률 56.8%를 기록함. 세 가지 창작공간 지원 세분류 중 선정률이 가장 높고 건당 지원금(178.3만원)이 가장 낮아, 예술인의 공간 확보를 위한 소액·고빈도 지원 성격이 뚜렷함

[표 3-6] 광역재단별 임차료 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6**	**391**	**222**	**56.8**	**29**	**480**	**178.4**	**3.96**
서울문화재단	-	-	-	-	-	-	-	-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인천문화재단	1	89	64	71.9	81.8	480	245.3	1.57
광주문화재단	-	-	-	-	-	-	-	-
대전문화재단	1	84	41	48.8	29	300	87.8	0.36
울산문화관광재단	1	61	55	90.2	35	300	120	0.66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1	123	40	32.5	145	400	262.5	1.05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2	34	22	64.7	44	200	140.9	0.31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	-	-	-	-	-	-	-
경북문화재단	-	-	-	-	-	-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제주문화예술재단	-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은 신청 61건 중 55건이 선정되어 선정률 90.2%에 달하며, 건당 지원금 120.1만원의 낮은 단가로 예술인의 임차료 부담을 폭넓게 경감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인천문화재단(선정률71.9%)도 유사한 구조이며, 반면 경기문화재단은 선정률 32.5%로 상대적으로 경쟁이 높게 나타남

* 지원 금액 범위는 재단마다 차이가 있어 대전문화재단은 최소 29만원의 소액 지원부터, 인천문화재단은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임차료 지원의 설계 방식이 재단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전체 지원금 규모(3.96억 원)는 타 창작공간 지원 세분류에 비해 작으나, 선정 건수(222건) 기준으로는 레지던스(19건)·창작공간 운영(161건)을 크게 상회하는 생활밀착형 지원 세분류임



3) 예술 교류 지원

(1)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은 9개 광역재단이 운영하며, 전체 신청 344건에 선정 102건, 선정률 29.7%임. 총 지원금은 11.18억 원으로, 창·제작 및 유통 지원 세분류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예술인의 국내외 네트워크 확장을 직접 지원하는 성격을 지님

* 건당 지원금에서 부산문화재단(2,857.1만원)이 가장 높아 교류사업에 비교적 큰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소 2,400만원·최대 3,000만원의 고액 구간을 유지하고 있음. 반면 경기문화재단은 최소·최대 모두 250만원으로 정액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단가 설계 방식이 재단 간에 뚜렷이 다름

[표 3-7] 광역재단별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2**	**344**	**102**	**29.70**	**200**	**3,000**	**1,096**	**11.18**
서울문화재단	-	-	-	-	-	-	-	-
부산문화재단	1	20	7	35.00	2,400	3,000	2,857	2
대구문화예술진흥원	1	22	13	59.10	200	1,000	569	0.74
인천문화재단	-	-	-	-	-	-	-	-
광주문화재단	1	30	5	16.70	1,800	2,200	2,000	1
대전문화재단	1	22	6	27.30	850	1,050	950	0.57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1	112	20	17.90	250	250	250	0.5
강원문화재단	1	35	14	40.00	500	2,500	1,621	2.27
충북문화재단	2	24	9	37.50	250	800	611	0.55
충남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1	31	10	32.30	600	1,100	900	0.9
전라남도문화재단	-	-	-	-	-	-	-	-
경북문화재단	-	-	-	-	-	-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	20	6	30.00	530	2,000	1,517	0.91
제주문화예술재단	2	28	12	42.90	1,000	2,000	1,450	1.74

* 선정률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59.1%), 강원문화재단(40.0%), 제주문화예술재단(42.9%) 등이 높은 편이며, 경기문화재단(17.9%)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32.3%)은 상대적으로 낮음. 강원문화재단은 건당 1,621.4만원으로 선정률(40.0%)과 지원 단가 모두 균형 잡힌 구조를 보여 교류 지원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나타냄

(2) 국제 레지던시 참가 지원

✲ 국제 레지던시 참가 지원은 부산, 대구, 강원 3개 광역재단만이 운영하는 소규모 세분류로, 전체 신청 25건에 선정 8건, 선정률 32.0%임. 유효 응답 재단이 3개에 그쳐 수치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하나, 국제 레지던시 파견 지원이 일부 광역재단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광역재단 간 국제 교류 지원의 불균형을 드러냄

✲ 건당 평균 지원금(846.2만원)은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1,096.1만원)보다 낮으나, 참가비·항공비 등의 비용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지원 범위는 제한적임. 부산문화재단이 신청 15건, 선정 5건으로 3개 재단 중 가장 큰 규모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당 8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음

[표 3-8] 광역재단별 국제 레지던시 참가 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5**	**25**	**8**	**32.00**	**300**	**1,620**	**850**	**0.68**
서울문화재단	-	-	-	-	-	-	-	-
부산문화재단	3	15	5	33.30	543	1,319	800	0.4
대구문화예술진흥원	1	5	1	20.00	800	800	800	0.08
인천문화재단	-	-	-	-	-	-	-	-
광주문화재단	-	-	-	-	-	-	-	-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	-	-	-	-	-	-	-
강원문화재단	1	5	2	40.00	300	1,620	950	0.19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	-	-	-	-	-	-	-
경북문화재단	-	-	-	-	-	-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제주문화예술재단	-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신청 5건 중 1건만 선정(20.0%)되어 제한적인 지원 규모를 나타냄. 전반적으로 국제 레지던시 참가 지원은 운영 재단 수와 지원 규모 모두 미약한 수준으로, 향후 국제 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영역으로 볼 수 있음



4) 사전(준비)단계 지원

* 사전(준비)단계 지원은 8개 광역재단이 운영하며, 전체 신청 3,137건에 선정 622건으로 선정률 19.8%를 기록함. 예술창작활동지원 내 세분류 중 선정률이 가장 낮아 창작 준비 단계에 대한 지원 수요가 공급을 가장 크게 상회하는 영역임. 총 지원금(17.45억 원)은 건당 평균 280.5만원의 소액 지원 방식으로 운영됨

* 서울문화재단이 신청 1,348건(전체의 43.0%)으로 가장 많으며 선정률은 15.2%로 낮음. 경기문화재단은 신청 996건에 선정 45건으로 선정률이 4.5%에 불과해 이 세분류에서 전국 최저 선정률을 기록하며 극도로 집중된 경쟁을 보임. 반면 부산문화재단(58.8%), 대구문화예술진흥원(66.7%), 충남문화관광재단(57.1%)은 비교적 높은 선정률을 나타냄

* 지원 방식에서는 부산문화재단, 울산문화관광재단, 충북문화재단이 최소·최대 지원금이 동일한 정액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서울문화재단(300만원), 울산문화관광재단(300만원), 충북문화재단(200만원)은 단일 단가로 운영함.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0만원 ~ 1,000만원의 범위를 두어 사업 성격에 따른 탄력적 지원이 가능한 구조이며, 신청 359건에 선정 156건(43.5%)으로 비교적 높은 선정률을 유지하고 있음

[표 3-9] 광역재단별 사전(준비)단계 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0**	**3,137**	**622**	**19.8**	**200**	**1,000**	**281**	**17.45**
서울문화재단	1	1,348	205	15.2	300	300	300	6.15
부산문화재단	1	85	50	58.8	300	300	300	1.50
대구문화예술진흥원	1	15	10	66.7	500	800	550	0.55
인천문화재단	-	-	-	-	-	-	-	-
광주문화재단	-	-	-	-	-	-	-	-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1	209	100	47.8	300	300	300	3.00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1	996	45	4.5	300	800	411	1.85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1	118	52	44.1	200	200	200	1.04
충남문화관광재단	1	7	4	57.1	300	550	400	0.16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	-	-	-	-	-	-	-
경북문화재단	-	-	-	-	-	-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제주문화예술재단	3	359	156	43.5	200	1,000	205	3.20

2. 문화예술교육

1) 교육

(1) 일반시민교육

※ 일반시민교육은 문화예술교육 내 가장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하는 세분류로, 7개 광역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총 지원금은 21.81억 원임. 신청·선정 건수 유효 응답이 없어 지원금 규모와 재단별 분포를 중심으로 살펴봄

※ 경남문화예술진흥원(6.8억 원)이 전체 지원금의 31.2%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충남문화관광재단(4.32억 원), 경기문화재단(4.29억 원), 경북문화재단(4.0억 원)이 뒤를 이음. 지원 단가 측면에서 경기문화재단은 최소 500만원 ~ 최대 2,000만원의 차등 구간을 설정한 반면, 대구문화예술진흥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2,000만원 정액 방식으로 운영함

[표 3-10] 광역재단별 일반시민교육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6**	**-**	**-**	**-**	**500**	**2,500**	**-**	**21.81**
서울문화재단	-	-	-	-	-	-	-	-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1	-	-	-	2,000	2,000	-	1.00
인천문화재단	2	-	-	-	-	-	-	-
광주문화재단	2	-	-	-	2,000	1,500	-	1.00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3	-	-	-	500	2,000	-	4.29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1	-	-	-	1,500	2,000	-	4.32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4	-	-	-	-	-	-	-
경북문화재단	1	-	-	-	2,500	2,500	-	4.00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	-	-	-	2,000	2,000	-	6.80
제주문화예술재단	1	-	-	-	1,000	1,500	-	0.40



* 응답 재단이 7개에 그쳐 전체 광역재단의 41.2%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일반시민교육 사업이 광역재단 전반에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운영 재단들은 비교적 큰 단가(1,000만~2,500만원)로 소수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로, 이는 광역재단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중규모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을 반영함

(2) 아동청소년예술교육

* 아동청소년예술교육은5개 광역재단이 운영하며 총 지원금은 17.91억 원임. 경기문화재단(6.84억 원)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6.8억 원)이 전체 지원금의 76.2%를 양분하는 구조로, 이 두 재단의 역할이 광역 단위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표 3-11] 광역재단별 아동청소년예술교육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7**	**-**	**-**	**-**	**190**	**4,000**	**-**	**17.91**
서울문화재단	-	-	-	-	-	-	-	-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1	-	-	-	-	-	-	-
인천문화재단	2	-	-	-	-	-	-	-
광주문화재단	1	-	-	-	-	-	-	-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2	-	-	-	-	-	-	-
경기문화재단	3	-	-	-	190	4,000	-	6.84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1	-	-	-	2,000	2,000	-	0.40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	-	-	-	-	-	-	-
경북문화재단	3	-	-	-	2,000	2,000	-	1.80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	-	-	-	2,000	2,000	-	6.80
제주문화예술재단	2	-	-	-	700	2,000	-	2.07

* 경기문화재단은 최소 190만원 ~ 최대 4,000만원의 넓은 지원 구간을 설정하여 소규모 학교 연계 프로그램부터 대형 교육 사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반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충남문화관광재단, 경북문화재단은 2,000만원 단일 또는 좁은 구간의 정액형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표준화된 교육 사업 운영을 추구함을 나타냄

* 운영 재단이 5개에 그쳐 전체 광역재단의 29.4%에 불과하다는 점은,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이 기초재단 중심으로 수행되는 경향과 함께, 광역 단위에서 이를 전담하는 재단이 제한적임을 시사함.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최소 700만원 ~ 최대 2,000만원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지원 구조를 갖추고 있음.

(3) 세대통합형

* 세대통합형 교육은 5개 광역재단이 운영하며 총 지원금은 11.13억 원임. 충남문화관광재단(4.7억 원)이 전체의 4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구문화예술진흥원(2.23억 원), 제주문화예술재단(2.17억 원)이 뒤를 이음

[표 3-12] 광역재단별 세대통합형 교육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7**	**-**	**-**	**-**	**415**	**3,000**	**-**	**11.13**
서울문화재단	-	-	-	-	-	-	-	-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2	-	-	-	1,750	1,870	-	2.23
인천문화재단	-	-	-	-	-	-	-	-
광주문화재단	1	-	-	-	3,000	3,000	-	1.50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1	-	-	-	415	700	-	0.53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1	-	-	-	2,200	1,800	-	4.70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1	-	-	-	-	-	-	-
경북문화재단	-	-	-	-	-	-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제주문화예술재단	1	-	-	-	1,500	2,000	-	2.17



※ 지원 단가에서 광주문화재단은 3,000만원 단일 정액으로 가장 높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최소 415만원 ~ 최대 700만원의 소액 구간으로 가장 낮은 단가를 유지함. 재단 간 단가 편차가4배 이상에 달하여 세대통합형 사업의 규모와 방식이 재단마다 상이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나타냄

※ 세대통합형 교육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세대 간 문화 연대 프로그램으로서의 정책적 의미가 크나, 운영 재단이 5개에 그쳐 광역재단 전반에서 제도화된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려움.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집중적 투자가 전국 세대통합형 광역 교육 지원금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특이 구조임.

(4) 유아예술교육

※ 유아예술교육은 6개 광역재단이 운영하며 총 지원금은 7.72억 원으로, 교육 중분류 내 세분류 중 가장 작은 지원 규모를 나타냄. 경남문화예술진흥원(1.91억 원), 경북문화재단(1.75억 원), 경기문화재단(1.2억 원) 순으로 지원금이 높게 나타남

[표 3-13] 광역재단별 유아예술교육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2**	**-**	**-**	**-**	**800**	**5,500**	**-**	**7.72**
서울문화재단	-	-	-	-	-	-	-	-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1	-	-	-	4,500	4,500	-	1.35
인천문화재단	1	-	-	-	-	-	-	-
광주문화재단	1	-	-	-	7,500	250	-	0.75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1	-	-	-	2,400	2,400	-	1.20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3	-	-	-	-	-	-	-
경북문화재단	2	-	-	-	4,000	5,500	-	1.75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	-	-	-	4,000	5,300	-	1.91
제주문화예술재단	2	-	-	-	800	5,000	-	0.76

* 지원 단가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4,500만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4,000~5,300만원), 경북문화재단(4,000~5,500만원)이 4,000만원 이상의 고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전문성 있는 유아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임. 반면 경기문화재단은 2,400만원 정액으로 운영하며, 제주문화예술재단은 800만원 ~ 5,000만원의 넓은 지원 구간을 설정하고 있음

* 유아 단계 예술교육은 조기 문화 감수성 형성에 있어 중요성이 높으나, 운영 재단이6개에 그치고 전체 지원 규모도 7.72억 원에 머무는 것은 광역재단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5) 고령자·시니어 예술교육

* 고령자·시니어 예술교육은 인천문화재단, 충남문화관광재단, 경북문화재단 3개 광역재단만이 운영하며 총 지원금은 1.97억 원으로 교육 세분류 중 가장 소규모임. 신청·선정 건수 유효 응답이 없어 지원금 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봄

* 지원 단가는 인천문화재단(7,000~9,500만원)이 가장 높아 대규모 기획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북문화재단(2,500만원 정액)과 충남문화관광재단(3,200만원 정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의 정액 방식을 채택함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 예술교육의 정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광역재단 차원에서 이를 전담하는 재단이 3개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광역재단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영역임을 나타냄

[표 3-14] 광역재단별 고령자·시니어 예술교육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3**	**-**	**-**	**-**	**2,500**	**9,500**	**-**	**1.97**
서울문화재단	-	-	-	-	-	-	-	-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인천문화재단	1	-	-	-	7,000	9,500	-	0.40
광주문화재단	-	-	-	-	-	-	-	-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	-	-	-	-	-	-	-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1	-	-	-	3,200	3,200	-	0.32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	-	-	-	-	-	-	-
경북문화재단	1	-	-	-	2,500	2,500	-	1.25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제주문화예술재단	-	-	-	-	-	-	-	-

(6) 취약계층 특화 예술교육(교육)

* 취약계층 특화 예술교육(교육 중분류)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경기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3개 재단이 운영하며 총 지원금은 4.99억 원임. 경기문화재단만 신청·선정 건수 유효 응답(신청18건, 선정5건, 선정률27.8%)이 있어 공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제주문화예술재단(2.4억 원)이 전체 지원금의 48.1%를 차지하여 이 세분류에서 가장 큰 비중을 보임. 지원 단가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1,111~1,200만원), 경기문화재단(건당1,600만원), 제주문화예술재단(600~2,300만원)으로 재단 간 차이가 나타남

[표 3-15] 광역재단별 취약계층 특화 예술교육(교육)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3**	**18**	**5**	**27.8**	**600**	**2,300**	**9,980**	**4.99**
서울문화재단	-	-	-	-	-	-	-	-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1	-	-	-	1,111	1,200	-	1.79
인천문화재단	-	-	-	-	-	-	-	-
광주문화재단	-	-	-	-	-	-	-	-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1	18	5	27.8	-	-	1,600	0.80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	-	-	-	-	-	-	-
경북문화재단	-	-	-	-	-	-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제주문화예술재단	1	-	-	-	600	2,300	-	2.40

* 장애인·이주민·교정보호시설 입소자 등 문화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교육 사업임에도 운영 재단이 3개에 그쳐 광역재단 차원의 포용적 예술교육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함

(7) 청년·성인(직장인)예술교육

* 청년·성인(직장인)예술교육은 경북문화재단 1개 재단만이 운영하는 세분류로, 총 지원금은 1.25억 원임. 신청·선정 건수 유효 응답이 없으며, 2,500만원 정액 단가로 운영하고 있음

* 직장인 등 성인 대상 예술교육은 문화예술 향유 확대 측면에서 수요가 높은 분야이나, 광역재단 차원에서 이를 독립적인 사업으로 운영하는 곳이 1개에 그친다는 점은 현재 이 세분류가 광역재단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

[표 3-16] 광역재단별 청년·성인(직장인)예술교육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	**-**	**-**	**-**	**2,500**	**2,500**	**-**	**1.25**
서울문화재단	-	-	-	-	-	-	-	-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인천문화재단	-	-	-	-	-	-	-	-
광주문화재단	-	-	-	-	-	-	-	-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	-	-	-	-	-	-	-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	-	-	-	-	-	-	-
경북문화재단	1	-	-	-	2,500	2,500	-	1.25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제주문화예술재단	-	-	-	-	-	-	-	-

2) 교육 기반구축

(1) 교육 인력(강사자·매개자·교원) 양성·연수

* 교육 인력 양성·연수는 9개 광역재단이 운영하는 세분류로, 교육 기반구축 내 가장 많은 재단이 참여하고 있음. 총 지원금은 23.67억 원으로 교육 기반구축 내 가장 큰 규모이며, 경북문화재단(9.75억 원)이 전체의 41.2%를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을 보임

* 지원 단가는 재단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경북문화재단(3,300만원 정액), 인천문화재단(3,000~3,400만원), 광주문화재단(3,000만원 정액), 경기문화재단(3,000만원 정액) 등 대부분의 재단이 3,000만원 내외의 표준화된 단가를 적용하고 있음

[표 3-17] 광역재단별 교육 인력 양성·연수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4**	**-**	**-**	**-**	**2,800**	**32,000**	**-**	**23.67**
서울문화재단	-	-	-	-	-	-	-	-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1	-	-	-	32,000	32,000	-	3.20
인천문화재단	2	-	-	-	3,000	3,400	-	1.83
광주문화재단	2	-	-	-	3,000	3,000	-	1.50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1	-	-	-	3,000	3,000	-	1.50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2	-	-	-	3,360	3,360	-	1.68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1	-	-	-	2,800	3,000	-	1.48
경북문화재단	2	-	-	-	3,300	3,300	-	9.75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	-	-	-	-	-	-	1.59
제주문화예술재단	2	-	-	-	2,900	2,900	-	1.14

* 교육 인력 양성·연수는 지역 예술교육의 질적 토대를 구성하는 핵심 기반 사업임에도, 9개 재단의 총 지원금 23.67억 원 중 경북문화재단 1개 재단이 41.2%를 독점하는 불균형 구조가 나타남. 지역별 교육 인력 양성 인프라 편차가 크다는 점은 광역 단위의 표준화된 인력 양성 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2) 교육프로그램 개발·고도화

* 교육프로그램 개발·고도화는 5개 광역재단이 운영하며 총 지원금은 17.04억 원임. 경북문화재단(9.2억 원)이 전체의 54.0%를 차지하여 교육 인력 양성과 마찬가지로 경북문화재단에 집중된 구조가 반복됨

* 지원 단가에서 인천문화재단은 최소 1,800만원 ~ 최대 11,000만원의 넓은 구간을 설정하여 소규모 프로그램 개발부터 대형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까지 포괄하고 있음. 반면 경기문화재단은110만원~1,000만원의 소액 구간으로, 경북문화재단은 1,500만원 ~ 3,500만원으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표 3-18] 광역재단별 교육프로그램 개발·고도화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6**	**-**	**-**	**-**	**110**	**11,000**	**-**	**17.04**
서울문화재단	-	-	-	-	-	-	-	-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인천문화재단	3	-	-	-	1,800	11,000	-	4.44
광주문화재단	-	-	-	-	-	-	-	-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3	-	-	-	110	1,000	-	0.84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2	-	-	-	2,000	5,200	-	1.96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3	-	-	-	-	-	-	-
경북문화재단	3	-	-	-	1,500	3,500	-	9.20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제주문화예술재단	2	-	-	-	2,500	3,500	-	0.60

*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장기적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선제적 투자임에도 운영 재단이 5개에 그치며, 특정 재단 편중이 심한 구조임. 이는 프로그램 개발·고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역량을 갖춘 광역재단이 아직 소수에 불과함을 나타냄

(3)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플랫폼/장비 구축

*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플랫폼/장비 구축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개 재단만이 운영하며, 최소 5,200만원 ~ 최대7,000만원 구간의 총1.22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 신청·선정 건수 유효 응답은 없음

* 디지털 전환 시대에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광역재단 중 1개 재단만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이 세분류가 향후 광역재단의 역할 확대가 기대되는 잠재 영역임을 나타냄

[표 3-19] 광역재단별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플랫폼/장비 구축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	**-**	**-**	**-**	**5,200**	**7,000**	**-**	**1.22**
서울문화재단	-	-	-	-	-	-	-	-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인천문화재단	-	-	-	-	-	-	-	-
광주문화재단	-	-	-	-	-	-	-	-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	-	-	-	-	-	-	-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	-	-	-	-	-	-	-
경북문화재단	-	-	-	-	-	-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	-	-	-	5,200	7,000	-	1.22
제주문화예술재단	-	-	-	-	-	-	-	-



(4) 취약계층 특화 예술교육(교육 기반구축)

* 취약계층 특화 예술교육(교육 기반구축 중분류)은 경북문화재단 1개 재단만이 운영하며, 신청 11건에 선정 5건(선정률45.5%), 건당 2,000만원 정액, 총 지원금1.0억 원을 기록함.
* 동일 명칭의 세분류가 교육 중분류와 교육 기반구축 중분류 양쪽에 각각 분류된 것은 취약계층 대상 교육 사업이 직접 프로그램 운영(교육)과 기반 마련(교육 기반구축) 두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나타냄. 경북문화재단의 단독 운영이라는 점에서 데이터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표 3-20] 광역재단별 취약계층 특화 예술교육(교육 기반구축)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	**11**	**5**	**45.5**	**2,000**	**2,000**	**2,000**	**1.00**
서울문화재단	-	-	-	-	-	-	-	-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인천문화재단	-	-	-	-	-	-	-	-
광주문화재단	-	-	-	-	-	-	-	-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	-	-	-	-	-	-	-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	-	-	-	-	-	-	-
경북문화재단	1	11	5	45.5	2,000	2,000	2,000	1.00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제주문화예술재단	-	-	-	-	-	-	-	-

3) 교육 활성화

(1) 교육주간·축제·박람회(캠페인 포함)

[표 3-21] 광역재단별 교육주간·축제·박람회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4**	**-**	**-**	**-**	**110**	**1,000**	**-**	**0.28**
서울문화재단	-	-	-	-	-	-	-	-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인천문화재단	1	-	-	-	-	-	-	-
광주문화재단	1	-	-	-	-	-	-	-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1	-	-	-	110	1,000	-	0.28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	-	-	-	-	-	-	-
경북문화재단	1	-	-	-	-	-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제주문화예술재단	-	-	-	-	-	-	-	-

* 교육주간·축제·박람회는 경기문화재단 1개 재단만이 운영하며, 최소 110만원 ~ 최대1,000만원 구간의 총 0.28억원을 지원함. 신청·선정 건수 유효 응답은 없음
* 교육 성과 공유와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주간·축제·박람회 사업이 광역재단 중 1개 재단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이 세분류가 현재 광역재단에서 제도화된 사업 유형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

(2) 우수사례 확산·멘토링/커뮤니티

[표 3-22] 광역재단별 우수사례 확산·멘토링/커뮤니티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2	-	-	-	1,000	1,000	-	0.10
서울문화재단	-	-	-	-	-	-	-	-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인천문화재단	-	-	-	-	-	-	-	-
광주문화재단	-	-	-	-	-	-	-	-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1	-	-	-	1,000	1,000	-	0.10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1	-	-	-	-	-	-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	-	-	-	-	-	-	-
경북문화재단	-	-	-	-	-	-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제주문화예술재단	-	-	-	-	-	-	-	-

* 우수사례 확산·멘토링/커뮤니티는 경기문화재단 1개 재단만이 운영하며, 1,000만원 정액 지원으로 총 0.1억 원 규모임. 신청·선정 건수 유효 응답은 없음

* 교육 활성화 중분류의 두 세분류(교육주간·축제·박람회, 우수사례 확산) 모두 경기문화재단 단독 운영으로, 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접 지원 사업이 광역재단 전반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냄. 향후 재단 간 교육 성과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임

3. 예술인지원

1) 예술인 전문 역량 강화

(1) 예술 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컨설팅

[표 3-23] 광역재단별 예술 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컨설팅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4**	**-**	**-**	**-**	**-**	**-**	**-**	**0.15**
서울문화재단	2	-	-	-	-	-	-	-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3	-	-	-	-	-	-	-
인천문화재단	-	-	-	-	-	-	-	-
광주문화재단	6	-	-	-	-	-	-	-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	-	-	-	-	-	-	-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	-	-	-	-	-	-	-
경북문화재단	-	-	-	-	-	-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	-	-	-	-	-	-	0.15
제주문화예술재단	1	-	-	-	-	-	-	-

* 예술 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컨설팅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개 광역재단만이 운영하며, 총 지원금은 0.15억 원으로 예술인지원 세분류 중 가장 소규모임. 신청·선정 건수 및 지원금 단가 관련 유효 응답이 없어 상세 분석에 한계가 있음

* 예술인의 전문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과 컨설팅 지원이 광역재단 차원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 기능이 현재 예술인 복지 전담 기관이나 중앙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광역재단에서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지 않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예술인 파견지원

[표 3-24] 광역재단별 예술인 파견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0	32	7	21.9	840	10,000	8,029	5.62
서울문화재단	-	-	-	-	-	-	-	-
부산문화재단	1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3	16	3	18.8	10,000	10,000	10,500	3.15
인천문화재단	-	-	-	-	-	-	-	-
광주문화재단	3	-	-	-	-	-	-	0.33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1	16	4	25.0	840	840	850	0.34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	-	-	-	-	-	-	-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1	-	-	-	-	-	-	-
경북문화재단	1	-	-	-	-	-	-	1.80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제주문화예술재단	-	-	-	-	-	-	-	-

* 예술인 파견지원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광주문화재단, 울산문화관광재단, 경북문화재단 4개 광역재단이 운영하며 총 지원금은 5.62억 원임. 대구문화예술진흥원(3.15억 원)이 전체의 46.0%를 차지하며, 경북문화재단(1.8억 원)이 뒤를 이음.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울산문화관광재단은 신청·선정 건수를 응답하였으며, 전체 유효 응답 기준으로 신청 72건에 선정 24건, 선정률 33.3%를 기록함

* 건당 지원금에서 뚜렷한 편차가 나타남.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건당 10,500만원(최소·최대 모두 1억 원 정액)으로 고단가 집중 파견 방식을 취하는 반면, 울산문화관광재단은 840만원 정액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로 더 넓은 파견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두 재단의 선정률은 각각 18.8%, 25.0%로 경쟁이 있는 공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예술인 파견지원은 예술가를 지역사회 현장에 연계하는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운영 재단이 4개에 그쳐 전국적으로 제한적인 운영 현황을 보임. 광주문화재단과 경북문화재단은 지원금 데이터는 있으나 신청·선정 건수 응답이 없어 사업 운영 방식의 전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2) 예술인 건강 및 권익보호

(1) 법률 및 세무, 행정컨설팅

[표 3-25] 광역재단별 법률 및 세무, 행정컨설팅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0**	**115**	**-**	**-**	**-**	**-**	**-**	**0.80**
서울문화재단	1	-	-	-	-	-	-	-
부산문화재단	1	-	-	-	-	-	-	0.80
대구문화예술진흥원	6	115	-	-	-	-	-	-
인천문화재단	-	-	-	-	-	-	-	-
광주문화재단	1	-	-	-	-	-	-	-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	-	-	-	-	-	-	-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	-	-	-	-	-	-	-
경북문화재단	1	-	-	-	-	-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제주문화예술재단	-	-	-	-	-	-	-	-

※ 법률 및 세무, 행정컨설팅은 부산문화재단과 대구문화예술진흥원 2개 재단이 운영하며, 지원금 응답은 부산문화재단(0.8억 원) 에서만 확인됨.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신청 115건을 기록하였으나 선정 건수와 지원금 응답이 없어, 무상 상담 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됨

※ 법률·세무 컨설팅은 금전 지원보다 전문가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지원금 기반의 7개 지표로 사업 전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운영 재단이 2개에 그치는 것은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 서비스 지원이 광역재단 전반에서 아직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



(2) 건강 및 심리지원

[표 3-26] 광역재단별 건강 및 심리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3**	**-**	**-**	**-**	**-**	**-**	**-**	**-**
서울문화재단	2	-	-	-	-	-	-	-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1	-	-	-	-	-	-	-
인천문화재단	-	-	-	-	-	-	-	-
광주문화재단	-	-	-	-	-	-	-	-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	-	-	-	-	-	-	-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	-	-	-	-	-	-	-
경북문화재단	-	-	-	-	-	-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제주문화예술재단	-	-	-	-	-	-	-	-

* 건강 및 심리지원은 3개 광역재단에서 사업이 확인되나, 지원금(금전 지원) 응답이 전무함. 이는 해당 세분류가 상담·치료 서비스 연계, 의료비 바우처,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비금전적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사업비가 재단 자체 운영비에 포함되어 지원금으로 구분·응답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됨

* 예술인 정신건강 지원이 사회적 수요에 비해 지원 구조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영역임을 고려할 때, 광역재단에서 이를 독립적인 사업으로 운영하는 곳이 소수에 그친다는 점과 함께 데이터 공백 자체가 향후 지원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시사함

3) 예술인 창업지원

[표 3-27] 광역재단별 창업 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5**	**-**	**-**	**-**	**-**	**-**	**-**	**3.68**
서울문화재단	1	-	-	-	-	-	-	2.90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2	-	-	-	-	-	-	0.08
인천문화재단	-	-	-	-	-	-	-	-
광주문화재단	-	-	-	-	-	-	-	-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1	-	-	-	-	-	-	0.40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	-	-	-	-	-	-	-
경북문화재단	-	-	-	-	-	-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	-	-	-	-	-	-	0.30
제주문화예술재단	-	-	-	-	-	-	-	-

* 창업 지원은 서울문화재단,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경기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4개 광역재단이 운영하며 총 지원금은 3.68억 원임. 서울문화재단(2.9억 원)이 전체의 78.8%를 차지하여 예술인 창업 지원이 서울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줌. 신청·선정 건수 유효 응답이 없어 경쟁 구도는 파악되지 않음

* 지원금 단가 응답도 부재하여 사업 구조의 세부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서울문화재단의 압도적 비중은 수도권 예술인의 창업·사업화 지원 수요가 집중된 구조를 반영하는 동시에, 비수도권 광역재단에서 예술인 창업 지원이 미미한 수준임을 나타냄

* 예술인 창업 및 문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은 예술 산업 육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하는 광역재단이 4개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현재 예술인 창업 지원이 광역재단의 주요 기능으로 아직 확립되지 않았음을 시사함



4) 예술인 복지지원

(1) (복지성) 현금 지원

[표 3-28] 광역재단별(복지성) 현금 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	-	-	-	-	-	-	6.00
서울문화재단	-	-	-	-	-	-	-	-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인천문화재단	-	-	-	-	-	-	-	-
광주문화재단	-	-	-	-	-	-	-	-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1	-	-	-	-	-	-	6.00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	-	-	-	-	-	-	-
경북문화재단	-	-	-	-	-	-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제주문화예술재단	-	-	-	-	-	-	-	-

※ (복지성) 현금 지원은 경기문화재단 1개 광역재단에서만 운영이 확인되며, 총 지원금은 6.0억 원으로 예술인 복지지원 세분류 중 가장 큰 규모임. 신청·선정 건수 및 지원금 단가 유효 응답은 없음

※ 복지성 현금 지원은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으로, 광역재단 중 1개 재단에서만 운영된다는 점은 이 기능이 현재 광역재단보다 국가 예술인 복지 제도(예술인권리보장법 등)와 지자체 복지 사업을 통해 주로 제공되고 있음을 반영함. 경기문화재단이 6.0억 원을 전담하는 구조는 수도권 예술인 생계 지원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됨

(2) 대출지원

[표 3-29] 광역재단별 대출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	**-**	**-**	**-**	**-**	**-**	**-**	**-**
서울문화재단	-	-	-	-	-	-	-	-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인천문화재단	-	-	-	-	-	-	-	-
광주문화재단	-	-	-	-	-	-	-	-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	-	-	-	-	-	-	-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	-	-	-	-	-	-	-
경북문화재단	-	-	-	-	-	-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	-	-	-	-	-	-	-
제주문화예술재단	-	-	-	-	-	-	-	-

* 대출지원은 1개 광역재단에서 사업이 확인되나, 지원금 응답이 전무함. 대출은 지원금 지급 방식이 아닌 금융 연계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본 조사의 7개 지표(신청·선정·지원금)로는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임

* 예술인을 위한 저리 대출 및 금융 연계 지원은 창작 활동 자금 확보를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 수요가 있으나, 광역재단 차원에서 이를 운영하는 곳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예술인 금융 지원 체계의 확대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문화향유

1) 기획 행사

(1) 기획 공연

[표 3-30] 광역재단별 기획공연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1	28	19	67.9	-	-	595	1.13
서울문화재단	1	-	-	-	-	-	-	-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1	-	-	-	-	-	-	-
인천문화재단	-	-	-	-	-	-	-	-
광주문화재단	5	-	-	-	-	-	-	-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	-	-	-	-	-	-	-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1	-	-	-	-	-	-	-
경북문화재단	1	-	-	-	-	-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	28	19	67.9	-	-	595	1.13
제주문화예술재단	-	-	-	-	-	-	-	-

* 기획공연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개 광역재단에서 신청·선정·지원금 응답이 확인되며, 신청 28건에 선정 19건(선정률 67.9%), 건당 594.7만원, 총 지원금 1.13억 원을 기록함. 나머지 광역재단에서는 기획공연이 지원금 지급 방식이 아닌 재단 직접 기획·운영 방식으로 수행되어 본 조사의 7개 지표에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기획공연은 광역재단의 대표적인 직접 주관 사업으로, 공연 제작·초청·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금이 아닌 운영 예산으로 처리됨. 이로 인해 지원금 기반 지표로는 대부분의 재단 현황을 포착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경우는 외부 단체에 공연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한 특이 사례로 해석됨

2) 생활문화 활성화

(1) 생활문화 동아리·단체 활동 지원

[표 3-31] 광역재단별 생활문화 동아리·단체 활동 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0**	**833**	**455**	**54.6**	**-**	**-**	**465**	**21.16**
서울문화재단	-	-	-	-	-	-	-	-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4	189	138	73.0	-	-	49	0.68
인천문화재단	-	-	-	-	-	-	-	-
광주문화재단	1	250	160	64.0	-	-	-	0.00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3	204	52	25.5	-	-	1,025	5.33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	-	-	-	-	-	-	-
경북문화재단	-	-	-	-	-	-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	29	27	93.1	-	-	4,963	13.40
제주문화예술재단	1	161	78	48.4	-	-	223	1.74

※ 생활문화 동아리·단체 활동 지원은 5개 광역재단이 운영하며 총 지원금 21.16억 원으로, 생활문화활성화 세분류 중 가장 큰 규모임. 전체 유효 응답 기준으로 신청 833건에 선정 455건, 선정률 54.6%를 나타냄

※ 경남문화예술진흥원(총액13.4억 원, 전체의 63.3%)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신청 29건에 선정 27건(93.1%)으로 높은 선정률과 건당 4,963만원의 고단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생활문화단체에 대한 집중 투자형 지원 방식을 반영함. 반면 광주문화재단은 선정 160건에 지원금이 사실상 0원으로 기록되어 비금전적 지원(공간·프로그램 연계 등)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됨

※ 경기문화재단은 신청 204건에 선정 52건(25.5%)으로 비교적 낮은 선정률을 나타내며, 건당 1,024.9만원으로 중간 수준의 단가를 유지함. 제주문화예술재단(건당 223.7만원)과 대구문화예술진흥원(49.5만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로 더 많은 단체에 폭넓게 지원하는 구조임

(2) 생활문화 축제 및 네트워크 활성화

[표 3-32] 광역재단별 생활문화 축제 및 네트워크 활성화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6**	**178**	**153**	**86.0**	**-**	**-**	**22**	**0.34**
서울문화재단	2	66	66	100.0	-	-	-	-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2	85	60	70.6	-	-	-	-
인천문화재단	-	-	-	-	-	-	-	-
광주문화재단	2	27	27	100.0	-	-	126	0.34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	-	-	-	-	-	-	-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	-	-	-	-	-	-	-
경북문화재단	-	-	-	-	-	-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제주문화예술재단	-	-	-	-	-	-	-	-

* 생활문화 축제 및 네트워크 활성화는 서울문화재단,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광주문화재단 3개 재단이 운영하며, 전체 신청 178건에 선정 153건으로 선정률 86.0%를 기록함. 총 지원금은 0.34억 원으로 소규모이며, 지원금 응답 재단은 광주문화재단(0.34억 원, 건당 125.9만원)에 한정됨

* 서울문화재단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신청·선정 건수는 응답하였으나 지원금 응답이 없어, 행정 지원·공간 제공·프로그램 연계 등 비금전적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됨. 서울문화재단(신청=선정=66건, 선정률 100%)과 광주문화재단(100%)은 모집 인원 내 전원 선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참여 촉진 목적의 사업 성격이 강함

3) 문화격차 해소

(1) 접근성 격차해소 지원(아웃리치)

[표 3-33] 광역재단별 접근성 격차해소 지원(아웃리치)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6	97	53	54.6	-	-	1,996	10.58
서울문화재단	-	-	-	-	-	-	-	-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1	44	11	25.0	-	-	-	-
인천문화재단	-	-	-	-	-	-	-	-
광주문화재단	-	-	-	-	-	-	-	-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1	30	19	63.3	-	-	-	0.00
경기문화재단	-	-	-	-	-	-	-	-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1	-	-	-	-	-	-	-
경북문화재단	2	12	12	100.0	-	-	2,083	2.50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	11	11	100.0	-	-	7,346	8.08
제주문화예술재단	-	-	-	-	-	-	-	-

* 접근성 격차해소 지원(아웃리치)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경북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4개 재단이 운영하며, 전체 신청 97건에 선정 53건, 선정률 54.6%, 총 지원금 10.58억 원임. 경남문화예술진흥원(8.08억 원)이 전체의 76.4%를 차지하며 압도적 비중을 보임

* 건당 지원금에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7,343.4만원)과 경북문화재단(2,083.3만원)은 고단가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에 실질적인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음. 두 재단 모두 선정률 100%로 신청 전원을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아웃리치 사업의 공급 확대 지향을 나타냄

* 대구문화예술진흥원(선정률25.0%)과 세종시문화관광재단(63.3%)은 상대적으로 낮은 선정률을 보이나,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지원금이 0원으로 기록되어 비금전적 서비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됨. 아웃리치 사업의 성격상 문화 소외 지역·계층에 직접 찾아가는 방식을 지향하나, 지원금 방식과 비금전적 서비스 방식 간의 구조 차이가 재단마다 다르게 나타남



(2) 경제적 격차해소 지원

[표 3-34] 광역재단별 경제적 격차해소 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8**	**774,040**	**637,584**	**82.4**	**-**	**-**	**10**	**625.47**
서울문화재단	2	495,427	459,820	92.8	-	-	1	60.50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1	-	-	-	-	-	-	200.24
인천문화재단	-	-	-	-	-	-	-	-
광주문화재단	1	100,812	-	-	-	-	-	133.71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1	85	48	56.5	-	-	-	-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2	8	8	100.0	-	-	-	-
경북문화재단	-	-	-	-	-	-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	177,708	177,708	100.0	-	-	13	231.02
제주문화예술재단	-	-	-	-	-	-	-	-

* 경제적 격차해소 지원은 6개 광역재단이 운영하며, 총 지원금 625.47억 원으로 문화향유 내 전체 세분류 중 압도적으로 큰 규모임. 신청 774,040건·선정 637,584건·건당 평균 지원금 9.8만원의 구조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문화누리카드)이 이 세분류에 집중 분류된 결과로, 개인당 지원금이 이용권 단가(연13만원 수준)와 일치함

* 경남문화예술진흥원(231.02억 원)과 대구문화예술진흥원(200.24억 원), 광주문화재단(133.71억 원)이 전체 지원금의 90.3%를 차지하며, 이 세 재단이 광역 단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냄. 서울문화재단(60.5억 원)의 경우 신청 495,427건에 선정 459,820건(92.8%)으로 대규모 이용자 기반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세분류는 대규모 복지 연계 사업의 특성상 신청·선정 건수가 일반 공모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른 구조임. 건당 지원금(9.8만원)이 지원 단가가 아닌 이용권 사용액 평균에 해당하며, 재단별 총액 차이는 지원 대상 인원 규모의 차이를 반영함. 이에 따라 다른 세분류와의 단순 수치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특성별 맞춤형 지원

[표 3-35] 광역재단별 특성별 맞춤형 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2**	**119**	**49**	**41.2**	**-**	**-**	**2,031**	**9.95**
서울문화재단	-	-	-	-	-	-	-	-
부산문화재단	-	-	-	-	-	-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인천문화재단	-	-	-	-	-	-	-	-
광주문화재단	-	-	-	-	-	-	-	-
대전문화재단	-	-	-	-	-	-	-	-
울산문화관광재단	-	-	-	-	-	-	-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	-	-	-	-	-	-
경기문화재단	-	-	-	-	-	-	-	-
강원문화재단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충남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	-	-	-	-	-	-
전라남도문화재단	-	-	-	-	-	-	-	-
경북문화재단	-	-	-	-	-	-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	119	49	41.2	-	-	2,031	9.95
제주문화예술재단	-	-	-	-	-	-	-	-

* 특성별 맞춤형 지원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개 재단만이 운영하며, 신청 119건에 선정 49건(선정률41.2%), 건당 2,030.6만원, 총 지원금 9.95억 원을 기록함. 장애 유형, 연령, 문화 배경 등 개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문화 지원 사업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이 세분류를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음

* 건당 지원금 2,030.6만원은 맞춤형 특성상 개별 수혜자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냄. 운영 재단이 1개에 그치는 현황은 특성별 맞춤형 지원이 향후 광역재단 전반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는 영역임을 시사함

제2절 기초 재단 사업 지원 현황

1. 예술창작활동지원

1) 창·제작 및 유통 지원

(1) 작품 창·제작 및 발표 지원

* 작품 창·제작 및 발표 지원은 기초재단의 예술창작활동지원 내 핵심 세분류로, 전체 신청 4,164건에 선정 1,465건, 선정률 35.2%, 총 지원금 78.98억 원을 기록함. 광역재단(선정률26.8%) 대비 선정률이 높은 것은 기초재단의 지역 밀착형 공모 구조를 반영함

*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의 선정률이 16.3%로 가장 낮아 경쟁이 치열하며, 건당 지원금(285.1만원)도 전국 최저임. 경기인천권은 신청 1,695건(40.7%)으로 가장 많으며 건당 820.6만원으로 세 권역 중 가장 높은 단가를 유지함. 비수도권은 선정률 50.9%로 가장 높으나 건당 431.1만원으로 경기인천권에 비해 낮아, 더 많은 예술인·단체에 소액 분산 지원하는 방식임을 나타냄

[표 3-36] 작품 창·제작 및 발표 지원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39**	**95**	**4,164**	**1,465**	**35.2**	**25**	**11,000**	**539**	**78.98**
서울권	7	14	698	114	16.3	50	1,700	285	3.25
경기인천권	12	37	1,695	449	26.5	100	11,000	821	36.85
비수도권	20	44	1,771	902	50.9	25	2,380	431	38.88

* 최소 지원금에서 서울권(50만원)과 비수도권(25만원)은 소액 지원도 병행하고 있으며, 최대 지원금은 경기인천권(1억 1,000만원)이 가장 높아 대규모 창·제작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총 지원금 기준으로는 비수도권(38.88억 원)과 경기인천권(36.85억 원)이 비슷한 수준이나, 비수도권은 더 많은 재단 수를 감안해야 하므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2) 청년·원로·장애인 대상 특화 지원

[표 3-37] 기초재단 권역별 청년·원로·장애인 대상 특화 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2**	**14**	**459**	**72**	**15.7**	**50**	**1,500**	**471**	**3.39**
서울권	3	4	166	15	9.0	100	450	127	0.19
경기인천권	5	5	257	35	13.6	50	1,500	574	2.01
비수도권	4	5	36	22	61.1	230	800	536	1.18

* 청년·원로·장애인 대상 특화 지원은 전체 신청 459건에 선정 72건, 선정률 15.7%로 기초재단 예술창작 세분류 중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세분류임. 총 지원금은 3.39억 원이며 건당 470.6만원의 중간 수준 단가를 보임

* 서울권 선정률(9.0%)이 가장 낮고 건당 지원금(128.7만원)도 최저로, 수도권 내에서도 특화 대상 지원에 대한 수요 집중과 소액 지원 구조가 두드러짐. 비수도권은 선정률 61.1%로 세 권역 중 가장 높으며 건당 537.7만원으로 중간 수준의 단가를 유지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원 구조를 보임

* 경기인천권은 신청 257건으로 가장 많고 최대 지원금이 1,500만원에 달하는 고단가 사업을 포함하나 선정률은 13.6%에 그쳐 경쟁이 치열함. 전반적으로 기초재단의 특화 지원은 광역재단(27.1%)과 달리 기초재단에서 더욱 낮은 선정률을 보여, 특화 대상 지원에 대한 현장 수요가 기초재단 수준에서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3) 작품 유통 및 매개활동 지원

[표 3-38] 기초재단 권역별 작품 유통 및 매개활동 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1**	**18**	**1,066**	**633**	**59.4**	**5**	**600**	**38**	**2.39**
서울권	3	6	421	129	30.6	10	600	65	0.84
경기인천권	3	4	155	58	37.4	-	-	-	-
비수도권	5	8	490	446	91.0	5	329	35	1.55



* 작품 유통 및 매개활동 지원은 전체 신청 1,066건에 선정 633건, 선정률 59.4%, 총 지원금 2.39억 원임. 건당 평균 지원금(37.7만원)이 매우 낮은 것은 비수도권에서 소액 매개 활동 지원 방식이 주를 이루기 때문임

* 비수도권은 신청 490건에 선정 446건(91.0%)의 높은 선정률을 보이며 건당 34.7만원의 소액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서울권은 선정률 30.6%에 건당 65.2만원, 경기인천권은 선정률 37.4%로 비수도권 대비 경쟁이 높고 지원금 데이터가 없어 비금전적 지원 방식도 혼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최소 지원금 5만원(비수도권)은 기초재단 예술창작 세분류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소규모 지역 예술 매개 활동에 상징적 수준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냄. 광역재단(선정률24.0%) 대비 기초재단 선정률(59.4%)이 크게 높아, 기초 단위 유통·매개 지원은 접근성이 훨씬 열린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음

2) 창작공간 운영 지원

(1) 예술(창작) 공간 운영 지원

[표 3-39] 기초재단 권역별 예술(창작) 공간 운영 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0**	**11**	**476**	**232**	**48.7**	**200**	**400**	**466**	**10.82**
서울권	5	5	101	40	39.6	250	300	169	0.68
경기인천권	3	3	179	60	33.5	200	400	219	1.31
비수도권	2	3	196	132	67.3	-	-	669	8.83

* 예술(창작) 공간 운영 지원은 전체 신청 476건에 선정 232건, 선정률 48.7%, 총 지원금 10.82억 원임. 건당 466.2만원으로 창작공간 지원 세분류 중 가장 높은 단가를 나타냄

* 비수도권이 신청 196건에 선정 132건(67.3%)으로 높은 선정률을 보이며 건당 668.9만원의 상대적 고단가를 유지함. 서울권(선정률 39.6%, 건당 168.8만원)과 경기인천권(33.5%, 건당 218.5만원)은 낮은 선정률과 단가를 보여 수도권 기초재단의 창작 공간 지원이 소규모·저단가 방식으로 운영됨을 나타냄. 지원 단가 범위(최소 200만원 ~ 최대 400만원)는 광역재단(최소 120만원 ~ 최대 5,500만원)에 비해 좁고 낮아 기초재단의 창작 공간 지원 규모가 전반적으로 소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음

(2) 레지던스 운영 지원

[표 3-40] 기초재단 권역별 레지던스 운영 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8**	**10**	**328**	**53**	**16.2**	**70**	**1,920**	**293**	**1.55**
서울권	-	-	-	-	-	-	-	-	-
경기인천권	2	2	104	15	14.4	107	107	213	0.32
비수도권	6	8	224	38	17.0	70	1,920	324	1.23

* 레지던스 운영 지원은 전체 신청 328건에 선정 53건, 선정률 16.2%로 창작공간 지원 세분류 중 경쟁이 가장 치열함. 총 지원금 1.55억 원, 건당 291.7만원임

* 서울권은 유효 응답이 없으며, 경기인천권은 선정률 14.4%에 건당 214만원(최소·최대 모두 107만원 정액), 비수도권은 선정률 17.0%에 건당 322.4만원으로 소규모 운영을 보임. 광역재단 레지던스 지원(건당 4,078.9만원) 대비 기초재단 지원 단가(291.7만원)가 14분의 1 수준으로, 기초재단의 레지던스 운영 지원이 광역에 비해 매우 소규모임을 나타냄

(3) 임차료 지원

[표 3-41] 기초재단 권역별 임차료 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3**	**3**	**125**	**71**	**56.8**	**20**	**480**	**310**	**2.20**
서울권	-	-	-	-	-	-	-	-	-
경기인천권	1	1	49	39	79.6	40	400	244	0.95
비수도권	2	2	76	32	42.1	20	480	391	1.25

* 임차료 지원은 전체 신청 125건에 선정 71건, 선정률 56.8%, 총 지원금 2.2억 원, 건당 309.8만원임. 서울권 유효 응답이 없으며, 경기인천권(선정률 79.6%)이 비수도권(42.1%)보다 높은 선정률을 보임



* 건당 지원금은 비수도권(390.5만원)이 경기인천권(243.6만원)보다 높아 비수도권 기초재단이 임차료 지원에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음. 광역재단 임차료 지원(건당 178.3만원)보다 기초재단(309.8만원) 단가가 더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지역 내 예술 공간 임차료 수준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됨

3) 예술 교류 지원

(1)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표 3-42] 기초재단 권역별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5**	**5**	**68**	**39**	**57.4**	**200**	**1,500**	**562**	**2.19**
서울권	1	1	20	10	50.0	-	-	-	-
경기인천권	2	2	12	6	50.0	200	300	267	0.16
비수도권	2	2	36	23	63.9	500	1,500	883	2.03

*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은 전체 신청 68건에 선정 39건, 선정률 57.4%, 총 지원금 2.19억 원, 건당 561.3만원임. 비수도권(선정률 63.9%, 건당 882.2만원)이 서울권(50.0%) 및 경기인천권(50.0%)보다 높은 선정률과 단가를 보여 비수도권 기초재단에서 교류 지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냄

* 경기인천권은 건당 266.7만원으로 가장 낮은 단가이며, 비수도권은 최소 500만원 ~ 최대 1,500만원의 중·고단가 구간을 설정하고 있음. 서울권은 지원금 응답이 없어 비금전적 지원 방식이 혼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2) 국제 레지던시 참가 지원

[표 3-43] 기초재단 권역별 국제 레지던시 참가 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	**1**	**3**	**3**	**100.0**	**500**	**550**	**533**	**0.16**
서울권	-	-	-	-	-	-	-	-	-
경기인천권	-	-	-	-	-	-	-	-	-
비수도권	1	1	3	3	100.0	500	550	533	0.16

* 국제 레지던시 참가 지원은 비수도권 기초재단에서만 신청 3건·선정 3건(100%)이 확인되며 총 지원금 0.16억 원, 건당 533.3만원임. 유효 응답이 매우 소규모여서 통계적 해석에 한계가 있음

* 기초재단 수준에서 국제 레지던시 참가 지원이 비수도권 일부 재단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기초재단의 국제 예술 교류가 아직 초기 단계임을 나타내며 향후 광역재단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가 검토될 수 있는 영역임

4) 사전(준비)단계 지원

[표 3-44] 기초재단 권역별 사전(준비)단계 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	**1**	**38**	**12**	**31.6**	**300**	**600**	**425**	**0.51**
서울권	-	-	-	-	-	-	-	-	-
경기인천권	1	1	38	12	31.6	300	600	425	0.51
비수도권	-	-	-	-	-	-	-	-	-

* 사전(준비)단계 지원은 경기인천권 기초재단에서만 유효 응답이 확인되며, 신청 38건에 선정 12건(31.6%), 건당 425만원(최소 300만원 ~ 최대 600만원), 총 지원금 0.51억 원임. 광역재단 사전(준비)단계 선정률(19.8%)보다 높은 수준이나, 운영 재단이 경기인천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재단 전반의 현황을 대표하기 어려움

* 사전(준비)단계 지원이 기초재단에서 극히 소수 재단에서만 운영된다는 점은, 창작 준비 단계에 대한 기초 단위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냄. 창작 준비 단계의 지원 확충은 기초재단의 창작 지원 기능 강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임

5) 예술인 및 작품 시상

[표 3-45] 기초재단 권역별 예술인 및 작품 시상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	**1**	**-**	**-**	**-**	**2,000**	**2,000**	**-**	**0.20**
서울권	-	-	-	-	-	-	-	-	-
경기인천권	-	-	-	-	-	-	-	-	-
비수도권	1	1	-	-	-	2,000	2,000	-	0.20

* 예술인 및 작품 시상은 비수도권 기초재단에서만 운영이 확인되며, 선정 1건에 2,000만원 정액 지원, 총 지원금 0.2억 원임. 신청 건수 유효 응답이 없어 공모 방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광역재단에서는 이 세분류 사업이 없는 반면 기초재단에서 1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단위 예술인 시상 사업이 일부 기초재단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냄

2. 문화예술교육

1) 교육

(1) 일반시민교육

[표 3-46] 기초재단 권역별 일반시민교육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29**	**57**	**-**	**-**	**-**	**10**	**12,250**	**-**	**6.50**
서울권	7	13	-	-	-	10	40	-	0.00
경기인천권	8	12	-	-	-	400	760	-	0.47
비수도권	14	32	-	-	-	10	12,250	-	6.03

* 일반시민교육은 신청·선정 건수 유효 응답이 없으며, 지원금 응답 기준으로 총 6.5억 원을 기록함. 비수도권(6.03억 원)이 전체의 92.8%를 차지하며, 지원 단가 범위(최소 10만원 ~ 최대 12,250만원)가 매우 넓어 소규모 동아리 지원부터 대형 시민교육 사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업이 혼재함

* 서울권의 지원 단가(최소 10만원 ~ 최대 40만원)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소액 분산 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경기인천권(400 ~ 760만원)은 중간 수준의 단가를 유지함. 기초재단 일반시민교육은 지원금 방식보다 직접 운영 방식 사업이 많아 신청·선정 데이터 공백이 전반적으로 나타남

(2) 아동청소년예술교육

[표 3-47] 기초재단 권역별 아동청소년예술교육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26**	**55**	**52**	**52**	**100.0**	**1,588**	**10,000**	**292**	**1.52**
서울권	8	21	-	-	-	1,588	10,000	-	1.32
경기인천권	9	15	-	-	-	-	-	-	-
비수도권	9	19	52	52	100.0	2,000	2,000	39	0.20



※ 아동청소년예술교육은 비수도권에서만 신청·선정 유효 응답(신청 52건, 선정 52건, 100%)이 확인되며, 총 지원금은 서울권(1.32억 원)과 비수도권(0.2억 원) 기준 1.52억 원임. 서울권은 지원금은 있으나 신청·선정 응답이 없어 직접 운영 방식으로 수행됨을 나타냄

※ 비수도권의 선정률 100%는 수요에 맞춘 정원 내 운영 방식을 반영하며 건당 38.5만원의 소액 지원임. 서울권 최소(1,588만원), 최대(1억 원) 단가는 대규모 학교 연계 교육 사업이 포함된 결과로 해석됨

2) 교육 기반구축

(1) 교육 인력(강사자·매개자·교원) 양성·연수

[표 3-48] 기초재단 권역별 교육 인력 양성·연수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9**	**10**	**-**	**-**	**-**	**1,000**	**1,000**	**-**	**0.60**
서울권	3	3	-	-	-	-	-	-	-
경기인천권	3	4	-	-	-	1,000	1,000	-	0.60
비수도권	3	3	-	-	-	-	-	-	-

※ 교육 인력 양성·연수는 경기인천권에서만 지원금 응답이 확인되며, 1,000만원 정액 지원, 총 0.6억 원임. 신청·선정 건수 유효 응답은 없음

※ 교육 강사·매개자 양성이 기초재단에서 경기인천권 소수 재단에 한정되어 운영된다는 점은, 기초재단 수준의 교육 인력 양성 기반이 취약함을 나타내며 광역재단과의 연계 프로그램 활용이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음

(2) 교육프로그램 개발·고도화

[표 3-49] 기초재단 권역별 교육프로그램 개발·고도화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6**	**7**	**-**	**-**	**-**	**100**	**2,000**	**-**	**2.92**
서울권	1	1	-	-	-	485	500	-	0.30
경기인천권	3	3	-	-	-	400	600	-	0.61
비수도권	2	3	-	-	-	100	2,000	-	2.01

* 교육프로그램 개발·고도화는 전 권역에서 지원금 응답이 확인되며, 총 2.92억 원임. 비수도권(2.01억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지원 단가 범위(최소 100만원 ~ 최대 2,000만원)가 넓어 소규모 프로그램 기획부터 중규모 콘텐츠 개발까지 다양한 사업이 포함됨

* 신청·선정 건수 응답이 없어 경쟁 구도는 파악되지 않으나, 세 권역 모두에서 사업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기초재단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세분류임을 확인할 수 있음

3. 예술인지원

1) 예술인 전문 역량 강화

(1) 예술 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컨설팅

[표 3-50] 기초재단 권역별 예술 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컨설팅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0**	**15**	**17**	**16**	**94.1**	**1**	**1**	**475**	**0.76**
서울권	4	8	-	-	-	1	1	-	0.40
경기인천권	3	3	17	16	94.1	-	-	-	-
비수도권	3	4	-	-	-	-	-	-	0.36

* 예술 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컨설팅은 경기인천권에서 신청·선정 유효 응답(신청 17건, 선정 16건, 94.1%)이 확인되며, 전체 지원금은 0.76억 원임

* 서울권과 비수도권은 지원금은 있으나 신청·선정 응답이 없어 직접 운영 방식이 혼재하는 구조로 이해됨. 기초재단 수준에서 예술 인력 양성·컨설팅 사업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광역재단과의 역할 분담이 요구되는 영역임

(2) 예술인 파견지원

[표 3-51] 기초재단 권역별 예술인 파견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8**	**8**	**-**	**-**	**-**	**50**	**1,000**	**-**	**0.98**
서울권	2	2	-	-	-	-	-	-	-
경기인천권	3	3	-	-	-	350	700	-	0.56
비수도권	3	3	-	-	-	50	1,000	-	0.42

* 예술인 파견지원은 경기인천권(0.56억 원)과 비수도권(0.42억 원)에서 지원금이 확인되며 총 0.98억 원이나, 신청·선정 건수 유효 응답이 없어 경쟁 구도는 파악되지 않음. 경기인천권은 350만원 ~ 700만원 구간, 비수도권은 50만원 ~ 1,000만원의 넓은 구간을 적용하고 있어 파견 사업의 규모와 방식이 다양함

* 기초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은 광역재단(총 5.62억 원) 대비 규모가 작으나, 지역 학교·복지시설 등 생활 현장에 예술인을 파견하는 기초 단위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4. 문화향유

1) 기획 행사

(1) 기획 공연

[표 3-52] 기초재단 권역별 기획공연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35**	**94**	**62**	**27**	**43.5**	**-**	**-**	**-**	**0.00**
서울권	10	28	40	20	50.0	-	-	-	-
경기인천권	9	23	-	-	-	-	-	-	-
비수도권	16	43	22	7	31.8	-	-	-	0.00

* 기획공연은 서울권(신청 40건, 선정 20건, 50.0%)과 비수도권(신청 22건, 선정 7건, 31.8%)에서 신청·선정 응답이 확인되나 지원금이 0원으로 기록되어 비금전적 지원 방식으로 운영됨. 경기인천권은 응답이 없음

* 기초재단의 기획공연은 광역재단과 마찬가지로 직접 기획·운영 방식이 주를 이루며, 지원금 방식이 아닌 무대 제공·제작 지원 등 현물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본 조사 지표로는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음

(2) 그 밖의 행사

[표 3-53] 기초재단 권역별 그 밖의 행사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21**	**50**	**460**	**228**	**49.6**	**1,000**	**1,000**	**4**	**0.10**
서울권	8	17	444	212	47.7	1,000	1,000	5	0.10
경기인천권	5	12	16	16	100.0	-	-	-	-
비수도권	8	21	-	-	-	-	-	-	-

* 그 밖의 행사는 서울권(신청 444건, 선정 212건, 47.7%)이 전체 신청의 96.5%를 차지하며, 경기인천권은 신청 16건·선정 16건(100%)으로 소규모 운영됨. 총 지원금(0.1억 원)은 서울권에 집중되며 건당 4.7만원의 소액 지원 방식임

* 서울권 기초재단의 그 밖의 행사 신청 집중은 서울 내 다양한 지역 문화 행사에 대한 소액 참여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냄. 비수도권은 응답이 없어 직접 운영 방식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됨

2) 축제

(1) 기타 축제

[표 3-54] 기초재단 권역별 기타 축제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20**	**38**	**18**	**18**	**100.0**	**2,000**	**12,000**	**5,267**	**9.48**
서울권	7	9	-	-	-	-	-	-	-
경기인천권	3	5	-	-	-	-	-	-	-
비수도권	10	24	18	18	100.0	2,000	12,000	5,267	9.48

* 기타 축제는 비수도권에서만 유효 응답이 확인되며, 신청 18건에 선정 18건(100%), 건당 5,266.7만원, 총 지원금 9.48억 원으로 기초재단 축제 세분류 중 가장 큰 규모임. 최소 2,000만원 ~ 최대 12,000만원의 고단가 구간은 대규모 지역 축제 지원이 포함된 결과임

* 신청·선정이 일치하여 경쟁 없이 전량 지원되는 구조는 사전에 조율된 지원 계획에 따라 운영됨을 나타냄. 비수도권 기초재단의 기타 축제 지원이 집중 고단가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지역 고유 축제에 대한 기초재단의 전략적 투자를 반영함

(2) 역사문화자원연계축제

[표 3-55] 기초재단 권역별 역사문화자원연계축제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9**	**12**	**11**	**9**	**81.8**	**50**	**50**	**67**	**0.06**
서울권	2	3	-	-	-	-	-	-	-
경기인천권	4	4	-	-	-	-	-	-	-
비수도권	3	5	11	9	81.8	50	50	67	0.06

※ 역사문화자원연계축제는 비수도권에서만 신청 11건·선정 9건(81.8%), 건당 61.1만원(최소·최대 모두 50만원), 총 지원금 0.06억 원의 소규모 응답이 확인됨. 지역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축제 지원이 비수도권 일부 기초재단에서 소액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냄

3) 생활문화 활성화

(1) 생활문화 동아리·단체 활동 지원

[표 3-56] 기초재단 권역별 생활문화 동아리·단체 활동 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26**	**46**	**1,254**	**656**	**52.3**	**100**	**700**	**263**	**17.26**
서울권	5	13	240	156	65.0	-	-	18	0.28
경기인천권	9	12	166	109	65.7	-	-	760	8.28
비수도권	12	21	848	391	46.1	100	700	222	8.69

※ 생활문화 동아리·단체 활동 지원은 전체 신청 1,254건에 선정 656건, 선정률 52.3%, 총 지원금 17.26억 원으로 기초재단 생활문화활성화 세분류 중 가장 큰 규모임. 기초재단과 생활문화 지원 사업의 연계가 가장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세분류임을 나타냄

* 경기인천권이 신청 166건에 선정 109건(65.7%)으로 높은 선정률을 보이며 건당 759.7만원으로 세 권역 중 가장 높은 단가를 적용함. 비수도권은 신청 848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하나 선정률 46.1%로 경쟁이 비교적 높고 건당 222.3만원으로 가장 낮은 단가를 유지함

* 서울권은 선정률 65.0%로 높으나 건당 18.3만원의 소액 지원 방식을 채택하여 동아리 활동 참여 독려 목적의 상징적 지원 성격이 강함. 세 권역의 건당 지원금 차이(최소 18.3만원 ~ 최대 759.7만원)가 40배 이상에 달하는 것은 기초재단의 생활문화 지원 방식이 권역 또는 재단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설계됨을 나타냄

(2) 생활문화 축제 및 네트워크 활성화

[표 3-57] 기초재단 권역별 생활문화 축제 및 네트워크 활성화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0**	**20**	**756**	**607**	**80.3**	**280**	**360**	**47**	**2.84**
서울권	4	7	370	368	99.5	-	-	10	0.37
경기인천권	2	3	72	70	97.2	-	-	304	2.13
비수도권	4	10	314	169	53.8	280	360	20	0.34

* 생활문화 축제 및 네트워크 활성화는 전체 신청 756건에 선정 607건, 선정률 80.3%, 총 지원금 2.84억 원임. 서울권(99.5%)과 경기인천권(97.2%)은 사실상 전원 선정에 가까운 높은 선정률로 참여 촉진형 사업임을 나타냄

* 경기인천권이 건당 304.1만원으로 가장 높은 단가이며 총 지원금의 75.0%를 차지함. 비수도권은 선정률 53.8%로 상대적으로 경쟁이 있으며 건당 20.2만원으로 소액 지원 방식임. 서울권(건당 10.1만원)은 가장 낮은 단가로 다수의 참여를 독려하는 구조임

3) 문화격차 해소

(1) 접근성 격차해소 지원(아웃리치)

[표 3-58] 기초재단 권역별 접근성 격차해소 지원(아웃리치)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13**	**17**	**356**	**229**	**64.3**	**250**	**320**	**814**	**18.65**
서울권	1	1	2	2	100.0	-	-	1,950	0.39
경기인천권	2	3	60	36	60.0	-	-	4,097	14.75
비수도권	10	13	294	191	65.0	250	320	184	3.51

※ 접근성 격차해소 지원(아웃리치)은 전체 신청 356건에 선정 229건, 총 지원금 18.65억 원으로 기초재단 문화격차해소 세분류 중 가장 큰 규모임. 선정이 신청을 상회하는 것은 경기인천권에서 신청 60건에 선정 191건이 집계된 데이터 구조 때문으로, 추천·직권 지정 방식 사업이 혼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경기인천권이 총 지원금의 79.1%(14.75억 원)를 차지하며 건당 4,097만원의 고단가 구조를 보임. 비수도권은 선정률 65.0%에 건당 184만원으로 소액 아웃리치 방식이 주를 이루며, 서울권은 2건에 불과하나 건당 1,935만원으로 집중 투자 방식임. 권역별 사업 방식과 단가 구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아웃리치 사업 설계의 기초재단 간 편차가 매우 큼을 나타냄

(2) 특성별 맞춤형 지원

[표 3-59] 기초재단 권역별 특성별 맞춤형 지원 현황

[단위 : 건, %, 만원, 억원]

구분	재단 수	사업 수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최소 지원금액 (만원)	최대 지원금액 (만원)	건당 평균 지원금 (만원)	총 지원 금액 (억원)
전체	**4**	**6**	**95**	**68**	**71.6**	**-**	**-**	**7**	**0.05**
서울권	2	3	47	27	57.4	-	-	4	0.01
경기인천권	-	-	-	-	-	-	-	-	-
비수도권	2	3	48	41	85.4	-	-	10	0.04

* 특성별 맞춤형 지원은 전체 신청 95건에 선정 68건, 선정률 71.6%, 총 지원금 0.05억 원의 소규모 세분류임. 지원금이 매우 소액(건당 7.7만원)이어서 실질적인 개인 맞춤형 지원이라기보다 참여 지원금 성격의 소액 제공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됨

* 비수도권(선정률 85.4%)이 서울권(57.4%)보다 높은 선정률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지원금 규모가 매우 소액이어서 특성별 맞춤형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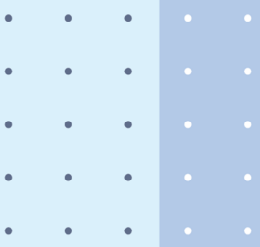
4

종합 결론 및 정책 시사점

2025 지역문화재단 사업조사 연구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1. 기능 중심 분류체계의 구축과 적용

* 본 연구는 지역문화재단 사업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한 기능 중심 표준 분류체계를 새롭게 수립하고, 이를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 적용하였음. 기존 국가 문화통계 분류체계는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 구조나 예술 장르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지역문화재단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기능적 다양성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업의 목적과 역할, 1차 수혜 대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기능 중심 3대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헌 검토와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하였음

* 확정된 분류체계는 예술창작활동지원, 문화예술교육, 예술인지원, 문화향유,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의 6대 기능 대분류를 최상위 체계로 하고, 각 대분류 아래 중분류와 세분류를 두는 3단계 위계 구조로 구성됨. 기존 분류 틀에 포함되기 어려운 사업 유형을 수용하기 위한 기타 범주도 별도로 마련하였음. 분류 적용 과정에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 우선, 예산 비중 우선, 수혜자 중심의 3대 원칙을 수립하고, 경계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였음

* 구축된 분류체계는 전국 79개 응답 재단의 총 1,391건 사업에 적용되었음. 적용 결과, 전체 사업의 95.0%에 해당하는 1,322건이 6대 기능 대분류 중 하나로 분류되었으며, 나머지 69건(5.0%)은 기타 범주로 처리됨. 기타 범주에는 지역문화자산 발굴·관리, 후원 활성화 및 재원조성, 홍보·마케팅 성격의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분류체계 정교화 과정에서 독립 범주 설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영역임

* 본 분류체계는 지역문화재단 사업의 기능적 성격을 포착하고 재단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표준 체계로서 의의를 가짐. 특히 동일한 예술 장르 내에서도 사업의 정책적 목적과 수혜 대상이 다를 수 있음을 분류 원칙에 명시함으로써, 기존 장르 중심 분류가 놓쳐온 기능적 차이를 통계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었음. 이 분류체계는 이번 조사를 위한 일회성 도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역문화재단 관련 통계의 정기적 생산과 시계열 분석을 위한 기준 체계로 지속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2. 전체 사업의 기능별 구조적 특성

* 응답 재단이 수행한 1,391건의 사업을 기능별로 분석한 결과,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구조는 특정 기능으로의 편중, 예산 투입의 비대칭성, 기능별 추진방식의 이원화, 지원 경쟁 구조의 집중이라는 네 가지 구조적 특성을 일관되게 나타냄

* 기능의 편중 측면에서, 전체 사업의 77.8%가 문화향유(32.1%), 예술창작활동지원(26.2%), 문화예술교육 (19.5%)의 3개 대분류에 집중됨. 이 세 기능은 재단 유형이나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재단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보편적 사업 모델을 형성하고 있음. 반면 예술인지원(4.9%),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5.4%)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이들 기능이 일부 재단에서만 선택적으로 수행되거나 사업 단위로 독립 편성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함.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7.0%) 역시 시설 수탁 여부에 따라 재단 간 수행 여부가 크게 갈리는 기능임

* 예산 투입의 비대칭성 측면에서, 총 사업비 4,679억원의 51.5%에 해당하는 2,412억원이 문화향유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위 3개 기능의 합산 비중은 82.1%에 달함. 문화향유의 사업당 평균 사업비는 5.44억원으로, 예술창작활동지원(2.50억원)이나 문화예술교육(1.96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에 달함. 반면 예술인지원(1.9%)과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1.3%)은 사업비 비중이 매우 낮아, 예산 투입 측면에서는 사실상 주변부적 위치에 머물러 있음

* 기능별 추진방식의 이원화 측면에서, 예술창작활동지원은 전체 사업의 84.4%가 공모 방식으로 운영되는 반면 직접 주관 비중은 23.6%에 그쳐, 경쟁적 선발을 통한 지원금 전달이 지배적인 구조임. 반대로 문화향유는 직접 주관 비중이 82.3%에 달하고 공모 방식은 19.3%에 불과하여, 재단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형태가 중심을 이룸. 문화예술교육은 직접 주관(66.8%)과 공모(40.6%)가 모두 일정 비중으로 공존하는 혼합 구조를 보임. 이처럼 창작과 향유라는 두 핵심 기능이 서로 다른 운영 논리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됨

* 지원 경쟁 구조의 특성 측면에서, 예술창작활동지원 사업의 총 신청 건수는 36,477건인 데 반해 선정 건수는 10,421건으로, 선정률은 28.6%에 그침. 신청 예술인·단체 중 10명 중 약 7명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임. 전체 재원 구성에서 지자체 출연금이 65.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출연금의 상당 부분이 공모 방식을 통해 예술가·단체에게 직접 전달되는 구조임. 재단이 출연금 기반의 자율적 정책 역량을 보유하면서도 그 집행 방식은 경쟁적·선별적 지원 구조를 택하고 있다는 점은, 지원 접근성 확대와 지원 집중의 균형이라는 정책적 과제를 제기함

3. 광역·기초 재단 간 구조적 분화 양상

* 광역재단과 기초재단 간의 사업 구조 비교는 사업 수와 사업비 규모, 기능 구성, 재원 구조의 세 차원 모두에서 뚜렷한 분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줌. 이 분화는 단순한 규모의 차이를 넘어, 각 재단 유형이 서로 다른 정책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기능적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함

* 규모 구조의 역전 측면에서, 응답 기초재단(62개)의 수행 사업 수는 897건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하여 광역재단(17개, 494건, 35.5%)을 크게 상회하지만, 사업비 총액은 기초재단이 1,592억원(34.0%)으로 광역재단의 3,086억원(66.0%)에 크게 못 미침. 재단 1개소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광역재단은 사업 29.1건에 사업비 181.5억원인 데 비해 기초재단은 사업 14.5건에 사업비 25.7억원으로, 재단당 사업비 격차가 6.7배에 달함. 광역재단이 소수의 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기초재단은 다수의 소규모 사업을 폭넓게 수행하는 방식으로 분화되어 있음을 보여줌

* 기능 구성의 분화 측면에서, 광역재단은 예술창작활동지원이 전체 사업의 41.7%를 차지하여 단일 기능 중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는 반면, 문화향유는 13.6%에 그침. 이는 광역재단이 예술가·단체를 주요 수혜 대상으로 하는 창작 지원 중심의 구조로 특화되어 있음을 나타냄. 반면 기초재단은 문화향유가 42.3%로 가장 높고 예술창작활동지원은 17.7%에 머물러, 시민 직접 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음. 문화예술교육의 비중은 광역(20.0%)과 기초(19.2%) 간에 큰 차이가 없어, 교육 기능은 재단 유형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수행되는 공통 기능임을 알 수 있음.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 기능은 광역재단(2.8%)보다 기초재단(6.8%)에서 더 높은 비중을 보이는데, 이는 기초재단 상당수가 정체성 정립과 역량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 재원 구조의 역전 측면에서, 광역재단은 지자체 수탁사업비의 비중이 높은 수탁 중심 구조인 반면, 기초재단은 지자체 출연금이 재원의 핵심을 이루는 출연금 중심 구조가 지배적임. 이는 광역재단이 중앙정부 및 상위 지자체의 정책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역할이 사업 재원 구조에 반영된 결과이며, 기초재단은 지자체의 직접 출연을 기반으로 자체 기획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가 일반적임을 시사함. 재원 구조의 이러한 차이는 광역재단의 정책 역할이 수탁 사업 수행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반면, 기초재단은 지역 밀착형 기획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함을 반영함

* 세분류 단위 지원 현황에서 확인된 광역·기초 간 분화 측면에서, 새 3장의 세분류별 분석은 기능 구성의 분화가 실제 지원 규모와 경쟁 구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냄. 광역재단의 작품 창·제작 및 발표 지원 총 지원금(572.2억원)은 기초재단(78.98억원)의 7.2배에 달하며, 건당 평균 지원금에서도 광역(1,092.0만원)이 기초(539.1만원)를 2배 이상 상회함. 반면 기초재단은 생활문화 동아리·단체 활동 지원, 접근성 격차해소 지원 등 시민 밀착형 세분류에서 더 많은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로, 광역과 기초의 기능적 분화가 세분류 단위의 지원 현황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됨

4. 세분류 단위 지원 현황의 구조적 특성

* 본 연구는 3장에서 광역재단 51개·기초재단 47개 세분류별로 신청·선정 건수, 지원금 최소·최대·건당 평균·총액의 7개 지표를 산출하여 사업 지원 현황을 세분류 단위에서 처음으로 규명하였음. 이를 통해 동일 대분류 내에서도 세분류별로 지원 규모·경쟁 강도·지원 방식이 크게 다르며, 재단 유형과 권역에 따른 편차가 세분류 수준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음

* 지원 경쟁의 집중 구조 측면에서, 광역재단 작품 창·제작 및 발표 지원의 서울문화재단 선정률(11.1%)과 경기문화재단(7.1%)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수도권 광역재단으로의 지원 수요 집중을 수치로 확인시켜 줌. 반면 비수도권 광역재단의 선정률은 40~50%대로 높아, 동일 세분류 내에서도 재단에 따라 경쟁 강도가 본질적으로 다른 이중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기초재단에서도 서울권 선정률(16.3%)이 비수도권(50.9%)의 3분의 1 수준으로, 권역별 경쟁 구조의 비대칭이 기초재단 수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직접 운영 사업의 지표 포착 한계 측면에서, 문화향유의 기획행사·축제,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의 상당수 세분류는 광역·기초 재단 모두에서 지원금·신청·선정 유효 응답이 전무하였음. 이는 해당 사업들이 외부 수혜자에게 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이 아닌 재단 직접 운영·기획 방식으로 수행되기 때문으로, 지원금 기반의 7개 지표가 재단 사업 전체를 포착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함. 특히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는 재단 사업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능임에도 세분류 지표로는 전혀 포착되지 않아, 별도의 시설 운영 지표 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 규모 이질적 세분류의 존재 측면에서, 문화향유 내 경제적 격차해소 지원(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총 지원금 625.47억원, 신청 77만여 건으로 여타 세분류와 규모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사업임이 확인됨. 건당 평균 지원금 9.8만원은 이용권 단가 수준에 해당하며, 선정률 82.4%는 복지 수혜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일반 공모 방식과 직접 비교하기 어려움. 이와 같이 규모와 성격이 이질적인 세분류가 동일 대분류 내에 포함될 경우, 세분류 단위 분석에서 해석상 주의가 요구됨

* 세분류별 지원 방식의 다양성 측면에서, 단일 세분류 내에서도 재단마다 정액 지원, 차등 지원, 비금전적 지원 방식이 혼재하는 양상이 확인됨. 광역재단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이 고단가·저선정률의 선별 집중 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반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저단가·고선정률의 분산 지원 방식을 채택하는 대비가 세분류 전반에 걸쳐 반복됨. 기초재단에서는 서울권 재단이 소액·다수 분산 방식을, 비수도권 재단이 중·고단가 집중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나타나, 지원 방식의 권역별 패턴이 존재함을 보여줌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재단 유형별 지원 방향의 차별화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광역재단과 기초재단이 사업 규모, 기능 구성, 재원 구조의 세 차원 모두에서 이미 뚜렷하게 분화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는 두 유형의 재단에 대한 정책 지원이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설계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각 유형의 실제 사업 구조와 역할에 근거한 차별화된 지원 방향의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함. 나아가 재단 유형에 따라 직면하는 정책 과제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지원 정책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는 접근이 요구됨

* 광역재단에 대한 지원 방향과 관련하여, 분석 결과는 광역재단의 사업 재원 구조에서 지자체 수탁사업비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보여줌. 이는 광역재단이 중앙정부 및 광역 지자체의 정책사업 수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수탁 사업 의존이 심화될 경우 재단 고유의 기획 역량과 정책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예술창작활동지원이 전체 사업의 41.7%를 차지하는 구조 속에서, 창작 지원사업의 선정률이 28.6%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수요 대비 지원 공급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냄. 세분류 단위 분석에서도 수도권 광역재단의 선정률이 10% 내외에 그쳐 지원 수요의 지역 내 집중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광역재단에 대해서는 수탁 사업 수행과 별개로 재단이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고유 사업 영역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의 지원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창작 지원의 경쟁적 선발 구조 속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단체에 대한 대안적 접근 방식을 병행하여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 기초재단에 대한 지원 방향과 관련하여, 기초재단은 재단당 평균 사업비가 25.7억원으로 광역재단(181.5억원)의 약 15%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소규모로 운영되는 기초재단의 경우 문화향유 중심의 사업 구성에서 벗어나 기능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어려움이 있음. 실제로 예술인지원 기능의 기초재단 내 비중은 2.6%에 그쳐, 예술인 복지와 역량 개발이라는 정책 과제가 기초재단 수준에서는 사실상 미흡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세분류 단위 분석에서도 기초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교육훈련 등 다수 세분류가 지원금 응답조차 없어, 해당 기능의 기초재단 내 실질적 부재가 확인됨. 이에 따라 기초재단에 대해서는 재단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되, 소규모 기초재단이 취약한 기능 영역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광역재단과의 협력 구조나 공동 사업 수행 방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광역-기초 간 역할 분담의 체계화 방향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광역재단과 기초재단 간의 기능 분화가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왔음을 보여주지만, 이 분화가 의도된 정책 설계의 결과라기보다는 각 재단의 설립 여건과 재원 구조에 따라 형성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음. 광역재단이 예술창작 지원에, 기초재단이 문화향유에 집중하는 패턴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최적의 역할 분담인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함. 향후 광역재단과 기초재단의 역할 분담 체계를 정책적으로 명료화하고, 기능별 협력 방식과 사업 연계 구조를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예컨대 광역재단이 기초재단의 예술인 지원 기능 수행을 광역 단위에서 보완하는 구조, 또는 기초재단의 문화향유 사업에 광역재단의 콘텐츠와 기획 역량이 결합되는 협업 모델 등이 구체적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 유형 간 공통 과제로서, 광역재단과 기초재단 모두에서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 기능의 사업비 비중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고려할 때, 재단이 자체적인 정책 역량과 기획력을 축적하는 데 투입되는 자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단기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사업 중심 운영 방식이 지속될 경우, 재단의 장기적 전문성 강화와 지역 문화정책의 질적 발전이 제약될 수 있음. 따라서 광역·기초 재단 모두에 대해 정책 연구, 인력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역량 기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설계하고, 이를 경영평가나 성과 관리 지표에 반영하는 방향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2. 기능별 정책 과제

* 기능별 사업 구조 분석은 지역문화재단이 수행하는 각 기능 영역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정책 과제가 존재함을 드러냄. 기능에 따라 수행 재단의 수, 사업 규모, 재단 유형 간 편차, 추진방식의 구조가 상이하며, 세분류 단위 지원 현황 분석은 이러한 차이를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각 기능별로 개별화된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더욱 뒷받침함

* 예술창작활동지원 기능은 전체 응답 재단의 75.0%인 60개 재단이 수행하는 보편적 기능이지만, 광역재단과 기초재단 간의 구조적 차이가 뚜렷함. 광역재단은 예술창작 사업이 전체 사업의 41.7%를 차지하며 이 기능의 핵심 수행 주체로 기능하는 반면, 기초재단에서의 비중은 17.7%에 그침. 세분류 단위 분석에서는 수도권 광역재단으로의 경쟁 집중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 서울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의 작품 창·제작 및 발표 지원 선정률은 각각 11.1%, 7.1%로 전국 최저 수준임. 이러한 경쟁 집중 구조는 창작 지원의 접근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모 방식 외에 예술인이 지원 경쟁 없이 창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보완적 지원 경로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초재단이 지역 예술인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 창작 지원 사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도 병행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 기능은 수행 재단 56개(70.0%)로 광범위하게 분포하지만, 사업 규모에서의 광역·기초 간 격차가 두드러짐. 광역재단의 교육 사업당 평균 사업비는 3.95억원인 데 반해 기초재단은 0.80억원에 그쳐 약 5배의 격차를 보임. 세분류 단위 분석에서는 기초재단의 세대통합형·유아예술교육·청년·성인 예술교육 등 다수 세분류에서 지원금 응답이 전무하거나 극히 소규모여서, 기초재단의 문화예술교육이 양적으로는 폭넓게 수행되고 있으나 세분류별 기능 다양성 측면에서는 제약이 크다는 점이 확인됨. 이에 따라 기초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수 확대보다 개별 프로그램의 충실도와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하고, 교육 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 기반 구축에 대한 투자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예술인지원 기능은 전체 응답 재단의 30.0%에 해당하는 24개 재단만이 수행하고 있어, 6대 기능 중 수행 재단 수가 가장 적은 영역임. 광역재단은 10개 재단이 45건의 사업에 78.4억원을 투입한 반면, 기초재단은 14개 재단이 23건에 11.3억원을 투입하는 데 그침. 세분류 단위 분석에서는 법률·세무 컨설팅, 건강 및 심리지원, 대출지원 등 다수 세분류가 광역·기초 모두에서 지원금 응답이 전무하거나 비금전적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예술인 권익·복지 지원이 통계 지표로 포착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 확인됨. 예술인 지원 정책이 광역 단위에 집중될 경우 기초 지역 예술인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광역재단의 예술인지원 사업이 기초 단위 예술인에게도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달 체계를 정비하고, 기초재단이 소규모라도 예술인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기능은 응답 재단의 46.2%인 37개 재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규모에서는 기초재단이 오히려 광역재단을 상회함. 기초재단 30개소가 73건의 시설 운영 사업에 365.3억원을 집행한 데 비해, 광역재단은 7개소가 24건에 167.7억원을 투입하였음. 세분류 단위 분석에서도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는 광역·기초 모두에서 지원금·신청·선정 응답이 전무하여, 지원금 기반의 지표 체계로는 이 기능의 실제 운영 현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 구조적 공백이 확인됨. 기초재단이 공연장·전시장·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운영의 실질적 부담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업 단위 통계로 집계하기 어려운 상황은, 시설 운영 성과를 별도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지표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함. 또한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고정 지출이 과도할 경우 재단의 기능 다양화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시설 운영 수탁의 범위와 조건에 대한 재단과 지자체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한 과제로 제기됨

* 정책연구·교류 및 재단운영 기능은 사업비 비중이 전체의 1.3%에 그쳐 투입 자원이 가장 적은 영역이지만, 수행 재단의 분포에서는 기초재단(25개소, 61건, 40.9억원)이 광역재단(7개소, 14건, 21.6억원)을 앞섬. 이는 일부 기초재단이 정책 역량 강화와 재단 운영 기반 구축에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규모 재단일수록 자체 정체성 확립과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세분류 단위 분석에서는 정책포럼·문화재단 교류·아카이브 구축 등 대부분의 세분류가 직접 운영 방식으로 수행되어 지원금 지표로는 포착되지 않으며, 이는 이 기능의 실질적 투자 규모가 통계에서 과소 측정되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냄. 지역문화재단이 단순한 사업 집행 기관을 넘어 지역 문화정책의 전문 파트너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책 연구와 데이터 축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

3. 광역-기초 간 역할·분담 체계화 방향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광역재단과 기초재단 간에 사업 기능의 자생적 분화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음을 보여줌. 광역재단은 예술창작활동지원 중심, 기초재단은 문화향유 중심이라는 패턴이 전국 단위 데이터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며, 재원 구조에서도 광역은 수탁 중심, 기초는 출연금 중심이라는 대비가 뚜렷함. 그러나 이 분화는 명시적인 역할 분담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각 재단이 처한 설립 여건과 재원 구조, 지자체의 위탁 방식에 따라 누적적으로 형성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음. 자생적으로 형성된 분화가 반드시 효율적이거나 의도된 정책 목표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를 점검하고 체계화하는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기능 분화의 명료화 측면에서, 현재의 분화 패턴을 토대로 광역재단과 기초재단이 각각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 영역을 정책적으로 명료화하는 작업이 요구됨. 광역재단이 예술창작 지원, 정책 연구·교류, 예술인 복지의 광역 단위 허브 기능에 집중하고, 기초재단이 문화향유, 생활문화 활성화, 지역 밀착형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은 현재의 실제 구조와 부합하며 각 유형의 강점을 살리는 방향이기도 함. 다만 이러한 방향이 기초재단의 기능을 문화향유와 교육으로 고착화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초재단의 역량 성장에 따라 기능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연성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기능 공백 영역의 협력적 해소 측면에서, 분석 결과는 예술인지원 기능이 광역재단에서도 기초재단에서도 충분히 수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수행 재단 수 기준으로 전체의 30.0%에 불과한 예술인지원 기능은, 광역 단위의 지원 사업이 기초 지역 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단절을 드러내는 동시에, 기초재단이 이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재원과 역량이 제한적임을 보여줌. 세분류 단위 분석에서도 예술인 복지·권익 관련 세분류 대부분이 지원금 응답이 없거나 극소수 재단에 한정되어 있어, 이 기능의 공백이 세분류 수준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됨. 이러한 기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재단이 기초재단을 거점으로 삼아 예술인 지원 서비스를 지역에 전달하는 협력 구조를 구체화하거나, 광역-기초 공동 사업의 방식으로 예술인지원 기능의 지역적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책연구·교류 기능 역시 개별 재단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광역 단위 플랫폼을 통해 기초재단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효율성과 성과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

* 중복 사업 조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능 분화가 진행되는 한편으로 유사한 기능의 사업이 광역재단과 기초재단에서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존재함. 문화예술교육 기능의 경우 광역재단(20.0%)과 기초재단(19.2%) 모두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문화향유 사업 역시 광역재단(13.6%)이 완전히 배제된 기능은 아님. 중복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동일 지역 내에서 광역재단과 기초재단이 유사한 대상을 상대로 유사한 기능의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음. 이에 따라 광역-기초 간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연간 사업 계획 단계에서 중복과 공백을 함께 점검하는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실질적인 역할 분담 체계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협력 구조 측면에서, 광역-기초 간 역할 분담은 전국 단일 기준보다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함. 수도권의 경우 기초재단의 수와 사업 수가 많고 재단 간 경쟁과 협력 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비수도권 권역에서는 기초재단의 수가 적고 재원 규모가 작아 광역재단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함. 세분류 단위 분석에서도 기초재단의 권역별 선정률과 지원금 단가 구조가 서울권·경기인천권·비수도권 간에 일관된 차이를 보여, 권역에 따라 기초재단이 처한 지원 여건이 본질적으로 다름이 확인됨. 따라서 비수도권 권역에서는 광역재단이 기초재단을 보완하는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수도권에서는 기초재단의 자율적 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권역별로 차별화된 협력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음

4. 지역문화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향

* 본 연구는 전국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현황을 사업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한 최초의 시도로서, 지역문화 통계 기반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고유한 의의를 가짐. 그러나 동시에 이번 조사의 결과는 현재 지역문화 데이터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지를 역으로 드러냄. 148개 재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최종 응답 재단은 79개소에 그쳤으며, 세분류 단위 분석에서는 다수의 세분류에서 직접 운영 방식 사업의 지원금 미응답, 데이터 입력 오류, 신청·선정 건수 공백이 광범위하게 나타남. 이는 응답 여부의 문제를 넘어, 현장에서 사업 성과를 수치화하고 보고하는 통계 역량 자체가 아직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나타냄

* 표준 분류체계의 제도적 정착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수립한 6대 기능 대분류 체계는 이번 조사를 위한 일회성 도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역문화재단 관련 통계 생산의 표준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지역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응답하거나 지자체가 재단의 사업 현황을 집계할 때 이 분류체계를 공통 기준으로 활용한다면, 재단 간·연도 간 비교가 가능한 통계의 축적이 가능해짐. 이를 위해서는 분류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정교화되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기타 범주로 처리된 69건(5.0%)의 사업 유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분류 항목의 보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지원금 기반 지표의 보완 측면에서, 세분류 단위 분석을 통해 기획행사·축제·문화시설 운영 등 직접 주관 방식의 사업이 지원금·신청·선정 지표로는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한계가 확인됨. 이는 지역문화재단 사업의 상당 부분이 현행 지표 체계의 바깥에 존재함을 의미하며, 재단의 실질적인 기능 수행 현황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기반 지표 외에 직접 운영 사업의 참여자 수, 프로그램 수, 시설 이용자 수, 운영 예산 등을 별도로 집계하는 지표 체계의 확장이 요구됨. 특히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기능은 재단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세분류 지표로는 전혀 포착되지 않아, 관련 지표 개발이 시급한 영역임

* 정기 통계 생산 체계의 구축 측면에서, 본 연구가 산출한 기초통계가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면 조사에서 나아가 정기적·반복적으로 생산되는 통계 체계로 발전해야 함. 현재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현황을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정기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재단별로 발간하는 성과보고서는 집계 항목과 방식이 상이하여 비교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본 연구에서 설계한 조사표 체계와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2~3년 주기의 정기 조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기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재단의 사업 구조 변화 추이를 시계열로 추적하고, 정책 개입 전후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가능해짐

* 미응답 재단 포괄 방안 측면에서, 이번 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은 69개 재단의 현황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전국 단위 분석의 대표성 측면에서 한계로 작용함. 미응답 재단의 상당수는 소규모 기초재단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소규모 재단의 사업 구조와 재원 현황이 현재 통계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을 수 있음. 응답률 제고를 위해서는 조사 결과를 개별 재단 단위로 환류하여 재단 스스로의 자기 진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지자체가 산하 재단의 조사 참여를 행정적으로 독려하거나 조사 참여 여부를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음

* 데이터 활용 체계의 확장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구축한 사업 단위 데이터는 재단 간 비교 분석과 정책 시뮬레이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짐. 재단 규모별 사업 포트폴리오 유형 분류, 특정 지역의 문화재단 사업 구조와 해당 지역 문화 향유 수준 간의 관계 검토, 중앙정부의 지역문화 관련 공모사업 수혜 여부가 재단의 사업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추적 등이 데이터 축적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음. 이러한 활용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접근 가능성 확보, 관련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의 활용을 지원하는 공개 인프라의 단계적 구축이 요구됨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의의

* 본 연구는 전국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현황을 사업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비교 가능한 통계로 산출한 최초의 실증 연구라는 점에서 고유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가짐. 지금까지 지역문화재단에 관한 논의는 주로 재단의 설립 현황, 조직 구조, 재정 규모 등 기관 단위의 총괄 정보에 집중되어 왔으며, 재단이 실제로 어떤 기능의 사업을 얼마나 수행하는지를 사업 단위에서 파악한 연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음. 본 연구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별 사업을 분석 단위로 설정하고, 79개 응답 재단의 1,391건 사업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 사업 구조에 관한 최초의 전국 단위 기초통계를 산출하였음

* 분류체계 수립의 의의 측면에서, 본 연구가 개발한 6대 기능 대분류 체계는 지역문화재단 사업에 적용 가능한 최초의 기능 중심 표준 분류체계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기여를 가짐. 기존의 장르 중심·사업 유형 중심 분류체계가 지역문화재단 사업의 기능적 다양성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던 것과 달리, 본 연구의 분류체계는 사업의 목적과 역할, 1차 수혜 대상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동일 장르 내에서도 사업의 정책적 성격과 수혜 구조가 다를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반영함.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검증된 이 체계는 향후 지역문화재단 관련 통계 생산과 정책 평가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실증 근거 제공의 의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그간 논의 수준에서만 언급되어 온 지역문화재단의 기능 분화와 광역·기초 간 역할 분담 문제를 전국 단위 데이터로 실증하였음. 광역재단의 예술창작 집중과 기초재단의 문화향유 집중이라는 패턴, 재단 유형별 재원 구조의 대비 등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발견들은 기존의 현장 인식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이를 정책 설계의 실증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음. 나아가 예술인지원 기능의 광범위한 공백, 소규모 기초재단의 구조적 취약성, 교육 사업의 광역·기초 간 규모 격차 등 기존 통계로는 가시화되지 않았던 현황을 처음으로 수치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후 지역문화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지원 방향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세분류 단위 분석 방법론의 의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6대 기능 대분류 체계를 3단계 위계 구조의 최하위 단위인 세분류까지 적용하여, 광역재단 51개·기초재단 47개 세분류별로 신청·선정·지원금 7개 지표를 산출하는 분석 방법론을 처음으로 체계화하였음. 이를 통해 동일 대분류 내에서도 세분류에 따라 지원 규모·경쟁 구조·지원 방식이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직접 운영 방식의 사업이 지원금 기반 지표로는 포착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한계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음. 세분류 단위 분석은 대분류 수준의 집계 통계가 가릴 수 있는 내부 편차와 사업 방식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분석 도구로서, 향후 지역문화재단 정책 설계와 평가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방법론적 기여로 평가됨

* 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의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역문화 분야의 기초 단위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라는 중장기적 과제의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를 가짐. 사회복지, 체육, 교육 등 인접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기초 단위 사업 통계가 이미 체계적으로 생산·관리되고 있는 것과 달리, 지역문화 분야는 이에 상응하는 기초자료 수집 체계가 부재한 상태였음. 본 연구에서 수립한 조사표 체계, 기능 분류체계, 분석 방법론은 향후 정기 통계 생산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계열 분석과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한 지역문화 통계 인프라의 단계적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향후 과제

* 본 연구는 전국 지역문화재단 사업 현황의 체계적 파악을 위한 최초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동시에 이번 조사가 도달하지 못한 영역과 분석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후속 연구와 제도 개선의 과제로 연결하는 것이, 본 연구의 성과를 실질적인 정책 인프라로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과정임

* 조사 체계의 개선 측면에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79개소(53.4%)로 전체 148개 재단의 절반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음. 미응답 재단 69개소의 사업 현황이 분석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특히 소규모 기초재단의 실태가 과소 대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향후 조사에서는 응답률 제고를 위한 구조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조사 결과를 개별 재단 단위로 환류하여 재단 스스로의 자기 진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참여 동기를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또한 지자체가 산하 재단의 조사 참여를 행정적으로 독려하거나 조사 참여 여부를 경영평가 항목에 연계하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아울러 세분류 단위 분석 과정에서 다수의 항목에 걸쳐 데이터 입력 오류와 단위 혼용이 발견된 만큼, 조사표의 항목 구조 재설계 및 응답 범위 안내 강화, 온라인 조사 시스템의 유효성 검증 기능 개선 등 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한 조사 도구 차원의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지원금 기반 지표의 확장 측면에서, 세분류 단위 분석을 통해 기획행사·축제·문화시설 운영·정책연구 등 직접 주관 방식의 사업 전반이 지원금·신청·선정 지표로는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한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음. 재단 사업의 상당 부분이 현행 지표 체계의 바깥에 존재하는 만큼, 향후 조사에서는 직접 운영 사업의 참여자 수, 프로그램 수, 시설 이용자 수, 운영 예산 등을 별도로 집계하는 지표 항목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음. 특히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기능은 재단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세분류 지표로는 전혀 파악되지 않아, 관련 지표 개발이 시급한 영역으로 확인됨

* 정기 통계 생산 체계의 제도화 측면에서, 본 연구의 기초통계가 일회성 자료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으로 지속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기적·반복적 조사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됨. 재단의 사업 구조는 지자체의 정책 방향,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변화, 재단의 역량 성장 등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함. 따라서 연 단위의 정기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변화를 시계열로 추적하고, 특정 정책 개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가능해짐. 정기 통계 생산의 제도화는 단순히 조사 주기를 설정하는 문제를 넘어, 조사의 주관 기관과 수행 체계, 데이터 관리 및 공개 방식, 분류체계의 유지·보완 절차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운영 체계의 설계를 전제로 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진흥원 등 중앙 문화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이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분석의 심화와 확장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전체 사업의 기능별 분포와 광역·기초 간 비교, 세분류 단위 지원 현황 분석이라는 구조적 분석에 집중하였으나, 개별 재단 단위의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은 이번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 있음. 유사한 규모와 여건의 재단들 사이에서 사업 구조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정 기능에 특화된 재단과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재단의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재단의 설립 연도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사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질문은 후속 분석에서 다루어져야 할 과제임. 또한 본 연구에서 수집한 사업 단위 데이터를 지역 단위의 문화 향유 실태, 인구 구조, 지자체 재정 지표 등 외부 데이터와 연계하는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구조와 지역 문화생태계 수준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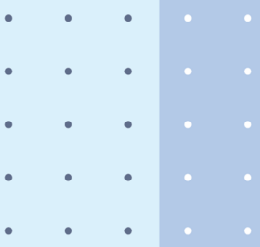
* 분류체계의 지속적 정교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수립한 6대 기능 대분류 체계는 현장 적용 결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함. 이번 조사에서 기타 범주로 분류된 69건의 사업 유형 중 일부는 독립적인 분류 항목 설정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업 유형과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분류 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세분류 단위 적용 과정에서는 동일 명칭의 세분류가 중분류에 따라 복수로 존재하거나, 직접 운영 방식과 지원금 방식이 혼재하는 세분류의 성격 구분이 모호하게 나타나는 사례도 확인되었음. 분류체계의 안정성과 시계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장 변화를 반영하는 균형 있는 관리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체계 운영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분류체계 운영 주체, 개정 절차, 현장 의견 수렴 방식 등을 포함하는 관리 체계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부록

2025 지역문화재단 사업조사 연구







지역문화재단 사업조사 연구

"귀 재단의 소중한 의견이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미래를 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주)케이스탯리서치가 수행하는 「지역문화재단 사업조사 연구」입니다. 본 조사는 전국 광역·기초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유형화할 수 있는 표준 조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향후 재단 간 기능과 구조를 비교 분석하고, 재단 유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조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떤 내용을 조사하나요?

조사 대상: 전국 150여 개 광역·기초 지역문화재단 전체가 대상입니다.
조사 기준: 20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된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사 내용: 재단의 일반 현황, 조직/인력/재정 현황 및 2024년에 수행한 모든 개별 사업의 상세 현황(예산, 인력, 지원 규모, 선정 결과 등)을 조사합니다.

※ 어떻게 응답해야 하나요?

본 설문은 재단에서 지정해주신 '전담 응답자'께서 작성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총괄 1인 또는 부서별 담당자)
응답의 편의를 돕고자, ㈜케이스탯리서치가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한 귀 재단의 2024년 사업 목록을 조사표에 미리 탑재하였습니다.

- 1단계: 사전 탑재된 사업 목록을 검토하고, 누락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수정·보완합니다.
- 2단계: 각 사업별로 예산, 지원 규모, 선정 결과 등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상세 정보를 추가로 기입합니다.

※ 응답에 대한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응답에 소요된 시간에 보답하고자, 조사를 완료하여 최종 제출해주신 지정 담당자께 소정의 사례비를 제공합니다. 사례비는 응답하신 사업의 개수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세부 기준은 별도 안내)

※ 응답 자료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수집된 모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 작성 및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재단별 원자료(Raw Data)는 외부로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조사대상 사업 범위 안내

본격적인 응답에 앞서, 본 조사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귀 재단에서 2024년(2024.1.1.~12.31.) 중에 예산을 편성하여 수행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교부금, 자체 예산 등으로 수행한 모든 사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포함/제외 항목을 확인하신 후, 귀 재단의 사업 목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에 포함되는 사업

- 재단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아래와 같은 모든 활동이 포함됩니다.

(창작/복지) 예술창작활동 지원, 예술인 복지 및 지원 사업
(교육/인력) 문화예술교육 사업, 관련 인력 양성 사업
(향유/참여) 문화향유, 생활문화, 시민참여, 축제 등 관련 사업
(시설 운영) 공연장, 전시장,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운영·관리 사업
(정책/연구) 문화정책 연구, 교류 협력, 재단 자체 기획 사업
(기타) 상기 항목 외 재단이 수행한 모든 사업

[중요] 재단 운영 사업도 포함됩니다.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과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재단의 행정, 경영, 홍보, 평가 사업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2. 조사에서 제외되는 사업

- 다음과 같은 사업은 본 조사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관광 사업: 재단 사업 중, 문화예술과 직접적인 연관 없이 '관광'이 주 목적인 사업(관광 상품 개발, 관광지 홍보 마케팅 등)은 제외합니다.
일반 행정: 별도 사업 예산 없이 '일반운영비' 또는 '인건비' 항목으로만 집행되는 단순 행정 업무 (급여 지급, 4대 보험 관리)는 제외합니다. (단, '경영평가 대응', '조직 진단 연구' 등 별도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포함 대상입니다.)

3. 사업 목록 검토 및 수정 방법

- 다음 페이지에 표시되는 사업 목록은 ㈜케이스탯리서치가 귀 재단의 홈페이지, 공시자료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조사하여 탑재한 것입니다.

이 목록을 기준으로, 아래 3가지 작업을 수행해 주십시오.

- 추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2024년에 실제 수행한 사업(내부 기획 사업)이 누락된 경우, '사업 추가' 버튼을 눌러 직접 입력해 주십시오.
- 삭제: 사전 조사된 목록 중, 본 조사의 범위에 맞지 않는 사업(안내된 '관광'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을 삭제해 주십시오.
- 확인: 목록에 있는 사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면, 해당 사업을 확인하신 후 다음 단계(상세 정보 입력)를 진행해 주십시오.

※ 특정 사업이 포함 대상인지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우선 목록에 포함하신 후 조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명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사업의 기본 정보

사업명			
사업명(세부1)			
사업명(세부2)			
사업개요 (목적)			
지원대상 또는 기준			
사업설명 또는 공고문 링크			
사업의 성격/기능 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 사업의 재원 유형 및 예산 규모

추진 방식	직접 주관	일반 공모	외부 용역	기타 사업추진 방식
해당 여부(복수)	☐	☐	☐	☐
				(기타 입력)

재원 유형 및 규모	사업비 총액	국비보조	상위 지자체보조	지자체출연	지자체 수탁사업비	기금	기타 (민간기부금 등)
해당 여부(복수)		☐	☐	☐	☐	☐	☐
금액(만원)							

▶ 사업비 수익 현황

사업비 수익 현황	수익 총액	입장료 등 티켓 판매 수익	후원 및 기부금	판매 수익	기타 잡수입
수익금(만원)					

▶ 해당 사업 신청 가능 장르

신청 가능 장르(복수)	전체	문학	공연	공연- 음악	공연 - 연극	공연 - 무용	공연 - 전통	공연 - 다원
	☐	☐	☐	☐	☐	☐	☐	☐
	공연 - 예술일반	시각	전통	다원	영화	문화일반	기타	
	☐	☐	☐	☐	☐	☐	☐	
							(기타 입력)	

▶ 해당 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 방식

지원 대상

공모 여부	해당 ☐ / 비해당 ☐	지원 방식	정액형 ☐ / 비정액형 ☐

▶ 해당 사업 운영 결과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지원금 집행 현황				
금전 지원 여부	해당 ☐ / 비해당 ☐			
지원금 결정액(만원)	지원금 총액(만원)	최소 결정액(만원)	최대 결정액(만원)	평균 지원결정액(만원)

지원금 집행 현황			
지원금 결정액(만원)	최소 지원액(만원)	최대 지원액(만원)	평균 지원액(만원)
총 수혜 예술인 수(명)			

▶ 해당 사업 운영 방식 및 운영 결과

공모 여부	해당 □ / 비해당 □	공간 개소 (관리단위 기준)	
참여 예술인(단체) 수		참여 수강생 수	
참여 강사 수		참여 생활문화단체 수	
참여 동호인 수		사업 참여자(단체) 수	

관람객 참여	유료 □ / 무료 □	전체 관람객 수(명)	
행사/축제 진행 기간(일)		총 수혜자 수(명)	
총 프로그램 수(건)		방문시설(공간) 수(개)	

▶ 해당 사업 운영 방식 및 운영 결과

총 프로그램 수		참여 예술교육단체 수		참여 예술교육강사 수	

▶ 해당 사업 수행 인력 현황

전담 인력 수(명)	
전담 조직 현황	보유 □ / 미보유 □
직제규정 기준 전담 조직 수(개)	

▶ 해당 사업 세부 현황

정기조사 통계 건수		비정기조사 통계 건수	
정기간행물 발간 건수		비정기간행물 발간 건수	

네트워크 / 거버넌스			
개최 건수		교류 기관 수	

아카이빙 / DB 구축			
기록물 수		DB 구축 수	
정기 조사 여부	해당 □ / 비해당 □		

▶ 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공간 개소 (관리단위 기준)			
연간 이용자 수		연간 이용 단체 수	

▶ 후원 건수 및 재원 조성 현황

후원 건수				
재원 조성	순 민간후원금 총액(만원)	최소 후원금(만원)	최대 후원금(만원)	평균 후원금(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